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수 영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수 영

인 준 서

이수영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0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영아반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영아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 나타난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반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와 영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K시에 위치한 H어린이집의 만 2세 새싹반 영아 14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실행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예비연구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본 연구는 2017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참여관찰, 개별 면담과 집단 협의, 반성적 저널, 연구자 일지, 연구관련 문서자료, 객관화된 검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과 교사와 영아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수집된 자료를 통합 및 분류, 자료분석, 자료 범주화, 범주 분석 및 의미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와 영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행연구 전·후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및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안전지식 및 비

안전행동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해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여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와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협력적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연구자는 교사와의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영아 안전교육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찾아 협력적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는 계획-실행-관찰 및 반성-재실행의 절차에 따라 총 3차의 실행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차 실행은 ‘안전한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하기’로 실제 일어났던 사고를 분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안전교육활동으로 활용하였다. 2차 실행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 로 만 2세 영아의 발달과 수준에 맞는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아 안전교육의 주제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안전교육의 내용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3차 실행은 ‘다양한 영아 안전교육 교수법 적용하기’로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방법 및 상호작용 관련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아 안전교육에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와 영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적 실행과정이 교사와 영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안전지식 및 안전 실천이 향상되고,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들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안전지식이 향상되었으며, 어린이집에서 관찰되는 비안전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영아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안전지식을 습득하여 안전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안전교육을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하는 교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협력하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면서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아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고, 주변 환경과 구성원에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는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고,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으며, 영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행동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 연수 및 교사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에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영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II. 이론적 배경	8
1. 영아 발달과 안전	8
2. 영아 안전교육	16
3. 선행연구	34
III. 연구방법	47
1. 협력적 실행연구	47
2. 연구자 배경	49
3. 연구대상	51
4. 연구절차	65
5. 자료수집	83
6. 자료분석 및 처리	98
IV.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	103
1.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한 준비 과정	103
2. 1차 실행	123
: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	

3. 2차 실행	155
: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 구성하기	
4. 3차 실행	179
: 다양한 영아안전교수방법 적용하기	
V.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변화	206
1.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6
2.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안전지식,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208
3.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변화	213
4.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228
VI. 논의 및 결론	251
1. 논의	251
2. 결론 및 제언	27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2세 영아의 주요 안전사고	14
<표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범주	21
<표 3> 영유아 안전교육의 내용 영역	24
<표 4> 영유아 안전교육의 내용 영역 및 관련 개념	25
<표 5>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영역 : 만 0-1세	27
<표 6>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영역 : 만 2세	28
<표 7> 평가인증 3차지표 안전 영역	30
<표 8> 평가인증 안전영역 평가지표 3-1의 구성요소	31
<표 9> 지자체 어린이집 모니터링 안전영역	32
<표 10> 안전교육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34
<표 11> 영유아 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	38
<표 12>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관련 연구	41
<표 13>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 관련 연구	43
<표 14> 연구 참여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56
<표 15> 연구 참여 영아의 일반적인 특성	57
<표 16> 만 2세반 하루일과표	64
<표 17> 협력적 실행연구 일정 및 내용	71
<표 18> 협력적 실행연구의 연구자와 교사 간 상호 협력 흐름	73
<표 19> 협력적 실행과정의 세부내용	77
<표 20>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실시한 안전교육계획안 목록	81
<표 21>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제작한 교재교구 목록	82

<표 22> 자료수집 방법과 내용	84
<표 23> 교사의 안전지식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85
<표 24> 교사의 안전실천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86
<표 25> 교수효능감 하위 영역 및 문항	87
<표 26> 검사 도구에 따라 제작된 그림 예시	88
<표 27> 영아의 안전지식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89
<표 28> 영아의 비안전행동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90
<표 29> 교사대상 면담 내용	94
<표 30> 원장대상 면담 내용	95
<표 31> 질문 유형에 따른 면담 질문	96
<표 32> 문서자료 및 기타 자료수집 목록	97
<표 33> 효율적 안전교육을 위한 문헌 목록	119
<표 34> 보육시설 안전 체크리스트	125
<표 35> 1차 실행의 과정	130
<표 36>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표	132
<표 37> 실제 사고 사례에 따른 환경구성	133
<표 38> 2차 실행의 과정	158
<표 39>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표	159
<표 40> 연간 안전교육계획안 안전지식 · 안전기술 · 안전태도 설정하기	164
<표 41>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계한 안전교육활동	170
<표 42>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제작한 교재교구 목록	176
<표 43> 연구자와 교사가 교수학습방법을 위해 함께 검토한 문헌자료	181
<표 44> 3차 실행의 과정	182
<표 45>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표	184

<표 46> 시범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186
<표 47> 시범과 게임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187
<표 48> 문학을 통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190
<표 49> 미디어를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197
<표 50> 역할놀이를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199
<표 51> 현장학습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205
<표 52> 교사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의 사전·사후 검사	206
<표 53> 영아의 안전지식 변화	208
<표 54> 영아의 안전지식에 대한 비모수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209
<표 55> 영아의 비안전행동 변화	210
<표 56>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대한 비모수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212

그림 목 차

[그림 1] H어린이집 배치도	52
[그림 2] 만 2세 전경 및 교실배치도	65
[그림 3]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절차	72
[그림 4] 협력적 실행 연구의 과정 및 절차	80
[그림 5] 영아의 안전지식 진단	114
[그림 6] 영아의 비안전행동 진단	115
[그림 7] 새싹반 A교사, B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116
[그림 8]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116
[그림 9] 교사별 교사효능감 진단	118
[그림 10] H어린이집 층별 반 배치도	127
[그림 11]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의 실행과정	131
[그림 12] 변경 전·후 새싹반 배치도	137
[그림 13] 환경 개선 전 1-2층 연결 계단	143
[그림 14] 새싹반의 교실 환경 개선 모습	145
[그림 15] 계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계단 이용하기에 대한 사진 게시물	148
[그림 16] 교실내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 사진	150
[그림 17] ‘위험해요’ 사진과 사진을 보고 있는 영아 모습	151
[그림 18]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과 위험한 모습이 있는 사진	152
[그림 19] 영아가 만지지 않도록 부착 표시를 한 모습	153
[그림 20]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실행과정	160
[그림 21]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 안전교육활동 목표	

설정하기	161
[그림 22]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범주 구성	171
[그림 23] ‘양치질을 해요’ 교구로 활동하는 모습	177
[그림 24] 영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양치질을 해요’ 교구	178
[그림 25]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실행과정	183
[그림 26]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활동 모습	186
[그림 27] 시범과 게임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소방안전교구 ...	188
[그림 28] ‘똑똑똑 누가 왔어요’ 수업 모습	192
[그림 29]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업 모습	197
[그림 30]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한 수업 모습	198
[그림 31] ‘카시트를 이용해요’ 수업 모습	200
[그림 32] ‘횡단보도를 건너요’ 사전 활동 모습	204
[그림 33] ‘횡단보도를 건너요’ 본 활동 모습	205
[그림 34] 교사별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의 변화	207
[그림 35] 영아의 안전지식에 대한 변화	210
[그림 36]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대한 변화	21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16년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1-5세 취학 전 영유아 중 86.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1-2세 영아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80.1%에 달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육아정책연구소, 2017). 이처럼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만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 2014).

특히, 2016년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육아동 1,451,215명 중에서 845,984명인 58.2%가 만 2세 이하의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2008년 이후부터 만 0-1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점점 하향화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의 생활시간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와 종일반의 증가로 영유아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6-7시간으로 나타나,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 영유아 관련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 점차 어려워지고, 보육시설에서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보육시설의 환경이 가정환경에 비견할 만큼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

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장소영, 2011).

보육시설에서는 가정에서와 같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012),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유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반면 위험 예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로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채혜선, 임미혜, 김종배, 이순자, 안경일, 2014).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Maslow, 1968), 누구나 위험이나 사고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하고자 하지만 안전사고는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영아들은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발달 특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정재경, 성소영, 2011).

안전사고로부터 영아를 지키기 위해 영아에게 안전하게 생활하는 습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윤선화, 전윤경, 2012). 영아기는 모방을 통해 배워나가는 시기로 성인을 통해 올바른 안전한 행동을 익힘으로써 안전에 대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채혜선 외, 2014). 이렇게 영아기부터 습득한 안전에 대한 태도는 평생에 이르는 좋은 안전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다(Kendricks, Kaufmann, & Messenger, 1988).

안전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국립국어연구원, 2014). 이러한 의미를 기초로 영아 안전교육의 의미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부터 영아의 안전한 생활의 유지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화, 신혜경, 이임복, 2011).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정아란, 2011). 영아기는 모방성과 민감성이 발달된 시기이므로 어려서부터

안전한 행동과 태도를 익히고 생활화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위험해 대비할 수 있는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채혜선 외, 2014; Pickle, 1989; Rosenbaum & Drabman, 1991). 특히 영아기부터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시작되므로, 영아기는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안전 기본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김경화 외, 2011; 정재경 외, 2015).

그러나 이러한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영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영아교사 중 15%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이 계획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홍혜선(2002)의 연구에서는 원장과 교사들이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영아의 발달 수준에 부적합하게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을 살펴 본 권경숙, 박지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별도의 영아 안전교육 없이 유아반의 안전교육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하거나,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유아용 안전교육의 내용을 단순화시키거나 언어 사용의 수준을 낮춰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4월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갖게 했던 세월호 사고와 함께 뉴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 되면서 보육기관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보육기관의 교사들은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비해 영아안전사고에 대한 교사교육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권경숙, 박지영, 2010;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 홍혜선, 2002),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한 안전교육과 그에 대한 교사교육은 더욱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정재경, 2011). 또한 교사들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영아 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권경숙, 박지영, 2010). 또한, 김은희, 유준호(2013)의 유아 안전교육 동향 연구에 따르면 안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연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영아기부터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을 때, 영아 안전교육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안전교육 및 영아 안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 안전교육의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동화를 통한 안전교육(박유영, 2004), 통합적 접근을 통한 안전교육(유선희, 2003), 토의를 통한 안전교육(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 현장학습을 활용한 안전교육(서유미, 2008), 상황극을 활용한 안전교육(고정완, 2016)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안전교육의 영역에 대한 연구로 안전교육 중 한 가지 주제 영역을 선택하여 유괴예방 관련 연구(최기은, 2004), 놀이안전에 관한 연구(이화영, 2008), 화재안전과 관련된 실태연구(오정옥, 2008),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 김현수, 2010; 박유영, 2004; 변정희, 2006; 선희숙, 2001; 유선희, 2003; 이미경, 2010) 등이 있었으며, 안전교육의 영역 중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영역과 관련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 연구의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김명주, 2015; 이소정, 2009; 장소영, 2011;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 홍혜선, 2002)가 이루어졌으나 유아 안전교육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영아 안전교육 역시 영아안전에 대

한 교사의 인식 또는 안전 의식에 관한 연구(이소정, 2009;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 홍혜선, 2002)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아교사와 함께 부모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김정남, 2015; 김진희, 2014)가 있었다.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태조사나 교사와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수정(2012)이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만 2세 학급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영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에 반응하고 변화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둔 과정 중심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실태 등과 같은 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아 안전교육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어 안전교육에 대한 영아반 교사의 역할을 지원해 주기는 미흡하다. 실질적인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지원을 위해서는 참여관찰이나 교사 면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직교육, 연수, 동료장학, 수업컨설팅 등이 있으며(박정빈, 김정희, 김은심, 2012),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실행연구를 들 수 있다. 실행연구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이며(Feldman, 1996),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교사가 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수업에 대해 반성적 태도로 임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Mills, 2003). 그러나 이러한 실행연구는 교사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협력적 실행연구가 실시되고 있다(구정숙, 2016; 김지혜, 2011; 이지연, 2017; 최수진, 2016; 최혜운,

2015). 협력적 실행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Mitchell, Reily, & Logue, 2009), 전문가 및 연구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교사를 지원하고 도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여 영아반 안전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지식, 교수방법 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써, 효율적인 영아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 나타난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 역할 지원 및 교사교육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영아 안전교육의 구체적 실천과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반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 1-1. 영아반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준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1-2. 영아반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은 어떠한가?

2.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어떠한가?
 - 2-1.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2.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안전지식,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 2-3.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교사의 변화는 어떠한가?
 - 2-4.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나타난 영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아 발달과 안전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 연령인 만 2세 영아에게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며, 영아의 발달 특성과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영아의 발달 특성

만 2세의 영아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환경 탐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동능력과 활동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걸음마기의 영아는 호기심이 왕성하여 새로운 시도나 모험을 즐기고, 신체 조절과 이동 능력, 시력이 발달하면서 활동 반경이 확대된다(구경선, 김태임, 서영희, 홍은숙, 2013). 영아의 발달을 신체와 운동, 언어·인지, 사회·정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발달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신체·운동 발달을 살펴보면, 걸음마기는 신생아기에 비해 신체의 성장이 다소 감소 하지만, 여전히 신체와 운동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몸무게는 일년에 약 1.6~1.9kg씩 증가하며, 신장은 일년에 약 5~8cm씩 증가하며 빠르게 신체적 성장이 진행된다(김미예 외, 2014). 영아기 초기에는 신체 중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렵지만, 만 2세에 이르러서는 피하지방의 비율이 감소되고, 점차 가슴둘레가 머리둘레나 복부둘레보다 커지면서 신체비율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구경선 외, 2013; 김미예 외, 2014). 이러한 만 2세의 체형 변화 및 신체 발달의 특성은 신체의 균형 감각을 증진시켜

보다 안정된 걸음 및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만 2세 영아기의 신체 성장에 따른 운동발달은 전체운동과 미세운동의 발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체운동은 신체의 균형, 움직임 등의 발달을 의미하며 영아기 동안 머리가누기, 뒤집기, 안기, 배밀이, 기기, 서기, 걷기 등의 순서로 발달한다(김숙이, 손수민, 고선옥, 신리행, 2014). 걸음마기의 영아는 한발씩 발걸음을 떼기를 시작하다가 서기, 걷기가 가능하게 되며, 보행에 균형감과 리듬감을 갖고 몸의 조정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만 2세는 걷기가 완성되는 시기로 안정된 걸음걸이를 하게 되고, 만 2세 말경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술이 섬세해진다(구경선 외, 2013). 그리하여 처음에는 난간을 잡고 걷다가 두 손으로 계단을 잡고 걷고 점차 눈과 발의 협응력이 좋아지면서 계단을 오르거나 발로 차고 뛰어 내리는 등 이동 동작과 신체 여러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협응능력이 발달하게 된다(전남련 외, 2014). 또한 손과 어깨와 팔꿈치를 조절하는 근육이 발달하여 물체를 잡고, 쌓거나, 집어넣거나, 돌리는 행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구슬 꿰기, 크레용으로 그림 그리기, 블록을 쌓고 끼우는 놀이가 가능해 지게 된다(이기숙 외, 2014). 걸음마기 영아는 운동 능력이 발달하여 신체 균형을 갖게 되고 몸의 조정 능력 역시 발달하여 이동 능력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곳으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권혜진, 김혜라, 전숙영, 정윤주, 채진영, 한유진, 2012).

둘째, 영아의 인지·언어 발달의 특성을 살펴보면, 2세경이 되면 뇌의 크기가 성인의 80%에 도달하고, 어휘력이 급격하게 향상되어 언어적 인지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권혜진 외, 2012). 영아는 인지 발달에 따라 놀이 형태와 양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출생에서 1세까지 단순히 장난감을 만지고 입에 넣는 놀이가 이루어졌다면, 걸음마기 영아는 조각을 끼우거나 맞춰보는 등 사물의 관계와 기능을 놀이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손의 협응력

이 발달되면서 자기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물체를 탐색하게 되며, 새로운 탐색활동과 목표지향적 행동을 하게 된다(김일옥 외, 2013). 즉,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과 연관된 놀이나 행동을 통해 단순히 반사 행동이나 무작위적 행동에서 벗어나 목표지향적인 놀이를 하게 된다(이기숙 외, 2014).

만 2세 영아의 언어발달을 살펴보면, 만 2세 초기경에는 핵심 두단어로 이루어진 전보 문장과 주축 문법을 사용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나 강아지 놀아’, ‘나 밥 먹어’ 와 같이 조동사나 조사가 생략 되고, 명사와 동사로 나열되고 전보식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엄마 쉬’, ‘엄마 물’, ‘엄마 놀이터’ 등 처럼 ‘엄마’와 같은 주축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주축문장이 나타난다(정남미, 2005). 만 2세 초기에는 약 300단어의 어휘를 알고 있으며, 만 2세 후반에는 2~4개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김미예, 2014; 정남미, 2005). 만 2세 후기에는 9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명사와 동사 외에 형용사와 전치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시제의 구별이 가능해져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알고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진다(이지현 외, 2009).

셋째,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는 신생아 때부터 흥분, 쾌감, 불쾌, 분노, 혐오, 공포의 여섯가지 일차 정서반응과 함께 인간 관계에 따른 신뢰를 중심한 사랑, 애정 등의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갖게 된다. Bridges(1932)에 의하면 영아는 걸음마기 끝날 무렵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서가 나타나게 된다(최옥채 외, 2002, 재인용).

걸음마기의 영아는 분화된 정서와 감정이 상당히 세분화되는 시기로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영아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영아의 행동을 격려하고 충분한 애정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시기이다(김숙이 외, 2014). 이에 따라 만 2세의 영아가 성취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에는 자기 조절의 습득, 자율성 발달, 독립심의 증가 등이 포함된다(김미예 외, 2014). Erikson은 자아(ego)의 발달을 강조하면서, 자율감 성취를 영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보았다. 이 시기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양상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혼자서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만 2세 영아는 자유롭게 신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하면서도 양육자에게 여전히 의존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영아에게는 영아가 독립심을 가지고 서서히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행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 또한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기, 다른 사람과 소유물을 공유하기, 대소변 가리기에 대한 훈련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제력을 조금씩 기를 수 있게 된다(김숙이 외, 2014).

2세경 영아는 사회·정서적으로 자아가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감정 표출이 강해지며 주변에 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권혜진 외, 2012). 또한, 양육자와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자제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방식을 배워나가게 된다(김숙이 외, 201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2012)에 따르면 만 2세 영아기는 환상과 공포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로 특정 물체나 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한 공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가 때로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영환 외, 2016). 이 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외형적인 것으로 실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표가 아니라 발달과정에서 공포에 대한 방어기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가 공격성으로 표현되었을 때, 자신이 의도한 바가 달성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강화가 반복된다면 습관, 행동으로 고착되어 다른 영아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도 있게 된다. 영아는 정서적 분화가 활발히 이루지는 시기이므로 놀이 중에도 화가 난 영

아는 상대방을 물거나 물건을 던져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채혜선 외, 2011).

만 2세의 발달적 특성을 종합하면, 만 2세의 영아는 신체와 운동능력, 언어 및 인지, 사회성과 정서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만 2세의 영아는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신체조절 및 운동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보행능력을 습득하고, 감각인식능력을 통해 대상을 지각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어휘력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관련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2)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영아는 발달 특성상 주변의 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 주변을 알아가려고 하는 충동이 매우 높은 반면, 아직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균형이나 운동 기능 발달이 미숙하다. 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011).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연령 및 발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안전사고가 인지 수준, 근육 발달, 행동 기술, 상황 등의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William & Lund, 1992).

만 2세의 영아는 눈과 손의 협응능력이 발달하면서 자기의 몸과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체를 탐색하는 등 생활이 주로 놀이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걷기가 가능해 지고 시야가 훨씬 확대되어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많아지게 된다(이영환 외, 2016). 이 시기 영아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고 호기심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윤선화, 정윤경, 2012).

영아들이 어린 연령부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

단생활에서 오는 여러가지 위험 요인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권혜진, 김혜라, 전숙영, 정윤주, 채진영, 한유진, 2012). 또한 영유아교육기관이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교사가 안전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했을 때 영아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Tessier, 2010). 이러한 안전사고는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며, 기질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영아들이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다(김옥심, 2007; 박미희, 2011;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 2014; 장소영, 2011; Schwebel, 2000).

영아의 안전을 저해하는 발달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정아란, 2011). Coppens(1996)은 영아의 안전에 대한 이해는 인지발달과 병행한다고 보고, 영아기는 미숙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로 보았다. 둘째, 영아는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시각에서만 주변을 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발달의 특성은 영아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이기숙 외, 2014; 이영환 외 2016; 정아란, 2011). 만 2세의 영아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여 무게, 부피, 길이, 면적, 거리 등과 같은 주요 개념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그 예로 차길에서도 길을 건널 때 자신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차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012). 셋째, 영아는 환상과 실재를 구별하기 어렵다.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상상의 세계나 만화영화 등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를 그대로 모방해도 자신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이영환, 2016). 넷째, 영아의 신체 조절능력이 충분치 않다. 영아기는 신체 발달 및 운동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지만, 그에 반해 아직 신체 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이기숙 외, 2014). 다섯째, 영아는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하다. 영아는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충동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걸음마기 영아는 목표지향적인 놀이를 즐기게 됨에 따라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려고 하고 사물의 다른 측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보이는데, 이러한 충동적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게 된다(김일옥, 이정은, 박현정, 2013).

2세의 영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질식사고, 추락·충동사고, 화상, 끼임이나 베임, 동식물 사고, 놀잇감과 관련된 사고 등이 있다. 발달 특성에 따른 행동과 주요 안전사고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세 영아의 주요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형	주요 안전사고 내용
질식사고	·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음식에 의한 질식 · 장롱, 냉장고 및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고 · 비닐, 끈, 풍선 등으로 인한 질식
추락사고	· 베란다, 창틀 등에서의 추락 · 계단에서의 추락
이물질 흡입	· 약품, 화약약품, 세제 등 흡입 · 연장통, 바느질통, 단추 등 흡입
화상	· 전기 콘센트에 의한 화상 · 전열기구에 의한 화상
놀이 사고	· 문틈, 자동문 등에 끼임 · 가위에 베임 · 바퀴 달린 장난감에 의한 사고
대인사고	· 물리거나 할퀴는 사고 · 학대 및 실종·유괴
교통사고	· 카세트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 길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 ·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출처: 권덕수 외(2015), 정재경 외(2015), 이영환 외(2016)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먼저, 질식사고는 작은 물건이나 이물질, 음식물 등이 기도를 막아서 생기는 사고를 말한다. 영아는 고구나 장난감 등을 입으로 가져가 탐색하려고 하는 특징으로 인해 작은 이물질 등을 흡입하여 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추락 및 충돌은 만 1세-2세까지의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미숙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보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셋째로, 화상은 전기나 전열기구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영아는 호기심은 많지만 사고를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정재경, 성소영, 2011) 전기 콘센트나 전열기구에 의한 화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넷째로, 놀이사고로 놀잇감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문이나 창틀에 끼이거나 가위 등 날카로운 사물에 베이는 것으로 실내외 시설 및 환경으로 인한 사고이다. 그 밖에 친구 간 물거나 할퀴는 대인 사고 등이 있다.

영아 발달에 따른 교사의 안전 의식에 관한 홍혜선(2002)의 연구에 따르면, 만 2세 이전의 영아는 실내·외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만 2세의 영아는 영아간의 과실에 의한 상해 사고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12개월 이전까지는 환경에 의한 사고가 많지만, 15개월 이후부터 움직임이 많아짐에 따라 영아의 과실에 의한 사고와 영아간 상해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영(2011)의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른 영아에게 의한 물기, 할퀴기 등의 상해 사고가 영아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 2세의 신체 발달 및 인지능력의 향상, 정서의 분화와 같은 발달 특성은 영아의 안전사고의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때로는 영아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 영아에게 주요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의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기가 전적으로 성인이 보호해야 하는 시기라면, 걸음마기는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직접적인 행동이나 체험을 통하여 가르치는 동시에 적절히 보호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이기숙 외, 2014). 즉, 만 2세는 안전에 있어서 성인에게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지도와 보호가 필요하다.

2. 영아 안전교육

본 절에서는 영아 안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영아 안전교육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인 만 2세 영아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1) 영아 안전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과 물리적 환경을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변화 시킴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Marland, 1973). 영아 안전교육은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부터 영아의 안전한 생활의 유지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화 외, 2011).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정아란, 2011). 또한, 영아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사고의 위험을 사전

에 방지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영아의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교육을 의미한다(전남련 외, 2014).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영아 발달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사회 변화에 따른 측면, 영아 안전사고의 특수성으로 인한 필요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영아의 발달 측면에서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영아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판단 능력, 위험한 상황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또한 영아는 발달 특성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아직 신체 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이기숙 외, 2014). 또한, 영아기는 활발히 정서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화가 난 영아는 놀이 중에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방을 물어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아울러 언어가 발달해 전달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이나 위험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영아기는 점차 독립적으로 행동을 익히고 수행하려고 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적절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채혜선 외, 2011). 또한 영아는 발달 개인차가 심하므로, 사고 경향이 높은 영아와 낮은 영아의 발달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책으로서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Dunbar, Wolfe, & Rioch, 1993).

둘째, 사회변화로 인한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으로 취원 연령의 하향화와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 증가, 영아 안전사고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김영실 외, 2011).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 증가와 취업모의 증가로 유아교육기관에 영유아가 머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으며,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정아란, 2011).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이 더욱 필요해 지게 되었다.

셋째, 영아기 안전사고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성으로, 영아기 안전사고는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하며, 사전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구경선, 김태임, 서영희, 홍은숙, 2013). 영유아기 안전사고는 영유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기도 하고, 치유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 및 비용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를 비롯해 그의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Borse, Gilchrist, Dellinger, Rudd, Ballesteros, & Sleet, 2009).

Heinrich(1980)에 의하면 1: 29: 300의 법칙, 즉 현성 재해와 불현성 재해, 잠재성 재해간의 관계로 잠재되어 있는 사고의 요인을 줄이면 사고와 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중 불완전한 요인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이기숙 외, 2002). 안전한 삶을 위하여 영유아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거나 성인의 보호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어적 자세와 안전문제 대처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권덕수 외, 2014). 또한, 영아의 안전한 행동에 양육자의 안전한 행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영아와 부모나 교사 같은 양육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Morrongiello, Midgett, & Shields, 2001).

영아기의 안전사고는 환경적 요인, 기계적 요인, 인적요인에 영향을 받는데(Pickle, 1989), 그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조남숙, 2013). 우연적인 요인이 특징인 사고

(accidents)와 달리 안전사고는 사람(person), 행위요인(agent), 상황(situation)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며, 예방 및 통제,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Roberts & Brooks, 1987). 그러나 이러한 예측 가능하고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영아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성인에 비해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구경선, 김태임, 서영희, 홍은숙, 2013). 이처럼 안전사고는 예방과 통제를 통해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사람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

영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세가지 요인으로 안전한 환경, 법적 조치와 제도, 그리고 안전교육을 들 수 있다(Tower & Ward, 1998). 안전한 삶을 위하여 영유아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거나 성인의 보호가 뒤따라야 하지만, 안전에 있어 성인들의 보호나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아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 방어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영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권덕수 외, 2014; Tessier, 2010). Hendricks와 Smith(1996)는 영유아기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보았으며, 특히,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시작하는 영아기는 안전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태도, 기능을 학습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전남련 외, 2011). 또한,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습관화해야 한다(Morrongiello, Midgett, & Shields, 2001). 안전교육은 사후 처리 보다는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므로 영아기 부터 형성된 안전교육에 대한 태도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전남련 외, 2011). 영아기에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체험학습 위주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안전능력이 향상되며(Pickle, 1989; Rosenbaum &

Drabman, 1991), 영아기부터 형성된 안전한 태도 및 행동은 성인이 되어서 까지 좋은 안전습관으로 평생 이어질 수 있다(Kendricks, Kaufmann, & Messenger, 1988).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안전한 태도 습득을 위해 영아 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구경선, 김태임, 서영희, 홍은숙, 2013).

2)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가 스스로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가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 그리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윤선아 외, 2010).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가 요구된다.

김영실, 윤진주, 김정주(2010)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안전지식, 안전태도, 안전기술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안전지식’은 안전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써 기본 안전규칙과 안전한 상황의 특징 및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말한다. 안전지식의 예로 실종 및 유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거나(권덕수 외, 2014), 안전규칙을 아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안전태도’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 통제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에 따른 운동능력을 습관화 하도록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안전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 지식이나 태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순한 지시나 감독 보다 영구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이기

숙 외, 2014). 마지막으로 ‘안전기술’에 대한 교육내용은 안전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안전한 상황에 대한 정보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있으며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에서 그 법적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2014년 9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8조 1항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은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기준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영역을 살펴보면 영아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이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7).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1항을 통해 안전교육의 영역 뿐 아니라 실시 주기,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범주

구분	실시 주기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이상)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출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2016. 9. 22. 개정)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단계별 안전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 10월에는 각 단계별 세부 안전교육활동안이 수록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안」을 추가로 발표하였다(학교안전정보센터, 2016). 유치원에서의 7대 안전교육 내용에는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직업안전,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응급처치가 포함된다. 그 세부 내용으로 재난안전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생활안전은 시설안전, 실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교통안전은 보행자 교육, 자전거 안전, 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 안전을 세부 내용으로

한다. 또한 폭력 및 신변안전영역은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언어 및 신체 폭력,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영역은 흡연, 음주, 의약품, 게임에 의한 중독 및 위험성, 직업안전영역은 실험·실습, 응급처치영역은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2014)는 영유아의 발달 및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의 내용을 정의하였는데, 안전한 가정환경, 안전한 유아교육기관, 안전한 놀이환경, 안전한 사회환경, 교통안전, 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 스포츠 안전,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 환경 및 공해에 대한 안전,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안전으로 구성하였다.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 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 교통안전, 스포츠 안전 영역 외에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따라 안전한 가정환경, 안전한 유아교육기관, 안전한 사회환경, 안전한 놀이환경, 환경 및 공해에 대한 안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아란(2011)은 영아의 안전교육 내용을 영아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시하였는데, 영아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영아 안전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영아 안전교육 내용영역을 화재안전, 놀이안전, 계단 안전, 물놀이안전, 교통안전, 성학대·미아안전, 전기안전으로 구분하고, 영아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과 연결하여 ‘화재안전’의 경우 화재 예방, 질식 예방 등이 안전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유아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인 Healthy Start는 영양, 안전, 건강을 포괄하여, 영양, 안전, 자아 존중감, 신체 부분, 가족관계, 치아건강과 위생, 환경교육, 약물교육, 폭력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영실 외, 2011).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계층별로 제시하고 있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교통 및 놀이안전을 비롯하여 시설·설비 및 위험한 장소,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 영역 구성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영유아 안전교육의 내용 영역

연구자	안전교육의 내용 영역	출처
보건 복지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 약물오용 · 남용 • 재난대비 • 성폭력 · 아동학대 예방 • 실종 · 유괴의 예방 ·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안전교육 영역 및 내용
교육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 • 생활안전 • 교통안전 • 폭력 및 신변안전 • 약물 ·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 직업안전 •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 유치원 단계 안전교육 내용
이기숙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유아교육기관 • 안전한 놀이환경 • 교통안전 • 안전한 가정환경 • 안전한 사회환경 •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 • 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 • 스포츠 안전 • 환경 및 공해에 대한 안전 •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안전교육」 중 : 일상생활에서의 유아를 위 한 안전교육 내용
정아란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화상, 질식, 사망) • 놀이안전(부딪힘, 골절, 이물질 삼입) • 계단안전(추락, 골절, 부딪힘) • 물놀이안전(낙상, 익사) • 교통안전(부딪힘, 골절, 상해, 사망) • 성학대 · 미아안전(성학대, 미아) • 전기안전(감전, 상해) • 약물안전(약물 오 · 남용) • 스포츠안전(부딪힘, 골절) • 생활안전(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건강 및 안전」 중 : 안전사고의 유형과 관련하 여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

Healthy start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 안전: 가정, 학교, 놀이터 • 자아존중감 • 신체 부분 • 가족관계 • 치아건강과 위생 • 환경교육 • 약물교육 • 폭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유아를 위한 포괄적 보건교육프로그램 <p>: Healthy start</p>
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안전 • 시설·설비안전 • 교통안전 • 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 •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 • 유괴·미아 사고 및 성폭력에 대한 안전 • 동물 및 곤충에 대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안전공단 •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계층별 안전관리 요인 제공 <p>: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별 내용</p>

영유아기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안전 영역을 종합하면, 교통안전, 성폭력 및 유괴실종, 아동학대와 같은 대인관계 안전, 놀이안전,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동식물에 대한 안전, 물놀이 안전, 스포츠 안전, 미디어 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 위험한 장소 및 상황에 대한 안전, 약품오남용에 관한 안전,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안전, 식품 안전, 화재 및 화상 사고 예방을 포함한 소방안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유아 안전교육의 영역과 그에 따른 관련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 영역 및 관련 개념

안전교육 내용 영역	개념
1. 교통안전 (보행자/승차)	영유아의 등·하원, 견학, 원내 활동 중 도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보행 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규칙 및 교통안전표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2. 놀이안전	이동식 놀이기구와의 충돌이나 놀잇감을 이용 중 놀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3. 놀이기구 및 구조물에 의한 사고	고정 놀이기구 및 구조물의 파손이나 결함, 협소 공간에 배치 및 놀이 공간 부족, 날카로운 모서리나 견고하지 않은 재질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4. 대인관계 안전	미아, 성폭력, 유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5. 동물·식물·곤충에 대한 안전	개, 위험한 식물, 벌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6. 미디어 안전	컴퓨터 및 게임 중독으로 발생하는 사고
7. 물놀이 안전	물놀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8. 스포츠 안전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용 시 안전장비의 미착용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9.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	시설 및 설비의 파손 및 고장 상태를 방치, 위험한 시설에 영유아 출입 및 영유아에게 위험한 설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10. 약물에 대한 안전	약물오남용 또는 위험한 의약품에 인해 발생하는 사고
11. 위험한 물건에 대한 안전	송곳, 칼, 가위, 젓가락, 포크, 못, 톱, 글루건 등의 사용이나 잘못된 보관으로 발생하는 사고
12. 위험한 물질에 대한 안전	유독물질, 이물질 흡입, 살충제, 그외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발생하는 사고
13.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	실내·외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14. 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
15. 음식물에 대한 안전	식중독, 상한 음식으로 발생하는 사고
16. 질병에 대한 안전	전염병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17. 소화 안전(화재/화상)	전기용품 사용 및 과열, 가스 폭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18. 환경 안전	환경오염(물오염, 토양오염), 자연재해, 인재, 공해,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출처: 김영실 외(2011), 이기숙 외(2014), 전남련 외(2014)을 토대로 재구성

한편, 교육과정에 따른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2세 영아의 보육활동은 2007년 발표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보육과정이 운영되며, 어린이집의 보육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된다. 영아 안전교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호 - 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의거하여 2013년 1월 21일에 표준보육과정에 고시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의 6가지 영역 중 안전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본생활’ 영역이며, 내용범주는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해당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연령별, 수준별 보육과정으로써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 안전교육과 관련된 목표는 0-1세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이며, 2세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로 제시되어 있다(보육사업안내, 2016).

0-1세의 표준보육과정의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대한 내용은 안전하게 지내기,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1수준에서 4수준으로 나누어 구성 되어 있다. 1수준에서 2수준은 위험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3, 4수준은 성인의 위험하다는 알림에 영아가 주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0-1세의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대한 내용 범주 및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영역 : 만 0-1세

내용범주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지내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			놀잇감을 안전하게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 승하차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	

2세의 표준보육과정은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경험한다’는 목표 아래 안전하게 지내기, 위험한 상황알기, 교통안전 알기로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1수준, 2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부 내용 및 내용 범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영역 : 만2세

내용범주	내용	1수준	2수준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기구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교통 안전알기	교통수단의 위험을 안다.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
	위험한 상황알기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안다.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위험한 상황시 어른의 지시에 따른다.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종합하면,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영아 안전교육 영역 및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영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범주와 수준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은 영아가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익히도록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영아 안전교육 평가

어린이집에서의 안전교육 평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안전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에 따른 평가이다.

먼저,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로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영유아의 행동 변화에 대한 평가 등이 안전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교사에 의해 실시된다(정아란, 2011). 안전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안전교육활동은 주로 별도의 교육활동으로 연간을 기준으로 각 안전 교과영역을 법령으로 정해진 시기와 횟수에 맞춰서 실시된다. 안전교육활동은 안전교육활동계획안으로 세부 활동을 계획하고, 안전교육일지 및 평가서를 통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윤선화 외, 2010). 그리고 일일보육계획안이나 관찰일지에 일화기록법을 통해 안전교육 활동 시 영아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응이나 개별 영아의 발달과 관련 된 사항을 기록하여 안전교육활동이나 영아의 발달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살펴보게 된다. 또한 안전교육활동 후 행동목록법(checklists)을 활용하여, 소방훈련평가표나 안전교육평가표 등으로 안전교육 후 교육의 효과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하게 된다(이영환 외, 2016).

둘째는,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이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과 지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의 질, 환경 뿐만 아니라 안전영역 전반에 걸친 평가를 받게 된다.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평가인증 및 모니터링의 안전영역 지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한국보육진흥원, 2014). 어

린이집의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평가 모두 안전에 대해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남숙, 2013).

평가인증에서의 안전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보육환경이다.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은 영유아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건강한 심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범위이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이집 전반에 걸쳐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영유아가 항상 성인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등원과 귀가할 때 영유아를 인계하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모든 부분이 관리 범위에 들어간다. 셋째, 평가의 초점 및 방법이다. 평가인증에서는 어린이집의 실내외 시설물의 안전관리, 영유아 보호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여부, 안전교육의 계획 및 실시여부 등을 점검과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한다(김경화 외, 2011). 이러한 평가인증의 안전 평가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영역 평가인증 지표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평가인증 3차지표 안전 영역

영역	지표
3영역 안전	3-1. 보육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된다.
	3-2. (보육실 외) 실내외 공간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된다.
	3-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3-4.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5.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3-6. 어린이집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인력이 있다.

3-7. 영유아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피훈련과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는다.

3-8. 보육교직원은 다친 영유아를 지침에 따라 처치하고,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평가 인증 지표 중 안전에 해당하는 ‘3영역 안전’은 8가지의 지표와 지표별 5~9개의 세부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평가 요소별 관찰 및 평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3영역의 “3-1. 보육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된다.”의 안전지표에 해당하는 세부 구성요소 및 관찰 및 평가 내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평가인증 안전영역 평가지표 3-1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관찰 및 평가 내용
3-1-1	보육실과 출입문과 창문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손끼임장치, 문턱, 창문 보호대 등
3-1-2	보육실의 천장, 바닥, 벽면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보육실 균열, 장판의 고르기 등
3-1-3	보육실의 전기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전기콘센트, 안전덮개 등
3-1-4	보육실 내 전선줄 등이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전선줄, 블라인드 줄 등
3-1-5	보육실의 고정식 시설 및 설비의 상태가 안전하며 위험요인이 없다.	벽면 시설물, 에어컨, 선풍기, 세면대 등

3-1-6	보육실의 이동식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하여 위험요인이 없다.	책상 의자 파손, 가전제품 파손, 바닥 등
3-1-7	보육실 내 세면대, 정수기 등에 온수조절 조치가 적절하여 위험 요인이 없다	온수의 양 조절, 온도조절, 잠금장치 등

지자체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내에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개편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학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자체 어린이집 모니터링에서 점검하는 안전영역의 지표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지자체 어린이집 모니터링 안전영역

지표	관찰 내용
4. 안전영역	실내외 시설, 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물리적 환경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 정수기, 수도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관리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해 안전시설·설비가 잘 관리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인적 환경	영유아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관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	관찰 내용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벨트 및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보육교직원이 차량운행 시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하고 있다.
아동 학대 예방 조치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가정에서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아 안전교육의 평가는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에 따른 안전 평가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에 의한 안전교육활동 평가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교육 활동 및 영아 반응에 대한 평가로 안전교육의 목표 달성 여부나 영아에 안전 행동에 대한 자체 평가이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에 따른 안전 평가는 평가인증 및 지자체 모니터링으로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안전영역 전반에 걸친 평가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부 평가이다.

3. 선행연구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절에서는 영아 안전교육과 함께 유아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영유아 안전교육 관련 연구가 최근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안전교육 교수방법, 안전교육 영역 및 유형, 안전교육 연구 대상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영유아 안전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영유아기 안전교육을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및 영아 안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 안전교육 연구 중 교수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에게 안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안전교육의 방법은 통합적 접근을 통한 안전교육(유선희, 2003), 토의를 통한 안전교육(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을 현장학습을 활용한 안전교육(서유미, 2008), 가정 연계를 통한 안전교육(강민재, 2008; 이미경, 2010), 상황극을 활용한 안전교육(고정완, 2016), 문학적 접근을 이용한 안전교육(박유영, 2004; 이경애, 2010) 등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안전교육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연구 목록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안전교육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교육방법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통합적 접근	유선희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활동을 통한 유치원 교통안전 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 6주간 교통안전 통합교육 실시 	만 5세 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25명

	유수정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만 2세 학급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12주간의 통합적 안전교육활동 실시 	만 2세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22명
토의 및 시범 중심	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교통안전 교육에서 토의 중심과 시범 중심 교수법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 및 실천에 미치는 효과 · 토의 중심 교수법과 시범 중심 교수법 비교 연구 	만 5세 토의집단 16명, 시범집단 16명
상황 역할극	김혜숙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 놀이 활동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 5주간 회기당 2일씩 총 5회의 안전과 관련한 극 놀이 활동을 실시. 인터넷안전의식의 변화를 측정 	만 5세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
	고정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역할극 중심의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 문제해결사고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 8주 동안 주 2회씩 총 16회, 생활주제와 연관된 상황역할극 안전교육을 제공 	만 2세 실험집단 23명, 통제집단 23명
현장학습	서유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을 통한 유아의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안전지식 및 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 4주, 총 12회,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교통안전교육, 현장학습, 사후활동으로 실시 	만 5세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8명
문학적 접근	박유영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를 통한 유아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4권의 동화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16가지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만 5세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
	이경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 8주 동안 주 2회씩 총 16회, 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을 진행 	만 5세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
가정연계	강민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연계된 교통안전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과 문제해결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정통신, 부모교육, 전화상담 실시 	만 5세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8명
	이미경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연계 교통안전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 5주 동안 주 2회씩 총 10회, 교통안전 그림책 읽기 후 가정연계 활동을 진행 	만 4세 실험집단 25명, 통제집단 25명, 비교집단 25명

먼저 통합적 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유선희(2003)는 통합적 활동을 통한 유치원 교통안전 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통합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 수준과 그 하위요인인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교통안전지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수정(2012)은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영아의 비안전행동을 줄임으로써 영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통합적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영아 비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영아 비안전행동을 관찰하였다.

상황극 및 극놀이를 통한 안전교육 방법으로 고정완(2016)은 만 5세 유아에게 생활주제와 관련된 상황역할극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상황역할극을 통한 안전교육으로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와 자기조절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숙(2013)의 극 놀이 활동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극 놀이 경험은 효과적이었으며, 극 놀이 활동의 횟수가 증가 할수록 유아들의 인터넷 안전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적 접근 방법으로 동화를 통한 유아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유영, 2004)와 이경애(2010)의 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유선미(2004)는 교통안전과 관련한 동화를 듣고, 이야기 꾸미기를 통한 교통안전교육 실시하여, 동화를 이용한 이야기 꾸미기가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 및 교통안전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으로 이미경(2010)은 가정과 연계한 교통안전 그림책읽기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연계를 통한 교통안

전 그림책읽기 활동이 교통안전지식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교통안전 그림책 활동을 한 후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가정연계활동이 교통안전 관련 지식을 증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 스스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학습을 통한 안전교육(서유미, 2008)이나 안전 문제 상황 별 시범 보이거나 토의 활동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들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방법과 관련한 영유아 안전교육 연구는 대부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집단의 영유아에게 교육방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영유아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연구로 진행되었다.

실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전교육의 방법은 이야기나누기를 통한 안전교육으로 나타났다(김해정, 2009; 심용옥, 2005; 유혜경, 2000). 장소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시청각 교육, 현장학습, 사진·그림 전시, 역할극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방법은 시청각교육과 이야기나누기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야기나누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영아 안전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야기나누기 방법 외에 현장학습, 역할극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교육 영역 및 유형에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 안전 관련 연구 유형은 교통안전, 대인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등 안전교육 전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전교육 영역별로 연구가 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괴예방 관련연구(최기은, 2004), 놀이안전에 관한 연구(이화영, 2008), 소방안전과 관련된

연구(방창훈, 정계영, 이용주, 2006; 오정옥, 2008) 등이 있었으며, 교통안전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 김현수, 2010; 박유영, 2004; 변정희, 2006; 선희숙, 2001; 유선희, 2003; 이미경, 2010). 영유아 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 목록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영유아 안전교육 영역에 대한 연구

안전교육	연구자	연구내용
교통안전	유선희(2003)	· 통합적 유아 교통안전교육 활동이 유아 교통안전 지식에 미치는 효과
	박유영(2004)	· 동화를 통한 유아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변정희(2006)	· 유아교육기관의 교통안전교육 실태와 요구도에 대한 연구
유괴예방	최기은(2004)	· 유괴예방을 위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
	박혜란(2009)	· 유아 유괴 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소방안전	방창훈, 정계영, 이용주(2006)	· 소방안전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오정옥(2008)	·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안전교육 실태
성폭력 예방	최민수, 공양남(2016)	·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활동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남기원, 주현정, 김남연(2016)	· 유아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실태 및 유아교사의 인식과 요구
생활안전	이화영(2008)	·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안전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안전	김향자, 허선자, 김혜선(2002)	· 멀티미디어에 대한 안전 교육의 교수, 학습방법 모색 : 주제 접근 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혜숙(2013)	·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재난대비	박은미(2012)	· 영상매체를 활용한 재난안전교육 효과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변정희, 2006)가 있었으며, 영유아를 위한 교통안전교육활동을 고안하여 실시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박유영, 2004; 서유미, 2008; 선희숙, 2001; 유선희, 2003)가 이루어졌다. 유아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동화를 이용한 문학적 접근(박유영, 2004), 이야기나누기(유선미, 2004), 통합적 접근(유선희, 2003), 현장학습(서유미, 2008)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영유아 교통안전교육 활동은 교통안전지식(선희숙, 2001; 유선희, 2003; 박유영, 2004; 유선미, 2004; 서유미, 2008) 및 교통안전에 대한 사고력(유선미, 2004), 문제해결력(서유미, 2008)의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유아교육기관의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교육 실태 및 유아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본 연구(남기원, 주현정, 김남원, 2016)가 있었으며, 최민수, 공양님(2016)은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활동을 통하여 만 5세 유아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대피훈련에 관한 주제가 함께 다루어졌으며,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방창훈, 정계영, 이용주, 2006) 및 유아교육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오정옥, 2008)가 있었다.

재난대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은미(2012)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제 경험하기 힘든 재해 및 재난 상황을 생활주제와 연관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보여주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 및 조망수용능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유아 안전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재난대비교육은 다른 안전교육에 비해 영유아가 알기에 개념이 어렵고, 교사도 스스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안전교육 영역이다(장소영, 2011; 주영미, 2015).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 피해가 발생하면서 최근 지진, 홍수, 가뭄 등에 대한 재난대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재난시 대피 매뉴얼이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이밖에도 유괴예방 관련연구(최기은, 2004), 놀이안전에 관한 연구(이화영, 2008), 미디어 및 영상기기 안전과 관련된 연구(김향자, 허선자, 김혜선, 2003)와 인터넷에 관한 안전교육 연구(김혜숙, 2013)가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 미디어 안전과 함께 미디어 중독 예방에 대한 연구(장석충, 박창희, 2016; 홍광표, 조준호, 2015)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안전교육의 영역별 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이명환(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영역별 연구가 교통안전교육, 화재안전교육, 대인관계 안전교육, 놀잇감 안전, 미디어 안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정(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안전교육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놀이 시의 안전으로 나타났으며, 주영미(2015)의 연구에서도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 영역은 소방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안전교육 영역의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가장 자주 실시되는 영역은 소방안전교육(소방훈련)이며, 교사들이 영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 생활안전을 지적했다. 장소영(2011)의 연구에서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유괴 및 실종 예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 대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교사들이 실제로 영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안전교육은 생활안전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는 발달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현대에 이르러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이기숙 외, 2014),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높아져 생활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교육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안전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안전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이명환, 2009).

셋째, 영유아기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 대상에 따라 선행연구를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기 안전은 성인의 보호 및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영유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구로 원장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홍혜경(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발달에 따른 교사의 안전 의식에 관한 연구 Abbott-Shim & Sibley(1987)의 보육프로그램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기초로 시설 안전 및 안전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비교 연구 	영아반 보육교사, 원장(시설장)
유혜경(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둬. 교사의 특성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유치원 교사
심용옥(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교육 실태, 방법 및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안전교육 방법 및 실태에 관한 설문연구 	영유아반 보육교사

문숙희(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조사 연구 · 유치원 교사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둬. 	교사
박주연(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 유치원 교사와 관리자, 원장의 안전관리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 모색 	유치원 교사, 관리자, 원장
김혜정(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 	보육교사
정재경(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영아 안전에 관한 인식과 실천 및 지식 · 경력, 평가인증 경험, 안전교육 연수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인식에 차이가 나타남. 	영아반 보육교사
주영미(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교사의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조사 · 영아반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영아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둬. ·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연구 	영아반 보육교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영유아 안전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나 원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태나 인식에 대한 질문지를 통해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아 안전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김혜정, 2009; 문숙희, 2006; 박주연, 2009; 심용옥, 2005; 유혜경, 2000)와 함께 영아 안전교육의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본 연구(심용옥, 2005;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교사와 함께 영유아

의 주 양육자인 부모가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 관련 연구로는 부모의 안전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관한 연구(권경숙, 김진희, 2014; 김해정, 2009; 박지영, 2010; 유미숙, 2002; 정재경, 2010)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연구는 교사와 함께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권경숙, 박지영, 2010; 김옥심, 2007; 김인주, 2006; 김진희, 2014; 김해정, 2009; 김희선, 2006; 박주연, 2009; 심용옥, 2005; 유미숙, 2000; 윤선화, 정윤경, 2012; 홍혜선, 2002).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 관련 연구목록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유미숙(2000)	·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유치원 학부모 300명
김인주(2006)	· 유아기 자녀안전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실천 및 부모교육 요구도	만 3-5세 부모 276명
김희선(2006)	· 영아안전 및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과 실천	0-3세 부모 269명
김옥심(2007)	· 가정보육시설 영아돌연사 사고와 보육시설 책임한계에 대한 시설장 및 부모 인식 실태	시설장 500명 부모 200명
이미경(2010)	· 가정연계 교통안전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 교통안전 그림책 읽기 후 가정에서 상호작용	만 4세 유아 75명, 부모 75명 (실험/비교/통제)
윤선화, 정윤경(2012)	·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 안전교육의 효과	영유아 어머니 963명
김진희(2014)	·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한 환경 및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만0-2세 학부모 206명

김희선(2006)은 부모가 가정 내에 안전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 정도를 향상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영아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가정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영유아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에 대해 유미숙(2002)은 유아 안전교육은 유치원과 부모간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김인주(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의 91.8%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부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안전지식 및 실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과 연계된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의식 및 안전지식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재, 2008; 이미경, 2010).

유미숙(2002)은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안전 관련 문제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유치원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유치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가정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평가인증국에서도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안전 관련 부모교육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으로 영유아 감염병, 아동학대, 안전교육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보육진흥원, 2015).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정 연계 교육을 영아 안전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영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보육시설에서 영아의 안전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김옥심, 2007; 김진희, 2014; 김희선, 2006; 유미숙, 2000), 유아 안전교육을 위해 교사나 부모를 대상으로 실태나 인식 연구(권경숙, 박지영, 2010; 김해정, 2009; 박주연, 2009; 심용옥, 2005; 유미숙, 2002;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

홍혜선, 2002)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지원이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영유아 안전교육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나 인식에 관한 조사가 많았으며, 이 중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권경숙, 박지영, 2010; 김해정, 2009; 박주연, 2009; 배지희, 권경숙, 이사임, 이미선, 2015; 심용옥, 2005; 유미숙, 2002;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 홍혜선, 2002)가 대부분이었다. 이명환(2009)의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동향연구에서도 안전교육의 주제로 안전교육 과정과 실태에 대한 연구가 80%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안전교육 관련 주제에 비해 상당히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김은희, 유준호(2013)의 분석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안전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안전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유아 안전교육 관련 연구 주제의 편중에 따라 영유아 안전교육에서 연구대상도 실태나 인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사나 원장, 부모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영아 안전교육이 영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안전교육 유무에 대한 평가가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영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이 계획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전체 응답의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전교육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미비이다. 김해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안전교육에 대해 설문한 참여한 보육교사 대부분이 안전교육 교사 연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유아의 안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정재경(2010)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교육 참여 경험이 5회 이상인 영아반 교사가 안전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영아반 교사 보다 안전교육의 실천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인증의 경험이 있는 영아반 교사가 안전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사의 안전에 대한 평가 경험과 안전교육 경험은 교사의 안전교육 실천에 중요한 요소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문정화(2002)는 유아교사양성기관 예비교사의 유아 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를 돕기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로, 영아 안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주영미(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안전과 관련한 교사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안전관련 자료가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안전관련 교사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그 자체를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을 통해 영아에 대한 안전교육 지도에 대한 두려움을 개선하더라도, 교사들은 영아 안전교육 자료의 부족으로 실제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이집 공제회(2012)에서도 영아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현장적용에 있어서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김해정(2009)도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연령별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부족,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사 교육의 부재, 영아의 발달에 따른 안전교육의 어려움 등은 영아반 교사로 하여금 영아 안전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협력적 실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여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협력적 실행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행연구는 학생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교사가 일상수업에 대해 반성적 태도로 임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연구를 말한다(Mills, 2003). 즉, 실행연구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연구라 할 수 있다(Feldman, 1996).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 안전교육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가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실행연구는 초점을 ‘실행’(action)과 ‘연구’(research)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개념 및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Feldman & Minstrell, 2000). 실행에 초점을 둔다면 교실에서 교수의 실재를 수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교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교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식을 연구자가 제안할 수 있다(Feldman & Minstrell, 2000). 연구와 실행의 개념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연구와 실행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게 된다(Feldman, 1996). 즉, 연구자의 결론에 대한 보고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 결과에 기초한 실행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협력적 역할이 강조된다(유기웅, 2012).

본 연구는 영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력적 실행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연구 방법 중 협력적 실행연구를 채택하였다. 협력적 실행연구(collaborative action research)는 연구자와 교육현장의 교사가 한 팀이 되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탐구, 반성, 성찰함으로써 교수 역량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현장이론과 지식을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한다(Ramond & Leinenbach, 2000). 협력적 실행연구는 교육의 실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연구의 기본 단계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하는 실행연구의 한 방법이다(김지혜, 2011). 이러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접근해야 한다(Hilson, 2006).

협력적 실행연구에서는 교사가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연구자가 이론적으로만 지니고 있던 한계들을 교사와 연구자의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보완해 가면서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김정숙, 2012). 협력적 실행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현장에서의 문제나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실행의 과정과 문제 해결의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 및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갖거나, 교수 효능감과 전문성 등 구체적인 교사 역량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정숙, 2016; 김지혜, 2011; 박세진, 2012; 이지연, 2017; 최수진, 2016; Banegas, Pavese, Velazquez, & Velez, 2013; Kuntz, Presnall, Tilford, & Ward, 2013).

협력적 실행연구로 이루어진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교사가 협력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협력적 실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고문순, 2010; 김현령, 임부연, 2016; 임혜준, 2015; 송용준, 2016), 최근에는 영유아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적 실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구정숙, 2016; 김지혜, 2011; 박세진, 2012; 이지연, 2017; 최수진, 2016; 최혜윤, 2015).

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10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시설의 법인 위탁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교육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 부설 어린이집에서 동 대학교 내 아동연구소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설되는 종교법인 어린이집에 주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평가인증과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평가 지침과 관련 서류를 숙지하게 되었으며, 그 후 10년간 유아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재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평가인증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어

린이집 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에서 보육전문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건강과 안전영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아동안전관리와 유아건강교육 등을 담당하고, 소속 대학의 어린이에듀케어센터의 연구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센터내의 연구교수로 활동하면서 소속 대학의 부설기관인 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교사 장학,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고 상담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때 현재 대학에서 안전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어린이집 평가단으로 활동했던 경험으로 인해 교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어려움을 본 연구자에게 상의할 때가 많았고, 그 내용은 평가지표나 영유아 안전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한 부족으로 안전교육에 어려움 겪고 있었다. 특히,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어린이집에 취업한 교사들은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영아 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영아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다년간의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하고, 안전교육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영아반의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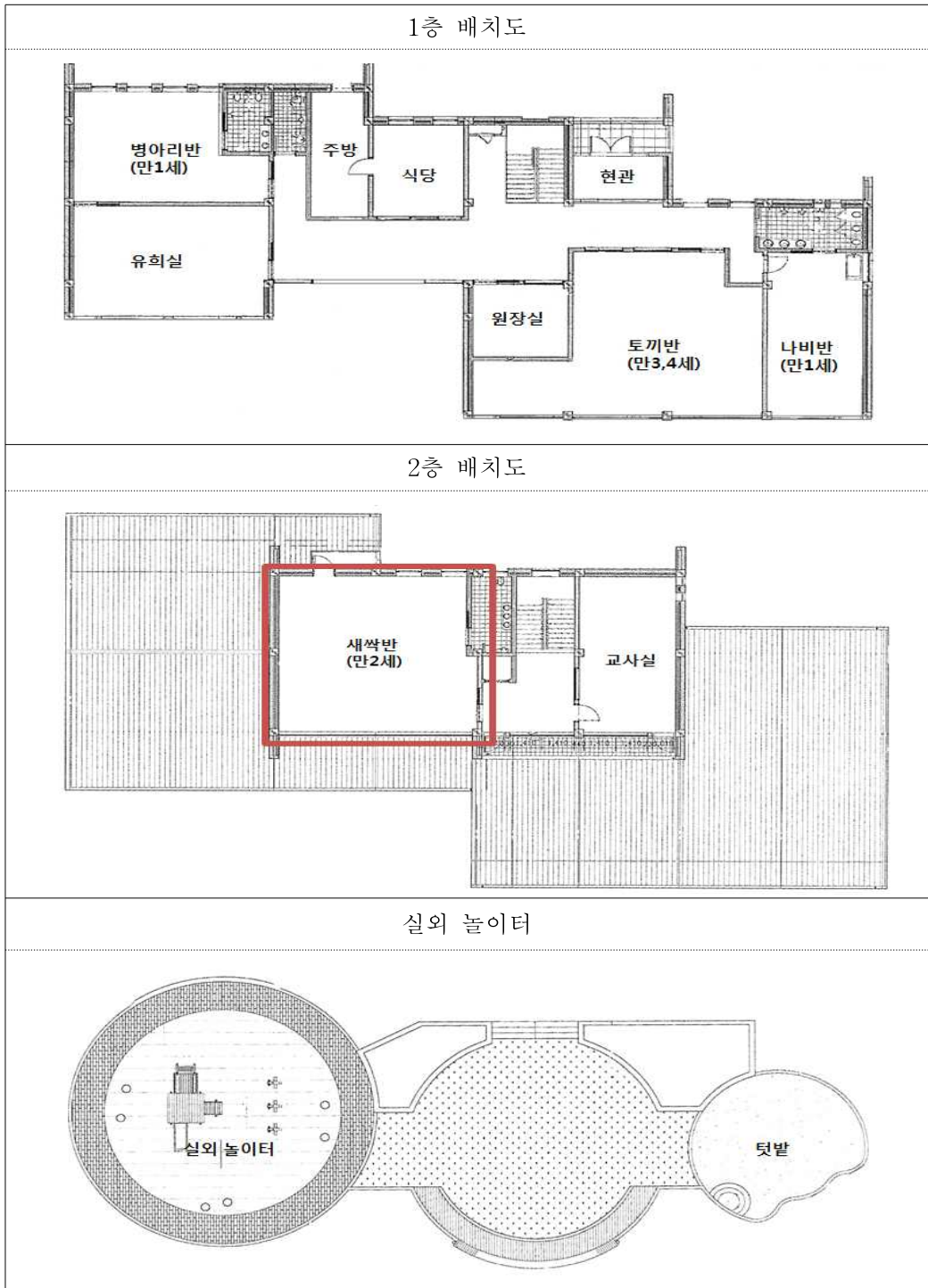
족하기 때문에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영아들과 실제 교육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교사들과 함께 영아 안전교육에 대해 연구해 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에게 아동건강 및 영유아 안전관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보육시설 안전을 평가하는 평가자로서 역량을 키우고자 하였다.

3. 연구대상

1) 연구현장

본 연구에서는 K시의 H어린이집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H어린이집은 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구성된 환경, 전문성을 갖춘 교사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내 직원의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이다. 2007년에 개원하였으며, 2009년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2012년과 2015년에 평가 재인증을 받았다. H어린이집에서는 0-2세의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3-5세 유아는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주제중심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H어린이집은 대지면적 1,066㎡에 건축규모는 717.3㎡로 총 보육정원은 80명이다. 만 1세반에서 만 4세반까지의 연령을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원장과 교사를 비롯해 보육교직원인 11명이며, 영양사, 조리사, 기타 종사자까지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교실 4개와 유희실, 급식실, 도서관, 교무실, 원장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아반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H어린이집의 배치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H어린이집 배치도

본 연구에서 H어린이집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H어린이집의 영아 안전교육의 운영방식이 협력적 실행연구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하여 안전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기관별로 안전교육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안전교육의 대상을 유아반부터 영아반까지 전체의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유아반과 영아반으로 나누어서 대집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반별·연령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이 중 H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만 2세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실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 할 때 대집단활동으로 반 전체가 함께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발달에 맞춰서 원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원에서 연간 안전교육을 세워서 안전교육을 영역별 횟수에 맞춰 실시하고 있어요. (중략) 각 반에서 해당 연령에 맞게 교사들이 수준에 맞게 교육하고, 영아반 같은 경우 소집단으로 안전교육이 있는 날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원장, 2016. 7. 18>

영아는 유아와 달라서 대집단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평가인증에서도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반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면...몇 명은 일어나서 장난감 만지러 가고, 또 몇 몇은 다른 질문을 해서 활동을 진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집단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전교육일지도 담당이 있지만, 활동내용은 각 반별로 일지에 작성하고요,

<교사, 2016. 10. 28>

둘째, 원장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H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사교육에 관심이 많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 할 때 적절한 연구 현장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모르던 것을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한 다음에 이론을 배우니까 느껴지는게 다른 것 같아요, (중략) 연구 할 때 연구 장소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와서 교사들 수업장학을 할 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도 했지만, 수업역량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도 교사들도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 2016. 10. 28>

원장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아 안전교육의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을 연구해 봄으로써 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를 무조건적으로 참여시키기는 어려우며, 연구대상 선정은 교사의 참여 의사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원장의 연구 승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교사가 현장 개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 특히 교사와 연구자간에 연구에 대한 공동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협력적 실행연구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의사가 없으면 연구 진행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H어린이집을 연구현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안전담당 교사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할지 교사별로 활동을 나누어 주고, 안전교육은 계획안에 따라서 실시한 후에 평가만 하면 되었어요. (영아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하게 되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A교사, 2016. 9. 6>

A교사는 영아반을 담당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역량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H어린이집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고, 연구 참여교사와 협의하여 연구일정 및 관찰방법 및 시간을 조율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만 2세반인 새싹반의 담임 교사 2명과 새싹반 영아 1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학급명과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1) 연구 참여 교사

협력적 실행연구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교사는 A교사와 B교사로 연구 참여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4> 연구 참여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2017년 3월 기준)

이름	담당연령	보육경력	연령	학력	직급	자격
A교사	만 2세	5년	만 26세	3년제졸 (심화과정)	교사	보육교사1급
B교사	만 2세	2년	만 23세	3년제졸 (심화과정)	교사	보육교사2급

① A교사 (여, 새싹반 담임)

A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년 야간심화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H어린이집에서 교사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였지만, 현장에서 만 1, 2세반의 영아반에서 담임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영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아반의 담임을 하면서 영아를 위한 교육활동,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고 있지만, 한편으로 영아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교사로서의 첫 근무를 만 2세반에서 하게 되었는데, 만 2세는 걸음마 시기로 가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여서 초임교사 시절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에도 안전한 환경구성과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② B교사 (여, 새싹반 담임)

B교사는 3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년 야간심화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H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B교사는 교사 업무분장에서 어린이집 전체의 안전영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활동과 관련된 계획안 및 평가표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연구 참여 영아

연구에 참여하는 새싹반 영아 14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5> 연구 참여 영아의 일반적인 특성 (2017년 3월 기준)

이름	성별	개월	형제	재원
김문수	남	31개월	1남1녀	재원
이서현	여	37개월	2녀 중 둘째	재원
노다희	여	36개월	2녀 중 둘째	재원
서석현	남	35개월	1남 1녀	재원
이규리	여	30개월	외동	재원
유수진	여	37개월	3녀 중 둘째	재원
김지혜	여	38개월	4녀 중 넷째	재원
최민수	남	37개월	1남 1녀	재원
조문혁	남	37개월	외동	신입
김지호	남	38개월	3남 중 셋째	신입
김재희	남	29개월	외동	신입
고슬기	여	37개월	외동	신입
황지안	남	31개월	외동	신입
방여경	여	29개월	2녀 중 둘째	신입

① 김문수 (남, 31개월)

낮잠시간에 누우면 거의 바로 잠이 들며, 잠이 많아 다른 영아들 보다 10분 ~ 20분 정도 더 재우고 있다. 세 살 터울의 누나가 있으며, 초기에는 엄마를 많이 찾고 불안해하며, 모든 일과를 엄마와 하기를 원했지만 현재는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자동차와 그림책을 좋아하며, 항상 가방에 자동차 또는 그림책을 넣어 들고 다닌다. 일과 시간에도 자동차와 그림책을 많이 가지고 놀며, 교사와 책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 책 읽어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라고 하며 교사와 함께 놀이하기를 원한다. 안전교육 활동 시 그림자료에 관심이 많으며, 그림책처럼 계속 보기를 원한다. 또래 영아들과 놀이 시 모방 놀이를 주로 한다.

② 이서현 (여, 37개월)

세 살 터울의 언니가 있어서인지 또래에 비해 의젓하고 교실의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한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또래 친구를 발견하면 도와주려고 한다.(옷 입혀주기, 놀잇감 양보하기 등) 또한, 자립심이 강하여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해 보려고 시도 한다(옷 입기, 양말신기, 신발신기, 양치질하기 등), 또래 유아들과 놀이하기 보다는 교사와 놀이하기를 즐겨하며, 안전교육 시 교사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한다. 또래에 비해 소근육 발달이 잘 형성되어 있어 가위질에 능숙한 모습을 보인다.

③ 노다희 (여, 36개월)

언어능력, 인지능력이 뛰어나 한 번 들은 노래를 잊지 않고 흥얼거리며 부른다. 또래에 비해 의젓하고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한다.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또래 친구를 발견하면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준다. (“선생님! 00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정리 시간이야, 정리해야 돼.”, “뛰면 넘어져, 뛰면 안

돼” 등) 안전교육활동 시 “우와! 선생님 뭐 들고 왔어요?”라고 물으며 안전 교육 활동 자료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 자료를 보며 “불이에요? 불”, “이건 아빠!” 등 그림에 그려진 사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한다. 첫 소방대피훈련 시 사이렌 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울었으나 현재는 비상대피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능숙하게 코와 입을 막고 교사를 따라 대피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가 “불이야”라고 말하며 나가자고 하면 교사의 말에 수긍하며 “불이야!”하고 외치며 대피한다.

④ 서석현 (남, 35개월)

세 살 터울의 누나가 있어서인지 또래에 비해 의젓하고 교실의 규칙을 잘 따르려고 한다. 과일, 색, 수세기 등에 관심이 많으며(멜론, 파인애플, 초록색, 빨간색, 1~10까지 세기 등), 어휘력이 풍부하여 “바깥에 바람이 썩썩 부네?”, “불이나면 밖으로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다쳐서 병원가야 돼” 등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곤 한다. 안전교육 활동 시 그림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할수 있다. 잘 모르는 그림을 보면 “어? 뭐지? 잘 모르겠네? 이건 뭐예요?”라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

⑤ 이규리 (여, 30개월)

호기심이 많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 낸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건 00이에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등으로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동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 정적인 활동에 더 흥미를 느끼며, 또래 유아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단독 놀이를 즐겨한다. 낯가림이 없으며 모든 교사들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잘 다가간다.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해 있으면 교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

고 못들은 척 활동을 계속 한다.

⑥ 유수진 (여, 37개월)

남아보다는 여아들과 역할놀이와 미술놀이를 주로 하는 편이다. 식사 시 혼자서 수저 사용을 하여 밥을 먹지만 편식을 하는 편이며, 교사가 먹여주며 먹을 수 있다. 안전교육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땀 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자유놀이 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교사와의 활동을 할 때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참여한다. 안전 교육 시 교사의 물음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있다.

⑦ 김지혜 (여, 38개월)

역할영역에서 주로 음식을 만들어 놀이하거나 미술영역에서 가위 사용, 그림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 활동을 좋아하며 신체를 움직여서 하는 활동보다 앉아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교사가 질문은 하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곤 하나 요즘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다. 안전교육 활동 시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선생님! ○○이는 왜 아파요?”, “왜 다쳤어요?”라고 명확하게 질문을 한다.

⑧ 최민수 (남, 37개월)

손 씻기, 스스로 밥 먹기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를 하는 편이며, 안전교육시 제공되는 안전교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 탐색하고 놀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놀이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하나 또래와의 놀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래의 놀잇감을

뺏거나 던지는 등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또래 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교사와의 안전교육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 “아니”, “안돼” 등 단답식으로 의사를 표현을 한다. 위험한 상황시 대처방법에 대해 인지 하고는 있으나 말로 표현하는 것은 힘들어 하며,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활동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⑨ 조문혁 (남, 37개월)

쌓기 영역에서 레고블록으로 동물 집을 만들기, 탑 쌓기 등을 즐겨서 놀이 하며, 역할영역 소품을 직접 입어보고 소꿉놀이 도구를 이용한 역할 놀이를 즐겨한다. 교사를 도와 자신의 놀잇감과 친구들의 놀잇감을 함께 정리하고, 간식도우미등 교사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안전교육 활동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래를 안전교육활동에 함께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안전교육시 “안돼요? 이거 왜이래요? 하면 안돼요?” 등 이라 표현을 하며 안전규칙이나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인다.

⑩ 김지호 (남, 38개월)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며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한번 울면 쉽게 그치지 않지만 거의 울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교사와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교사와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이거 뭐예요?” 등 호기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안전교육 교구에 관심을 보이지만, 정리하는 걸 어려워한다. 혼자서 밥은 잘 먹지만 혼자서 양말 신기 등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 음악에 관심을 보이며 음악을 듣고 몸을 흔드는 등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실외

놀이시 미끄럼틀을 탈 때에 거꾸로 누워서 타는 것을 좋아한다. 비안전행동에 대한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⑪ 김재희 (남, 29개월)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하는 편이며 자동차, 동물 모형을 좋아하는 편이다. 자동차를 보며 “빠빵이 애용애용 저기 간다 나 자동차 좋아 빠빵” 이라고 말하며, 동물을 하나씩 꺼내어 “어흥, 멍멍, 야옹, 호랑이, 사자” 등 표현을 하는 등 놀이를 하면서 계속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또래보다 교사와의 놀이를 즐겨서 하는 편이며 교사와 놀이하는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교사가 준비해온 활동에 참여하며 “이거 좋아 이거 할래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한다.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⑫ 고슬기 (여, 37개월)

다양한 영역에 놀이를 하며, 또래와의 놀이를 즐기지만, 또래와의 놀이에서 문제가 발생 했을 시에 또래를 밀고 때리는 경우가 종종 보이며 양보하기를 힘들어 하는 편이다. 또래와의 놀이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놀이 중 교사에서 “같이해요” 라고 표현을 잘하며, 또래에게도 “나는 고슬기야 너는 누구야?”, “같이 놀자. 이거하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함께 놀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활동 시 주위가 산만하며 주위집중 시간이 조금 짧은 편이다.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안전교육에 참여를 하나 금방 싫증을 느끼고 다른 놀이를 찾아 하는 편이다.

⑬ 황지안 (남, 31개월)

신체놀이를 즐겨서 하는 편이며 자동차 놀이와 유희실에서 뛰어놀기, 큰

공을 이용한 놀이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내꺼야 하지마 만지지마 지안이 꺼야” 등 친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겁도 많고 두려움이 많아 새로운 것에 거부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사가 함께 참여를 해주고 천천히 기다려주면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다. 소방대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교실에서 뛰거나 친구들과 난간에 오르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기도 한다.

⑭ 방여경 (여, 29개월)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활발히 관찰하고 놀이하며 혼자놀이보다 또래와의 놀이를 즐겨서 하는 편이다. 남아보다는 여아들과 놀이를 하며 공주놀이 음식놀이 역할극해서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우는 친구가 있으며 “울지마” 하며 눈물을 닦아주며 달래주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 계단을 무서워하며 또래보다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손잡이보다는 교사의 손을 잡고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 교사가 놀이를 제시하면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교육시 관심을 보여 세심히 관찰하고 보고 들으려는 자세를 보인다. 말이 조금 서툴러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제스처를 통해 “안돼요. 싫어요.” 등 표현하고 간단한 단어는 표현할 수 있으나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3) 하루일과

만 2세 새싹반의 하루일과표는 다음 표 16과 같으며, 새싹반의 전경 및 교실 배치도는 그림 2와 같다.

<표 16> 만 2세 하루일과표

시간	주요일과	주요 활동내용
7:00~8:30	등원 및 통합보육	· 선생님과 인사나누기 · 가방과 개인물품 바르게 정리하기 · 놀이감 탐색 등 개별 활동
8:30~9:10	개인물품 정리 및 실내 자유놀이	· 실내 자유놀이하기
9:10~9:40	전이 및 오전간식	· 손 씻기 / 간식 먹기
9:40~10:10	실내자유놀이	· 실내 자유놀이하기 ※안전교육활동
10:10~11:20	실외놀이 / 산책	· 물·모래 활동 · 탐색 활동: 개미 살펴보기 · 대근육 · 음률활동
11:20~12:20	전이 및 점심	· 화장실 다녀오기 · 손 씻기 / 이 닦기 / 음식 골고루 먹기
12:20~13:10	실내 자유놀이	· 유희실 자유놀이
13:10~15:10	전이 및 낮잠	· 화장실 다녀오기 · 동화 듣기 · 조용한 음악 들으며 낮잠 자기 · 매트 정리 / 옷 정리
15:10~15:40	전이 및 간식	· 화장실 다녀오기 / 손 씻기 / 간식 먹기
15:40~17:20	오후실내자유놀이	· 실내 자유놀이하기
17:20~17:30	하루일과 회상하기 및 귀가 준비	· 하루일과를 회상하고 개인 물품 챙기기 · 깨끗한 옷차림으로 귀가하기
17:30~19:00	통합보육 및 귀가	· 통합보육프로그램

하루 일과 중 안전교육활동은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주 1~2회 이루어졌으며, 안전교육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를 위주로 하여 소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집의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맞춰 횟수와 시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안전교육활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매회 4~6분 정도 진행되었다.



[그림 2] 만 2세반 전경 및 교실 배치도

4.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2016년 7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K시에 위치하고 있는 보육시설 5곳을 선정하여, 원장 및 영아반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참여관찰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 운영 실태와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

먼저, 예비연구를 통해 파악한 영아 안전교육의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안전교육의 형식 및 내용에는 어린이집 간 차이가 있었으나, 아동복지법과 평가기준에 맞춰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모두 영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영아반을 포함한 모든 연령이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연령의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반부터 영아반까지 대집단으로 전체가 모여서 안전교육을 하는 시설, 유아반과 영아반으로 나누어서 대집단으로 실시하는 시설, 반별·연령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교실내에서 대집단으로 실시하는 시설, 연령별로 나누어 교실내에서 소그룹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시설이 있었다.

둘째, 예비연구를 통해 관찰한 어린이집은 기관마다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내용을 계획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유아와 영아로 나누어 안전교육 내용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안전교육활동 내용은 안전교육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제에 따라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1년 동안의 연간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구입하여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었으며,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은 평가기준에 맞추어 모든 안전교육 영역(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실종·유괴의 예방·방지)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셋째, 예비연구를 실시한 모든 기관에서 영아 안전교육을 연간 단위의 별도 교육활동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안전교육일지, 훈련일지, 일일보육계획안 등을 통해 실행의 과정과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이러한 영아 안전교육의 교육 계획 및 실행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평가지표에 기준을

두고 있었으며,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보관도 평가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비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해 어떠한 연구기관을 선정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예비연구에서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드러난 영아 안전교육의 어려움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안전교육의 평가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 예비연구에 참여한 모든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및 지자체 모니터링에 대비하여 안전 및 안전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인증 지침 및 모니터링 점검 내역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평가인증과 지자체 모니터링, 지자체 점검에서 보는 안전영역의 평가기준이 달라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평가인증을 재재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매년 지표가 바뀌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랑 평가인증이랑 똑같은 안전영역도 보는 지표가 다른 것 같아요, 지표가 통일되면 점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A원장, 2016. 8. 2>

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지자체점검 등 어린이집 감사가 너무 많아요, 안전영역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어린이집 감사 말고도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 가스안전점검, 어린이집공제회 안전점검까지 있고 요즘은 공기 질까지 검사를 해서 그 안전 기준을 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C원장, 2016. 8. 9>

둘째,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아반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법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고 감사 때도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검사하니까 신경 써서 자료를 철저히 철해 놓고 있어요(안전교육 자료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관),

<E교사, 2016. 8. 2>

유아부터 영아까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으로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감사도 받고 있어요, 교사들이 매주 준비해야 하니까 원에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함께 쓰고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구입해 주고 싶은데, 안전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C원장, 2016. 8. 16>

안전교육 자료가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유아반도 그렇겠지만 영아는 실물자료나 실제로 만져 볼 수 입체자료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안전교육자료는 거의 그림카드라 영아들이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H교사, 2016. 9. 1>

셋째, 안전교육영역 및 활동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표준보육과정 및 평가인증지침에서 제시하는 영아의 보육 활동 수준을 벗어나는 개념이 많아서 안전교육의 목표 및 내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전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교육자료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는 따로 있지 않아서 유아반 자료를 수준을 낮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E교사, 2016. 8. 2>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는 따라 없어요, 안전교육은 주로 ○○반(유아반)을 위주로 하니까 만 3-5세 누리과정에 따른 안전교육활동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중략) 영아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G교사, 2016, 8, 16>

표준보육과정과 평가인증에서는 영아에게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아의 흥미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수준에 맞춰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중략) 안전교육은 대집단 활동으로 진행되고 영아 수준별 활동이 영아반에서 진행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H교사, 2016, 9, 1>

넷째, 원내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원외 교육을 통해 매년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교사들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사연수로 1년에 한번씩 안전교육에 관한 연수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회문제로 아동학대 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해요, 구청이나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안전교육에 꼭 참석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연수를 받거나, 강사를 초청해 학부모님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해 배우기도 해요,

<D원장, 2016, 9, 1>

안전에 관한 연수를 듣지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이론 위주의 강의였어요, 실습을 할 수 있었던 연수도 있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등을 들어 봤는데, 안전교육과는 조금 별개였던 것 같아요,

<F교사, 2016, 8, 9>

영아반 교사들의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요구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교사에게 지원해야 할 안전교

육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연령을 선정하였다. 영아반의 경우 새학기에 재원생 보다는 신입원아가 많아 새학기 신입원아 적응기간이 매우 길다. 신입원아 적응기간은 원마다 3-4주 정도를 설정해 놓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신입원아 적응기간은 개별 영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다. 특히, 만 1세의 경우 적응 기간을 1학기 정도로 설정 할 만큼 영아 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현장에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만 1세의 영아를 관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0세나 1세(만 1세)의 경우는 신입원아 적응기간이 따로 없어요, 4주에서 6주 정도로 신입원아 적응기간을 두고 있지만, 부모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1학기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습생을 들때도 만 1세반은 아무래도... 어려워요,

<A원장, 2016. 8. 2>

또한, 영아반 참여관찰 후 관찰 기록을 교사와 이야기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 1세 영아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적고, 신체를 이용한 비언어적 의사 표현이 많아서 연구자와 교사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였다. 그에 반해 만 2세의 경우 안전교육 활동 시 교사의 발문에 비교적 정확한 어휘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예비관찰을 통한 시사점에 따라 연구대상을 만 2세로 선정하였다.

2) 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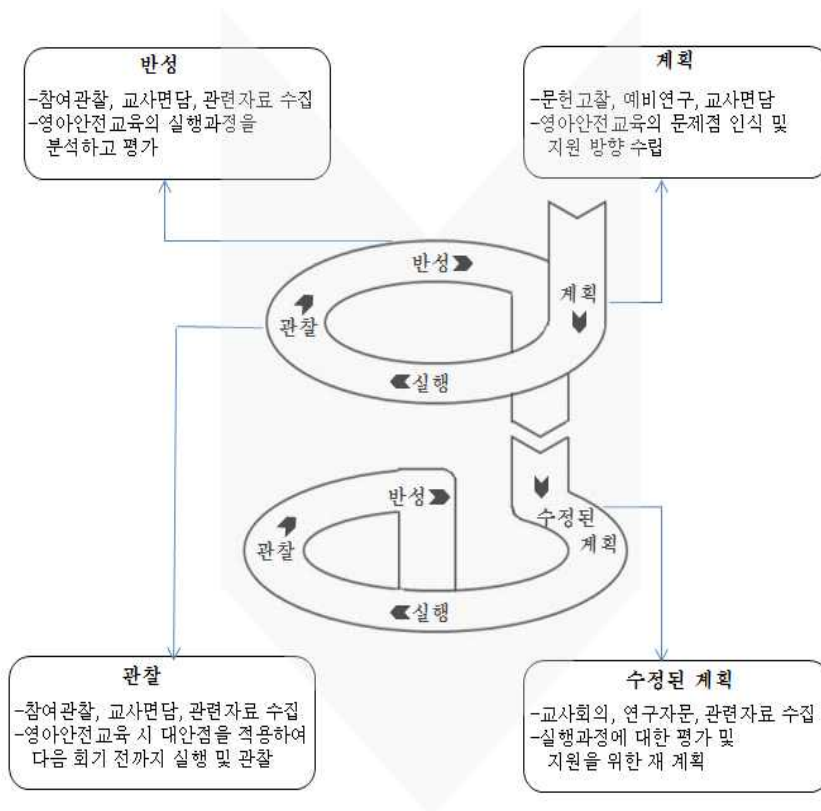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17년 2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실시되었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사와 관계 맺기’를 통해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기’를 통해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행의 과정으로 ‘1차 실행’, ‘2차 실행’, ‘3차 실행’ 및 ‘평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일정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협력적 실행연구 일정 및 내용

	단계	기간	내용
연구 준비 과정	문제 인식	2016. 7. 1- 2016. 7. 31	· 현장의 문제점 및 연구주제 인식 · 관련 연구물 및 문헌 고찰
	예비연구	2016. 8. 1- 2017. 1. 31	· 예비 연구를 위한 면담 및 참여관찰 · 관련 연구물 및 문헌 고찰
협력적 실행 과정	교사와 관계 맺기	2017. 2. 1- 2017. 2. 28	· 연구참여기관 및 교사 선정 · 교사와 신뢰감 형성하기
	실행 계획 세우기	2017. 3. 1- 2017. 3. 15	· 영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계획하기 · 관련 연구물 및 문헌 고찰
	1차 실행	2017. 3. 15- 2017. 5. 15	· 1차 실행 계획(문제점 인식)->실행 ->관찰->반성->재계획
	2차 실행	2017. 5. 16- 2016. 6. 30	· 2차 실행 계획(문제점 인식)->실행 ->관찰->반성->재계획
	3차 실행	2017. 7. 1- 2017. 8. 15	· 3차 실행 계획(문제점 인식)->실행 ->관찰->반성->재계획->실행
	평가	2017. 8. 15- 2017. 8. 31	· 영아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Kemmis와 McTaggart(1998)의 실행연구 모형을 토대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적합하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수정된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순으로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절차

협력적 실행연구(collaborative action study)에서는 연구자와 교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Hilson, 2006). 연구자와 교사는 상호간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함으로써 공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게 된다(김정숙, 2012; 구정숙, 2016; 최수진, 2016; Macnaughton & Hughes, 2013). 이렇게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지속적인 연구자와의 협력과 자기 반성을 통해 교사로서 역량 및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Locke & Riley, 2009), 현장

이론과 지식을 생성해 낼 수 있다(Ramond & Leinenbach, 2000).

이러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특징에 따라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시작하기’, ‘문제점 인식’, ‘실행 계획’, ‘실행 및 관찰’, ‘반성 및 재실행’, ‘평가’, ‘논문 작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에 따른 연구자와 교사간 협의 내용 및 상호협력 흐름의 절차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협력적 실행연구의 연구자와 교사 간 상호 협력 흐름

과정	협력적 실행 연구 내용	상호협력 흐름
시작	· 연구자와 교사 만나기	연구자 ⇄ 교사
	· 연구 참여 승인 받기	연구자 ⇄ 교사
	· 연구자와 교사 라포 형성하기	연구자 ⇄ 교사
↓		
문제점 인식	· 현장의 어려움을 연구자에게 제시하기	연구자 ← 교사
	· 영아 안전교육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하기	연구자 → 교사
	· 영아 안전 관련 연구물 및 문헌을 고찰하고 제공하기	연구자 → 교사
	· 협력적 실행연구에 대한 안내 및 과정 이해하기	연구자 ⇄ 교사
	· 연구자와 교사 상호 역할 협의 하기	연구자 ⇄ 교사
↓		
활동 계획	· 영아 안전교육 관련 문헌 고찰 및 교사 면담을 통해 활동 아이디어 추출하기	연구자 → 교사
	· 영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하기	연구자 ⇄ 교사
	·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계획하기	연구자 ⇄ 교사

⇩		
실행 및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방안 실행하기 · 안전교육 실행 및 영아 관찰하기 · 실행의 내용 및 과정을 평가하고 협의하기 · 실행 시 변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행을 확장 시키기 	연구자 ⇄ 교사 연구자 ⇄ 교사 연구자 ⇄ 교사 연구자 ⇄ 교사
⇩		
반성 및 재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계획 및 내용을 분석 및 반성하기 · 반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 반성의 결과를 토대로 재 실행하기 	연구자 ⇄ 교사 연구자 → 교사 연구자 ⇄ 교사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교사, 영아의 변화에 과정에 대해 면담, 참여관찰, 저널을 중심으로 의미 추출하여 평가하기 	연구자 → 교사
⇩		
논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도출하기 · 분석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검토하기 	연구자 → 교사 연구자 ⇄ 교사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H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인 새싹반 교사가 안전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효율적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새싹반 교사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고, 만 2세 영아에게 맞는 안전교육 활동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사들은 영아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 2세는 걸음마기의 시기로 신체 활동이 왕성해 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또한 반 인원이 만 1세반 정원은 월령에 따라 3명에서 5명인데, 만 2세반부터는 7명~8명으로 정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구성을 원하고 있었다.

만 2세때는 잘 못 걸던 애들이 걷고 2학기 때는 뛰기 시작하니까 특히 다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 1세때 3명에서 5명씩 보다가 갑자기 인원도 늘고(7~8명),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안전사고가 제일 어려워요.

<B교사, 2017. 2. 7>

만 2세는 재 작년에 맡아서 해 보았었는데, 선임 선생님과 함께 담임을 해서 교실 배치나 구성에서 주로 선임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 2세에 맞는 안전한 환경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교사, 2017. 2. 7>

둘째로, 교사들은 영아반의 발달 및 흥미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매체를 원하고 있었다. 기존의 안전교육 자료들은 이야기나누기 자료로 유아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영아의 수준 및 발달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영아의 흥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시도해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안전교육을 그동안 담당하지 않고, 혹시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1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나누기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다 보니 영아 안전교육 수업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그럼자료라서 영아들이 금방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A교사, 2017. 2. 14>

학교 다닐 때부터 만들기를 못해서 걱정이예요. (영아안전교육을 위해) 영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걸 만들고 싶은데...그리고 영아에게 맞는 (안전)교구를 만들고 싶은데...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A교사, 2017. 2. 14>

셋째,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동안은 안전담당 교사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할지 교사별로 활동을 나누어 주고, 안전교육은 계획안에 따라서 실시한 후에 평가만 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연간 계획안을 작성하고, 안전교육 활동을 찾고 계획하는 것을 해 본 경험이 없어요.

<A교사, 2017. 2. 7>

안전교육을 하기는 했었지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반 애들에 따라서 활동방법이나 질문 등을 준비해서 수업하다 보니, 안전교육 때 배워야 하는 내용이나,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요.

<B교사, 2017. 2. 14>

소방대비훈련을 할 때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서 밖으로 대피하는 활동을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기 보다는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을 재미있어 하고, 영아들한테 효과도 더 있는것 같아요.

<A교사, 2017. 2. 14>

이와 같이 연구자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효율적 안전교육을 위해 함께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실행 주제로 안전한 환경구성, 영아를 위한 영아 안전 교육내용 구성, 다양한 영아 안전교육 교수방법 적용을 설정하였다.

영아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설정한 실행 주제에 따라 협력적 실행연구의 실행과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협력적 실행과정의 세부내용

실행	기간	세부내용
1차 실행	2017. 3. 15	문제점 인식 및 계획 · 안전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	1차 실행 ·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 교실환경 개선, 안전교육자료 배치
	2017. 5. 15	평가 및 재계획 · 평가 및 재계획 : 1차 실행을 토대로 2차 실행방안 모색
2차 실행	2017. 5. 16	문제점 인식 및 계획 ·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	2차 실행 · 영아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내용 구성
	2016. 6. 30	평가 및 재계획 · 평가 및 재계획 : 2차 실행을 토대로 3차 실행방안 모색

	2017. 7. 1	문제점 인식 및 계획	· 안전교육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3차 실행	-	3차 실행	· 영아 안전교육에 다양한 안전교육 교수방법 적용
	2017. 8. 15	평가 및 재계획	· 평가 및 재계획 : 3차 실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평가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는 총 3차의 실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실행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2차 실행은 ‘영아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 구성’, 3차 실행은 ‘영아 안전교육에 다양한 안전교육 교수방법 적용’로 실시되었다. 차시별 실행과정은 Mills(2003)의 실행연구 단계에 따라 “문제인식” -> “계획” -> “실행” -> “평가” -> “재계획”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실행 및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재계획하여 실행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각 차시별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실행은 영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환경 구성 및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실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제인식’의 과정으로 참여관찰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 및 교실의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교사면담과 교육일지, 안전사고일지, 안전교육 평가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선을 위한 초점 영역을 설정하였다. 다음, ‘계획’의 과정에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교사와 함께 협의하여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 실내외 설비 및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이 과정을 참여관찰 및 교사 면담을 통해 함께 협의하여 실시하였다. ‘평가’의 과정을 통해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의 실행 과정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재계획’의 과정을 통해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대안점을 마련하여 다시 실행을 위한 계획에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실행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문제점 파악 및 계획’ 단계에서 H어린이집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안전교육활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아의 수준에 적합한 안전교육 활동인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실행의 과정’으로 영아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의 만 2세 수준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활동 계획하고,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모두 기를 수 있는 안전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만 2세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한 습관을 위한 생활안전교육을 함께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영아의 발달 및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 교재교구를 함께 개발하고 적용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재계획’의 과정으로 교사와 연구자는 영아 발달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 활동을 하면서 협의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쳤으며, 활동 후 저널, 참여관찰,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반성적 평가는 다음 활동을 위한 재계획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3차 실행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파악 및 계획’ 단계에서는 기존에 원내에서 진행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살펴봄과 그동안 주로 적용된 교수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안전교육 활동을 찾아봄으로써 안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선정하였다. ‘실행의 과정’에서는 영아 안전교육 및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를 찾아보며 선정된 교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영아 안전교육 활동에 따른 활동자료 및 안전교육 매체 및 교구를 제작하여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 및 절차를 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협력적 실행 연구의 과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실행의 과정 중 각 실행 차시별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추가로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연간 안전교육활동 외에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 중 계획되어 실시된 안전교육활동계획안 목록은 다음 표 20과 같고, 안전교육활동계획안은 부록 B-1-1~B-1-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20>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실시한 안전교육계획안 목록

번호	실행	활동명	안전영역	비고
B-1-1	1차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생활안전	환경개선
B-1-2		올라가지 않아요	생활안전	
B-1-3		그대로 멈춰라	생활안전	
B-1-4	2차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	생활안전	기본생활 연계
B-1-5		손을 깨끗이 씻어요	생활안전	
B-1-6		양치질을 해요	생활안전	
B-1-7		물면 안돼요	대인안전	
B-1-8		먹으면 안돼요	약품오남용	
B-1-9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요	생활안전	
B-1-10	3차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소방안전	시범
B-1-11		선생님 도와주세요	유괴실종예방	문학
B-1-12		똑똑 누가 왔어요	유괴실종예방	문학
B-1-13		소방관 게임을 해요	소방안전	게임
B-1-14		카시트에 앉아요.	교통안전	역할
B-1-15		횡단보도를 건너요	교통안전	현장학습
B-1-16		지진시 대피요령	재난대비	미디어 활용
B-1-17		모래바람이 불어요	재난대비	미디어 활용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영아 안전교육계획안으로 활동내용 및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영아 안전교육활동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연계하여 안전한 습관을 기르고, 일상생활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교육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영아 안전교육활동은 안전교육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참여를 원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만 2세의 하루일과 중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실시되었으며, 놀이 중심의 소집단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행과정에 따라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고, 교육활동의 내용에 따라 안전교육활동을 위한 안전교재교구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작하여 사용한 안전교재교구목록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제작한 교재교구 목록

번호	실행	교재교구명	안전영역
B-2-1	1차	문을 안전하게 사용해요	생활안전
B-2-2	2차	양치를 해요(대집단)	생활안전
B-2-3		양치를 해요(영역 배치)	생활안전
B-2-4		우는 블록 & 상처용 밴드	생활안전
B-2-5	3차	연기터널 밑으로 빠져나가요	소방안전
B-2-6		소화기로 불을 꺼요	소방안전
B-2-7		투척용 소화기 & 불 불링	소방안전
B-2-8		카시트에 앉아요	교통안전
B-2-9		지진이 났어요(집안 디오라마)	재난대비

영아안전교재교구는 실제 사고를 중심으로 고안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의 자료와 함께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나 영아가 알아야 하는 안전지식의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재교구가 계획되었다. 제작된 교재교구는 만 2세 교실 흥미영역에 배치하여 영아가 영아 안전교육활동 외에도 자유롭게 안전교재교구를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연관되는 안전교재교구로 ‘문’, ‘칫솔’, ‘치약’ 등은 교실에 계속 배치하여 놀이를 통해 반복해서 안전한 태도와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예비연구 기간을 포함하여 2016년 9월 1일에서 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12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실행되었으며, 삼각검증에 따른 자료수집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삼각측정 방식에 기초하여 객관화된 검사도구, 참여관찰, 개별면담 및 집단 협의, 반성적 저널 등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Phillips와 Carr(2006)이 제시한 삼각검증 방식에 따른 자료수집 방법을 기초로 참여관찰, 면담 및 설문, 문서자료 및 제작물로 수집된 자료를 구분하고, 김정숙(2012)의 자료수집 방법을 참조하여 실행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범주화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

연구목적 및 문제	참여관찰 (Observation)	면담 및 설문 (Interview)	문서자료 및 제작물 (Artifact)
영아 안전교육 실행과정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 · 관찰일지 · 교사 저널 · 연구자 저널 ·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원장 면담 · 교사&연구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계획안 · 주간,일간보육계획 · 안전교구제작계획서 · 안전교육관련 교구 · 연구자&교사회의록 · 비디오녹화, MP3, 사진
영아 안전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 ·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검사도구 -교사 안전지식 -교사 안전실천 -교사 효능감 -영아 안전지식 -영아 비안전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계획안 · 주간,일간보육계획 · 안전교구제작계획서 · 안전교육관련 교구
영아 안전교육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 · 관찰일지 · 교사 저널 · 연구자 저널 ·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원장 면담 · 교사&연구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계획안 · 주간,일간보육계획 · 안전교구제작계획서 · 안전교육관련 교구 · 비디오녹화, MP3, 사진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적 자료수집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에서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안전지식

교사의 안전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Fickling(1993)이 아동안전에 관한 부모의 위험지식을 알아보고자 개발한 질문지를 김승현(2005)이 교사용으로 수정하여 이미경(2015)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안전지식에 관한 질문은 문항별 정답이 존재하여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은 의미가 없다. 교사 안전인식 도구의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으며, 검사 도구는 부록 A-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3> 교사의 안전지식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교통안전	9, 10	2
놀이안전	3, 6, 20, 25, 28	5
시설·설비안전	2, 4, 5	4
화재안전	7, 8	2
실종·유괴	13, 14	2
약물오남용	11, 12	2
재난대비	18, 19	2
대인관계안전	15, 16, 17	3
미디어안전	26, 27	2
동식물안전	23, 24	2
식품안전	21, 22	2
상해 가능성	*1	1
안전 지식 인식	*29	1
총 문항수		29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 산정이 되지 않음

(2) 교사의 안전실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안전실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시설 안전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김은숙(2009)이 제작하고, 이미경(2015)이 수정·보완한 안전실천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8이었다. 교사의 안전실천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은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검사도구는 부록 A-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4> 교사의 안전실천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교통안전	16, 28	2
놀이안전	3, 5, 9, 11, 15, 17, 19	7
시설·설비안전	4, 14, 18, 20	4
화재안전	10, 27	2
실종·유괴	6, 7	2
약물오남용	12, 13	2
재난대비	21, 26	2
대인관계안전	22, 29	2
미디어안전	24	1
동식물안전	25	1
식품안전	8	1
안전지도	1, 2, 23	3
총 문항수		29

(3) 교수효능감

영아반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Enochs, Smith와 Huinker(2000)가 개발하고, 이아영(2014)이 수정·보완한 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수학 교육을 지도할 때 학생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한다.”에서 “나는 안전교육 활동을 지도할 때 영아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한다.”처럼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의 협의를 거쳤다. 교수효능감은 개인효능감 12문항과 결과기대감 8항목으로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은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5> 교수효능감 하위요인 및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개인효능감	1-12 (*2, *4, *5, *9, *11)	12
결과기대감	13-20	8

*문항은 역문항

(4) 영아의 안전지식 검사도구

영아의 안전지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Pickle(1989)이 개발한 Safety Education Program에서 사용한 안전지식 검사 도구를 곽은복(2000)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유종민(2015)이 만 3세 수준으로 보완한 것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만 2세 영아에 맞춰 수정·보완 한 후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만 2세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총 24문항로 구성된 사전·사후 질문에 따라 영아가 검사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작 하여,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의 검토를 받고, 영아교사 2인을 통해 만 2세 영아에게 직접 사용해 본 뒤 그림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안전지식에 관한 질문은 문항별 정답이 존재하여 문항 간 신뢰도 분석은 의미가 없다. 검사 도구의 질문과 제작된 안전지식 검사 그림의 예시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검사 도구에 따라 제작된 그림 예시

질문 내용	질문 내용에 따라 제작된 그림
10. 주차장에서 놀아도 된다.	

안전지식 검사도구는 개인면접으로 질문을 한 뒤 영아가 ○, × 카드를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채점하는 방식이지만, 영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 × 카드를 선택하거나 질문이 맞거나 틀리는 것을 표시하게 하여 정답이면 1 점, 틀리면 0점을 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사후 질문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영아 안전지식 검사 도구의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은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7> 영아의 안전지식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문항수
교통안전	1, 2	2
놀이안전	3, 4	2
대인안전	5, 6	2
소방안전	7	1
재난대비	8	1
생활안전	9, 10	2
동물안전	11	1
약품오남용	12	1
총 문항수		12

(5) 비안전행동 검사도구

영아의 비안전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은(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관에서의 비안전행동목록을 토대로 유수정(2012)이 수정·보완한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비안전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비안전행동 검사도구의 실내자유선택영역의 하위 영역이 '쌓기, 역할, 조형, 언어, 과학, 수조작, 음률'로 유아반의 흥미영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만 2세 보육프로그램(중앙육아정보센터, 2013)을 참고 하여 '쌓기, 역할, 미술, 언어, 감각, 탐색, 음률'로 흥미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보육 영아반 교사 및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과학, 수조작'을 '감각, 탐색'으로, '조형'을 '미술'로 변경하였다. 또한 영아반의 교육 환경 및 운영 현실에 맞춰 비안전행동 척도 중 수조작영역의

‘1. 바늘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를 ‘교구를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로, 모래놀이영역의 ‘3. 모래놀이 도구를 실내로 가지고와 장난을 한다.’를 ‘모래 놀이 도구로 위험하게 장난을 한다.’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영아 비안전행동 검사도구는 실내자유선택활동에서의 비안전행동 43문항, 실외 놀이활동에서의 비안전행동 15문항으로 총 58문항이며, 연구자와 유아교육전문가 1인, 현장 전문가로 원장 1인, 영아반 3년 이상의 경력교사 2명의 검토를 받았다.

본 도구는 영아의 비안전행동과 관련하여 ‘아주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아주 그렇다’ 1점으로 채점하는 3점 척도로 교사 평정 척도이다. 영아의 비안전행동 도구의 하위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28과 같다.

<표 28> 영아 비안전행동 검사도구 하위요인 및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실내 자유 선택 활동	쌓기	8
	역할	4
	미술	5
	언어	4
	감각	4
	탐색	5
	음률	4
	기타 공간	9
실외 놀이 활동	미끄럼틀	8
	모래놀이	3
	복합놀이	4
총 문항수		58

2) 질적 자료수집

(1) 참여관찰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황해익 외, 2003). 교실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찰을 하게 되므로 교실의 활동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관찰의 기회가 많고 다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찰대상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다(이윤옥, 2014). 대부분의 질적연구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참여관찰을 말한다. 어떤 형태로든 연구자가 연구 환경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하기의 목적은 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되는 환경 또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Hatch,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연구준비 과정에서의 예비관찰과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의 본 관찰로 실시되었다. 예비관찰은 2016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5개월간 연구관련 문제 인식 및 명료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 관찰은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7개월간 영아 안전교육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아 안전교육 실행 과정 및 실행을 평가하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예비관찰 시 영아의 다양한 반응을 표집하기 위해 안전교육 활동 시 캠코더를 설치하고 비디오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안전교육 활동을 할 때 영아들이 촬영을 하는 비디오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고정하여 설치한 캠코더

장치를 만지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안전 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소방 및 재난대피훈련 등 장소의 이동이 많아 참여관찰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만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연구자는 교사-영아와 영아-영아간 상호작용이 원활히 기록 되도록, MP3를 통해 안전교육활동을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안전교육활동 시간에 교사와 영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영아의 반응 등을 연구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은 안전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매주 1-2회씩 총 35회가 이루어졌으며, 비디오 촬영 4회 총 52분, MP3 13회 총 87분을 합쳐 총 전사 분량은 A4 134장이다.

(2) 개별 면담 및 집단 협의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대화 혹은 담화를 말한다(Hatch, 2002). 본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과 집단 협의를 함께 진행하였다. 안전교육 실행 관련하여 연령별 교사의 인식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심층적 면담을 위하여 원장, 연구 참여 교사별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교사가 함께 협의를 통해 다음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집단 협의를 진행하였다.

교사 개인의 경험이나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교사가 인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통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교사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주 1~3회 이루어졌으며, 매주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화요일의 형식적 면담과 함께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낮잠시간을 활용하여 비형식적인 면담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1회당 약 20분에서 40분 정도로, 안전교육 활동의 종류나 경험에 따라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면담의 과정 동안 면담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 1명은 교실에서 영아들과 함께 있었으며,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성실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록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여, 면담 후 함께 기록하였다. 면담 장소는 도서실과 교실내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면담 장소로 도서실과 낮잠시간 내 교실을 사용할 경우 MP3 녹음을 실시하고, 자유선택활동 시간 중 교실 내 영역에서의 개별 면담시에는 주변 소리로 인해 MP3 녹음이 어려워 면담 내용을 노트에 수기로 기록하였다. 교사 개별 면담은 총 32회 이루어졌으며, 전사본은 A4 98장 분량이다. 원장의 개별 면담은 실행주기를 중심으로 실행 계획과 실행 진행상황 안내 및 협조 요청을 위해 실행주기 별 2회씩 총 6회 이루어졌으며, 전사본은 A4 21장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새싹반 담임교사 2명이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적 의사소통 및 의견 공유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들 간의 집단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실행 전후의 개별 면담 외에 집단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집단 협의는 안전교육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교사 2명이 함께 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고안하고 공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주에 1회씩 집단 협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자와 새싹반 교사 2명이 함께 협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고 원내 행사 및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횟수 및 참석자를 조절하였다. 집단 협의는 총 11회 이루어졌으며, 회의록을 포함한 전사본은 총 A4 67장 분량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면담 시 연구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설정하고 개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Creswell, 2010). 이에 따라 개별면담 시 대상별 면담내용과 질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성’, ‘영아를 위

한 안전교육내용의 선정’, ‘영아 안전교육 교수방법’의 실행 주제에 따라 교사의 생각과 현재 시행 중인 방법과 개선 방안, 교사가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교사의 요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자와 교사 간 협의와 협의 사항의 진행과 반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관찰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사례와 저널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은 표 29에 제시하였다.

<표 29> 교사대상 면담 내용

면담 범주	면담 내용
안전한 교육환경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생각 ·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개선 노력과 방안 · 안전한 환경 구성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 안전한 교육환경 구성을 위한 교사의 요구 ·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 사항 및 반영 정도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 · 현재 영아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노력과 방안 · 안전교육 활동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의 선정 시 교사의 요구 ·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 사항 및 반영 정도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안전교육 교수방법에 대한 교사의 생각 · 현재 시행 중인 안전교수방법 및 교재교구의 활용 · 안전교육 활동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 영아 안전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사의 요구 ·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 사항 및 반영 정도

또한, 원장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파악하고, 연구자와 교사 간 협력적 실행연구에 대한 협

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장과의 개별면담은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아 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등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영아 안전교육 진행 사항을 알리고 이에 따른 협조 사항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은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원장 대상 면담 내용

면담 범주	면담 내용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 · 어린이집의 연간 안전교육 운영 상황 · 안전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계획 · 안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사례
영아 안전교육의 진행 및 협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안전교육 활동 진행사항 안내 ·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조요청 및 협의

면담 질문은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쌍방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고, 질문의 내용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Hatch, 2002). 또한, 연구 주제 및 목적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일화와 경험을 듣고, 그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Spradley(2003)의 기술적 질문, 구조적 질문, 대조적 질문 유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31은 질문 유형에 따른 면담 질문 예시이다.

<표 31> 질문 유형에 따른 면담질문

질문 유형	질문의 예
기술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영아 안전교육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구조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전교육방법은 무엇인가요? · 안전한 환경을 구성할 때 무엇을 강조하나요? · 영아 안전교육을 하면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대조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과 유아반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안전교육 교수자료와 안전교육교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3) 반성적 저널쓰기

반성적 저널쓰기는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 행위에 대해 그것의 원인이나 궁극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끈기있게,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황해익 외, 2003)으로, 연구자와 연구참여 교사가 함께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다. 연구참여교사는 안전교육 실시 후 안전교육활동계획서에 평가란을 통해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소감을 작성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감정,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 교사에게 반성적 저널 쓰기를 제안하였다. 교사는 안전교육 실행의 과정에서 실행된 행동, 느낀점과 문제점을 저널로 작성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연구자와의 협의 후에도 협의된 내용과 제공된 자료를 보고 느낀 생각과 아이디어 등에 관한 내용을 저널로 작성하였다. 교사저널은 34회로 작성되었으며, 총 A4용지 35장 분량이다.

또한 연구자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안점을 고안해 내기 위하여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였다. 연구자저널은 총 9회 작성되었으며, A4용지 13장 분량이다.

(4) 연구자 일지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계획, 감정, 생각, 연구 과정의 절차, 연구 실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 일지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이나 면담 및 집단 협의 시 작성하는 기록과 함께 순간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함께 작성해두고, 바로 연구자 일지에 따로 정리해서 기록해 두었다. 연구자 일지는 노트 61장 분량이다.

(5) 문서자료 및 기타 자료수집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계획안 및 평가서,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영아관찰일지, 체크리스트,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서자료의 종류 및 분량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문서자료 및 기타 자료수집 목록

자료 목록	문서자료 및 기타 자료 내용	분량(A4용지)
안전교육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간 안전교육계획안안전교육활동계획안 및 평가서	37장
보육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간 보육계획안주간 보육계획안	29장
보육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일 보육계획안 및 일지	258장
영아관찰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입 원아 관찰일지분기별 영아 관찰일지	5장 42장
영아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영아행동발달체크리스트	56장
가정통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간 가정통신문연구 관련 통신문	17장

6. 자료분석 및 처리

1) 양적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수효능감과 영아의 안전지식 및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인 교사와 영아를 대상으로 객관화된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협력적 실행연구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얻어진 양적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해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 전, 후로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고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 전, 후로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 14명을 대상으로 영아안전지식, 비안전행동을 측정하였으며, 비모수검정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 Rank Test)로 사전·사후 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질적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자료 통합, 영역분석, 자료 범주화, 범주 분석과 의미 해석의 단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이용숙, 김영천, 1998).

첫째,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고, 통합하였다. 참여관찰, 개별면담 및 집단협의회, 교사의 반성적 저널, 연구자 일지, 영아 안전교육활동계

획안, 동영상, 녹음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였다. 참여관찰은 동영상과 녹음자료, 연구자 노트를 참고하여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교사의 발문, 영아의 반응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전사하였다. 교사 면담과 집단협의회는 교사 개별로 전사하고, 실행연구의 과정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분류하고, 실행과정 중 협의의 과정이 드러나거나 의미가 있는 부분은 협력적 실행과정에 따라 참여관찰, 저널 등의 자료와 면담 내용을 연관 지어 분류하였다.

둘째, 영역 분석의 과정으로 면담, 저널쓰기, 참여관찰, 연구일지, 영아안전연구 활동계획안 등 다양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수차례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 전반적인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론적 관계에 근거한 영역을 구성하였다(Potter, 1996).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며 읽으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나 의미 있는 변화 등을 기록해 나가며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셋째, 분석된 자료는 자료 범주화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문제에 따라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협력적 실행과정에서 교사와 영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교사와 영아에게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생각하며, 발견된 의미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두드러진 영역은 상세화 하면서 영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된 자료를 맥락에 따라 범주화 하고, 범주화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재 범주화의 과정을 거쳤다.

넷째, 범주에 따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였다. 영역별, 영역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합 개요를 만들어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에 따라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범주별 개요를 구성하고 사례 간 특성을 종합하여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 주제에 따라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변화과정’ 으로 범주를 구성하고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은 실행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범주별 개요를 구성

하였으며,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변화과정’은 교사와 영아로 구분하여 범주별 개요를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변화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제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를 들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협력적 실행 과정과 연구 참여자 변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 안전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수집한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9)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고자 심층면담 기술, 연구 참여자 검증, 지속적인 참여와 집중적 관찰, 동료 연구자의 조언, 연구자의 편견 배제, 삼각검증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심층면담 기술은 설명한 대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인 현상의 복잡성과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방법이다(Denzin & Lincoln, 2009). 그러므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얼마나 밀도 있고 근접하게 기술하였는가에 따라 그 연구가 얼마나 신뢰롭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면서도 직접적인 준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 면담 및 집단 협의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면담의 과정을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하였다. 또한 개별 면담 및 집단 협의 시 중요한 부분이나 교사의 반응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후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며, 면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면담 당시의 느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면담을 실시 한 후 바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면담 시 연구자노트를 통하여 현장의 상

황에서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둘째로,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증이다.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검증(member checking)은 다양한 실체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자연주의적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수집하고 해석한 자료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Hatch,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 안전교육 상황에서의 전사 기록이나 연구자 노트, 면담 녹음 전사본이나 면담 시 연구자 일지 등을 수시로 연구 참여교사에게 검토 받았다.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결과가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 하였는지를 현장에 함께 참여 했던 연구 참여자로 부터 검토 받음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으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새로운 시각이나 해석을 제안 받음으로써 현상의 실제에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로, 지속적 참여 및 집중적 관찰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신용 있는 결과가 산출 되도록 다양한 활동 및 사례를 관찰하기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Hatch, 2008).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의 의미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석적 시각을 가지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찰 및 참여가 필요하다(Creswell, 2010). 이에 본 연구자는 영아 안전교육이 일어나는 시기에 현장에서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로, 동료 연구자의 조언을 통해 연구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통해 연구자의 개인적 선호와 성향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구 주제에 익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동료들과 함께 연구 중 떠오르는 주제들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가짐으로써, 평정자 간 신뢰도와 같은 동료들 통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Lincoln & Guba, 1985).

다섯째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영향을 주는 편견을 막기 위해 연구 초기 연구자의 위치, 배경, 과거 경험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밝힘으로써,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고(Merriam, 1988), 동료 검증이나 연구 참여자 검증 등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적 판단이나 해석을 배제 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 교사 면담, 연구자 -교사 협의 회의, 교사의 저널, 연구자 노트,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안 및 활동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수집하여 해석하고, 연구 참여자의 검증과 유아교육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의 검토 및 점검을 통해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연구 윤리 확보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참여기관에 연구목적, 연구방법,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제공하고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교사와 영아의 학부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밀 보장, 연구의 참여 선택 및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을 통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의 과정 중이나 연구 종료 후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진행 및 연구의 결과를 알렸다. 또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할 때 제공되었으며,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는 가칭 및 가명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 안전교육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를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되었다.

IV.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

1.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한 준비 과정

본 절에서는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한 준비 과정을 관계 맺기와 실행을 위한 준비하기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관계 맺기는 연구를 교사와 연구를 위한 관계 맺기, 어려움 알아가기로, 실행을 위한 준비하기는 연구자와 교사의 시 작점 맞추기, 문헌고찰을 통해 주제에 다가가기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1) 관계 맺기

본 연구는 교사와 연구자와의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협력적 실행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와 교사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영아반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의 참여 여부 확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 활동에 개선을 바라는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협력적 실행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1) 교사와 연구를 위한 관계 맺기

연구자는 연구 시작 이전에 이미 교사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자

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교육과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자로 하여금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구 전 원장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또한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어린이집을 연구 현장으로 허락 받는 데에도 사전에 어린이집을 컨설팅 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평가자로서의 연구자와 평가를 받는 자로서의 교사 간 첫 만남은 교사로서 하여금 연구자와의 관계를 어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보육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교사교육을 했던 경험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현장인 어린이집과 교사와 영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A교사와 B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과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평가와 교사교육을 위한 연구자와 교사간 상하적인 사전 관계는 한편으로 동등한 관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건 아니지만...그래도 교수님 이시잖아요, 아무래도 교수님이 계속 오셔서 수업을 보신다고 하시니 걱정이 되더라구요,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수업평가를 받는데 매주 수업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긴장이 되더라구요.

<A교사, 2017. 2. 7>

이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와 교사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효과적인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평등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사가 연구자를 ‘평가자’와 ‘교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교사 간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가 쉽지 않았다. 연구자는 교사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자주 방문하여 간단한 면담을 통해 교사와의 신뢰감을 쌓고, 원장실 또는 교사실에서 만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교사만 있을 수 있는 도서실이나 자료실을 면담 장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실시 시기와 방법 등 실질적인 연구의 절차 등을 어린이집과 새싹반의 일정에 따라 조정하고, 비교적 작은 부분도 교사와 함께 상의하고 교사에 의견에 따라 조율 하였다. 이 외에도 메일을 통해 연구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고 받았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1~2회의 공식적인 면담 외에도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소통하며 만남을 가졌다.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교사와의 협력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쌓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중략) 현장과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컨설팅과 공공형 어린이집 재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어반을 평가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교사: 그래도 지난 번에 수업 평가에 오셨을 때 교실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해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교사로 오래 근무하셔서 다르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실제적인 수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개별 원아의 발달이나 특징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께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A교사: 저는 만 2세반 담임 경험이 있고 만 1세반 때 담임으로 맡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온거지만, 새로운 원아들이 있어서 새로운 분위기가 될 거 같아요. (중략)

그동안 교육계획안을 짤 때 특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고 망설이게 될 때가 많았는데...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것 같아요.

<2017. 2. 24 교사면담>

또한 연구자는 10년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2년간 대학서 안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 하였지만, 몇 년간 현장에서 떨어져 연구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현재의 보육시설 운영 실태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에게 이번 연구에 있어서 교사들의 실제적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 하며, 영아들과 실제 교육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교사들이 연구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조언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교사간 협의 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때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 망설이거나 연구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와의 편안한 관계 맺기 및 관계 유지를 위해 연구가 끝 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어려움 알아보기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교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협력적 실행연구에 들어가기 앞서서 연구자가 교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재 교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나 앞으로의 연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줄여 나가기 위해 진행되었다.

영아반 선생님들은 정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밥반을 해서 선생님이 같이 있어도 옆지르고, 넘어지고(웃음)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못 떼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A교사, 2017. 2. 14>

A선생님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본인도 이제 경력이 많아지고 선임이 되니까 더 배우려고 하고,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도... 사실 선생님들은 연구라도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걱정이 되나봐요.

<원장, 2017. 2. 20>

위의 사례처럼 교사들은 아직 행동이 미숙하고,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인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영아들과 함께 하면서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에게 이러한 영아반 교사로서의 업무의 특성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에게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연구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싹반의 하루일과에 맞추어 연구 일정을 새로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새싹반의 하루 일과를 고려하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참여관찰을 실시하고, 오후에 다시 재 방문하여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교사 개별면담이나 교사

협의회를 가졌으며 원내 행사나 일과 중 일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최대한 편안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로 경력이 있지만 그래도 실습생이 온다거나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본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되요. 물론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수업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평소에 잘하다가 가도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학부모님이 오시면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관심 끌기 같은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A교사, 2017. 2. 20>

요즘 아이들이 소란스러우면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주시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화면이 나오는 기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핸드폰을 확인 할 때 조심해서 확인해요. (중략) 지난번에 캠코더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 보셨지요? 사진 찍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이 나오는 것도 좋아해요. 캠코더에 촬영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니까 더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B교사, 2017. 2. 14>

위의 사례처럼 교사들은 낯선 사람이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관찰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자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교사는 꼭 수업의 평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수업을 지켜본다는 것에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교실에 학부모나 실습생 같은 낯선 성인이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영아들이 성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실에 낯선 성인이 들어오는 것을 더 어렵게 느끼

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에 들어가기 전 만 1세반에 들어가서 새싹반으로 올라가는 영아들과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갖았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들은 핸드폰이나 캠코더 등의 영상기기에 많은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영상기기의 사용을 조심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최대한 캠코더나 핸드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 영상기기 사용 시 영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H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교사가 안전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효율적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매주 1번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소방훈련이 있을 때에는 2번을 할때도 있어요. 안전교육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영아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유아반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B교사, 2017. 2. 14>

저희는 영아반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집단 활동 대신 하기를 원하는 영아들만 데리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할 때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다른 교사가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함께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활동에 흥미를 보이면서 가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영아에게 재미있는 활동은 아니니까

<A교사, 2017. 2. 24>

위의 사례처럼 영아반도 안전교육에 대한 연간 계획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반을 기준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영아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영아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안전교육 내용과 안전교육 활동에 진행시 영아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만 2세때는 잘 못 걸던 애들이 걸고 2학기 때는 뛰기 시작하니까 특히 다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 1세때 3명에서 5명씩 보다가 갑자기 인원도 늘고(7~8명),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안전사고가 제일 어려워요.

<B교사면담, 2017, 2, 14>

만 2세는 재 작년에 맡아서 해 보았었는데, 선임 선생님과 함께 담임을 해서 교실 배치나 구성에서 주로 선임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 2세에 맞는 안전한 환경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A교사면담, 2017, 2, 20>

또한, 교사들은 영아가 만 1세에서 만 2세반으로 올라오면서 반 인원이 거의 두배 정도 많아지고, 걷기가 가능해지고 신체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발달 특성에 따라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사는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환경구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저도 관련한 내용(영아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집에 가서 대학교 수업때 들었던 「유아안전관리」 책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은 많은데 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새학기 준비로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사실 영아반은 교사가 영아들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중략)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나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A교사면담, 2017. 2. 16>

위 사례처럼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기존의 자료들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자료나 안전한 환경 구성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교사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사는 영아반 교사의 업무 특성 상 교육활동 및 연구에 대한 시간적 부족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영아에게 맞지 않는 안전교육 내용으로 인해 안전교육 활동의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교사는 안전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였지만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유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아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교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봄으로써, 실제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협력적 실행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사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력적 실행연구 방법을 계획하고 효율적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 실행을 위한 준비하기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공동의 실행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H어린이집의 안전교육 현황 및 새싹반의 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 내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고, 안전평가 도구 및 연구도구를 통한 객관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장 및 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참여 관찰을 통해 교실 환경 및 영아 활동 영역을 파악하고 영아와 자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영아로 하여금 연구자의 참여 및 관찰에 대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협력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정보를 모으고 대안을 찾아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서로 협의하여 대안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Quinn & Cumblad, 1994).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료 및 문헌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관련된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목표 설정을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1) 연구자와 교사의 시작점 맞추기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공동의 실행 목표를 세우고, 협력을 위한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이 중요하다(김지혜, 2011; 최혜윤, 2015; Tomal, 2010). 연구자는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실행 과정을 시작하기 전 영아를 사전 진단함으로써 연구자가 교사 함께 진행해야 할 협력의 과정에 시작점 지점을 맞춰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영아의 사전검사 결과를 교사와 공유하며, 영아 지도를 위한 기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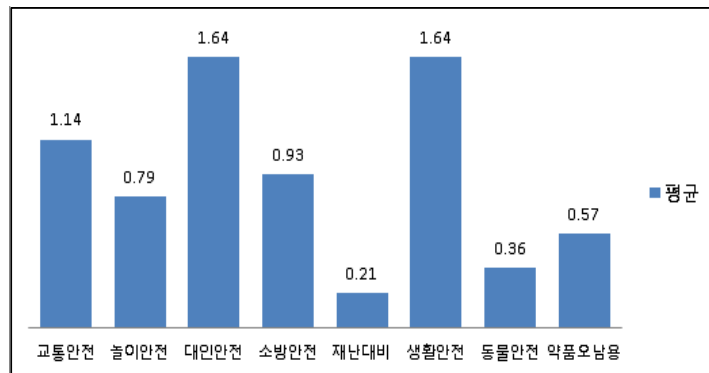
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교사도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 사전 진단을 함으로써, 연구자가 교사에게 제공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① 영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행동에 대한 진단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행동을 진단하였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아의 발달 및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영아 안전교육을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영아의 행동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영아안전지식 검사도구와 안전행동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영아의 안전지식 인식과 안전행동 실천을 측정하였다.

먼저, 영아 안전지식 사전검사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7.29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인안전과 생활안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교사 면담에서도 영아들에게 가장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안전교육활동으로 재난대비교육을 이야기 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재난 대비와 관련한 내용은 그 개념이 자연환경과 재해로 광범위 하고, 영아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안전지식이 더욱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연구자는 안전교육 영역별 영아의 사전 지식 정도를 알 수 있었으며,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계획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영아가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의 안전교육 영역별 안전지식 인식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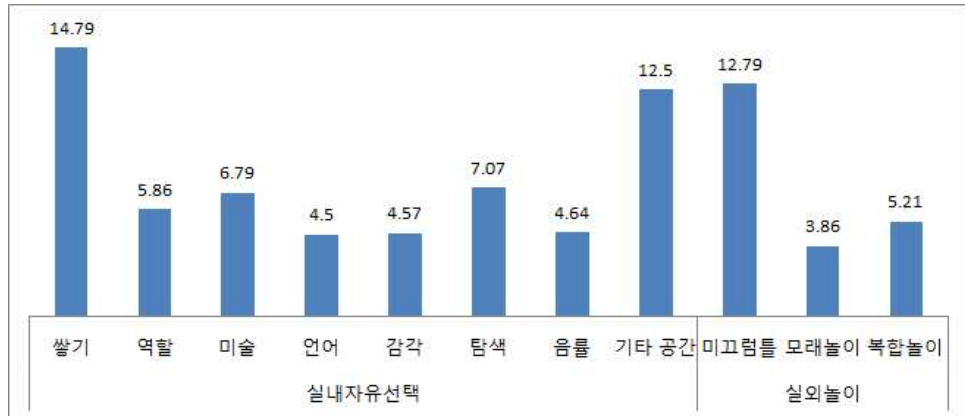


[그림 5] 영아의 안전지식 진단

영아안전지식에 대한 영아별 안전지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12점 만점에 평균은 7.3점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지식이 가장 높은 영아는 11점, 안전지식이 가장 낮은 영아는 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안전 행동 실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아의 비안전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안전행동은 영아에게 관찰되는 위험한 행동 정도를 교사가 측정한 것으로 비안전행동이 적게 나타날수록 안전 행동의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비안전행동에 대한 영아별 점수를 알아본 결과 비안전행동을 가장 많이 보인 영아는 93, 비안전행동을 가장 적게 보인 영아는 비안전행동 지수가 68으로 나타났다. 영아 비안전행동 문항에 진단 결과 하위요인별로는 실내자유선택 활동인 경우 쌓기영역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실외 놀이 활동인 경우 미끄럼틀, 복합놀이, 모래놀이의 순으로 나타나 미끄럼틀에 비안전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연구자와 교사는 안전행동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비안전행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및 빈번히 일어나는 비안전행동 유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림 6] 영아의 비안전행동 진단

②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실천, 효능감에 대한 진단

연구자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함께 참여하는 교사들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교사 면담 및 안전지식, 실천, 효능감 검사를 통한 사전 진단을 실시하였다.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연구자는 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에게 제공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해본 결과 A교사는 안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전지식과 함께 안전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안전교육의 실행시 환경구성이나 발달에 안 맞는 내용, 안전자료 부족, 시간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교사도 안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전지식과 함께 안전교육의 어려움으로 범위가 넓은 안전교육의 내용과 유아 중심의 안전교육 활동 진행, 안전교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을 나타냈다. 새싹반 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새싹반 A교사, B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위의 그림과 같은 새싹반 A교사와 B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공통된 사항을 종합하여 연구자는 안전관련 지식과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로 나누어 구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재구성해 보았다. 연구자가 재구성한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다음 그림 8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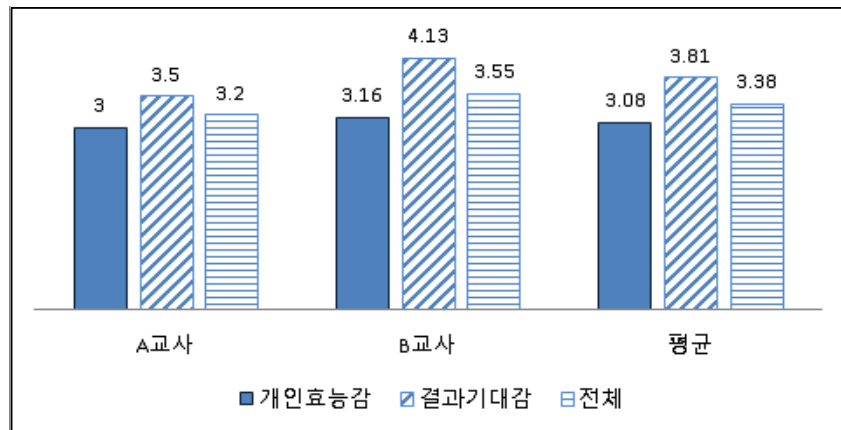


[그림 8]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나 어려움,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교사의 요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교사의 안전지식 인식과 안전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교사는 안전지식 만점 27점을 기준으로 하여 A교사 17점, B교사 15점으로 안전관련 지식에 대해 대체로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식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사들은 놀이안전 관련 지식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재난대비와 관련된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면담에서 교사들이 영아에게 어려운 안전교육활동으로 재난대비교육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교사의 안전실천에서는 시설·설비안전과 대인관계안전에서 안전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면담을 통해 안전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관련 자료 및 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전지식과 실천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교사에게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의 안전교육 실천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안전교육활동 교수 및 태도와 영아의 안전지식, 안전 기술 및 태도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을 객관화된 검사도구를 통해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교사 평균은 3.38로 나타났으며, A교사는 3.20, B교사는 3.55로 B교사보다 A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와 B교사 모두 결과에 대한 기대감보다 개인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효능감도 전체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교사효능감 진단 결과는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교사별 교사효능감 진단

교사는 안전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안전교육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 안전교육의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교사효능감을 증진 시키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2) 문헌 고찰을 통해 주제에 다가가기

본 연구에서는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관련된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목표 설정을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예비연구 과정에서 미리 정리해 주었던 관련 문헌들을 교사와 함께 살펴보았다. 국외 문헌은 연구자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에게 소개하였으며, 국내 문헌의 경우 연구자가 정리한 자료와 함께 원문도 함께 제공하였다. 최근 영아 안전교육의 동향, 영아 안전 관련 법규,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안전교육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에 문헌 고찰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교사와 함께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해 현장에서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교사와 함께 파악하고, 문헌 고찰에 대한 교사와 연구자 간 협의의 과정을 통해 함께 인식한 문제점들을 구체화 시키고 문제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연구 주제에 따른 목표 수립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하고 검토한 문헌의 목록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효율적 안전교육을 위한 문헌 목록

범 주	목록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 :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안전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reasing safety awareness of preschoolers through a safety education program.(Pickle, 1989) • Cognitive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safety and prevention.(Coppens, 1986). • Training preschool children of identity emergency situations and make emergency phone calls.(Rosenbaum & Drabman, 1981)
안전교육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영유아 안전교육(이기숙 외, 2011) • 아동안전관리(김일옥 외, 2013)
안전교육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유치원 단계 안전교육 내용(교육부, 2016) •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안전교육 영역 및 내용(보건복지부, 2015) • 영유아 안전교육: 일상생활에서의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이기숙 외, 2011)

안전 교육의 내용	영역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건강 및 안전: 안전사고의 유형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정아란, 2011) • Healthy start(1999: 김영실 외, 2011에서 재인용) • Increasing safety awareness of preschoolers through a safety education program,(Pickle, 1989)
	교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관리(윤선화 외, 2010) •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014) •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이기숙 외, 2012) • 표준보육과정 · 누리과정에 맞춘 아동안전관리(이영환 외, 2016)
안전 교육 교수 방법	관련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건강 및 안전(정아란, 2011) • 동화를 통한 접근을 통한 안전교육(박유영, 2004)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안전교육(유선희, 2003), • 토의를 통한 안전교육(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 • 현장학습을 활용한 안전교육(서유미, 2008) • 상황극을 활용한 안전교육(고정완, 2016)

위의 표 33과 같이 본 단계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안전교육의 개념(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 안전교육 영역(표준보육과정 내 기본생활영역의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의 교수학습방법(안전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관련 논문)을 알아보았다.

교사는 연구자와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을 위한 문헌 고찰 과정에서 그 동안 영아 안전교육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으로 관련 참고 문헌 및 교육 자료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음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원에서

진행되었던 실제 안전교육의 실행 과정에서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이야기 나누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실제 운영에 대한 자료로 함께 찾아보기를 제안하며,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교사: 안전은 학교 다닐 때 수업으로 듣기는 했는데, 모의수업 같은 실기 위주의 수업이었고, 6세·7세를 기준 해서... 안전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연구자 : 혹시 선생님 영아 안전교육 관련해서 연수 들어본 적 있어요?

B교사 :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영아가 아니더라도 안전교육과 관련 연수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B교사 : 아 그거는 이제 받아봤어요, 성폭력이랑 아동학대랑 심폐소생술

<B교사 면담 중, 2017, 2, 16>

연구자 : 안전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해요, 원내에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A교사 : 원에는 안전교육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침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연구자 : 안전교육 수업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교사 : 원에는 안전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주로 수업을 해요, 그림으로 된 이야기 나누기 자료예요,

<A교사 면담 중, 2017, 2, 16>

연구자가 제시했던 자료 외에 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내용을 추가 하여 살펴보았다. 실제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영아 안전교육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추가 하였다. 또한 영아는 연령별로 그 발달 특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별로 구성되어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연령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 구성을 위해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기존에 안전교육의 내용 영역이 유아에게 편중되어 영아의 연령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아를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찾아보고,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연령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선정하고, 영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교사는 새싹반의 안전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교사는 협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가까워지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열심히 참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차 많아지는 관련 문헌 자료와 개선 방안에 부담감을 느끼며 교사 스스로 이 많은 과정을 모두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효율적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한 환경 조성’,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활동 및 교재교구 고안’, ‘다양한 안전교수학습 방법 적용’이라는 실행의 전체 방향을 연구자와 교사간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각 실행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 및 개선 방안은 실행단계에서 연구자와 교사간 재협의를 통해 함께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1차 실행

: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

1) 문제점 인식 및 실행 계획

H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나 한부모 가정과 같은 사회보호대상자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입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아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로 하루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영아의 하루 일과 중 가정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영아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와 교사는 효율적인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실행 중 가장 우선으로 영아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교사는 영아반의 경우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할 때 특히 ‘가정과 같은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과 함께 ‘영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이러한 목표에 따라 환경 구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안한 환경’, ‘가정과 같은 환경’, ‘안전한 환경’이라는 정확히 개념이 잡히지 않는 모호한 의미 때문에 어떻게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부담을 갖게 되며, 학기 초나 생활 주제가 바뀔 때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져 왔다고 이야기 하며, 안전한 환경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협의회를 통해 안전한 환경으로의 재정비를 위해 교사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앞으로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활동은 무엇이지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협의해 보았다.

연구자-교사 회의록	
일 시	2017년 2월 21일
장 소	H어린이집 도서실
참 여 자	연구자, A교사
회의록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실내외환경 및 보육실 안전점검 : 연구자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보육실 환경 배치도 그리기 : 교사가 환경배치도와 배치 이유 작성 - 어린이집 실내외환경 및 보육실 안전점검 하기 : 연구자, 교사가 각자 체크 후 세부사항 기록 - 보육실 환경 구성과 관련된 참고 자료 : 연구자가 관련 자료 준비

연구자는 영아를 위한 안전한 교육적 환경 제공을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살펴 본 뒤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교사와 함께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현재 H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을 점검하고자 각 시군도 별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보육시설 점검 지표 중 안전에 관련 된 부분을 발췌하여 연구자와 교사가 각자 점검을 실시하였다. 보육시설 점검 지표는 I. 건강영역, II. 급식관리, III. 위생관리, IV. 안전관리, V.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I. 급식관리, III. 위생관리, IV. 안전관리 영역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각자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함께 상의해 봄으로써 연구자와 교사간 시각의 차이를 줄이고, 교사 스스로 실내외 시설에 대해 지표에 따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환경을 다시 둘러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환경 점검을 위해 사용한 보육시설 안전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보육시설 안전 체크리스트

II. 급식관리

지표	관찰 내용	평가(V)			비고
		우수	보통	미흡	
3. 식단 및 영양 관리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	(2)	(1)	(0)	
	②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2)	(1)	(0)	
	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며,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된다.	(2)	(1)	(0)	
	④ 특별한 음식(식물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4)	(2)	(0)	

III. 위생관리

지표	관찰 내용	평가(V)			비고
		우수	보통	미흡	
8. 시설·비품 위생	①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세면실)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2)	(1)	(0)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2)	(1)	(0)	
	③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2)	(1)	(0)	
	④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 컵, 컵받침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4)	(2)	(0)	
	⑤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2)	(1)	(0)	

IV. 안전관리

지표	관찰 내용	평가(V)			비고
		우수	보통	미흡	
9. 물리적 환경 관리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4)	(2)	(0)	
	②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 수도와 경수기 등에 항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2)	(1)	(0)	
	③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2)	(1)	(0)	
	④ 화재 등 긴급 사안을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2)	(1)	(0)	
10. 인적 환경 관리	①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2)	(1)	(0)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1)	(0)	
	③ 영유아 등하선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1)	(0)	
11. 차량 안전 관리	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1)	(0)	
	②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벨트 및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2)	(1)	(0)	
	③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숙달하여 숙지(통학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하고 있다.	(4)	(2)	(0)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본 결과 ‘식단 및 영양관리’, ‘시설·비품의 위생’, ‘인적 환경 관리’, ‘차량안전 관리’는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관리’에서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에서 연구자는 미흡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는 우수로 평가하여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지표 영역은 안전관련 서류 점검과 현장관찰을 겸하여 평가

하는 반면 실내외 놀이안전 장치 및 놀잇감에 관련한 부분 관찰을 통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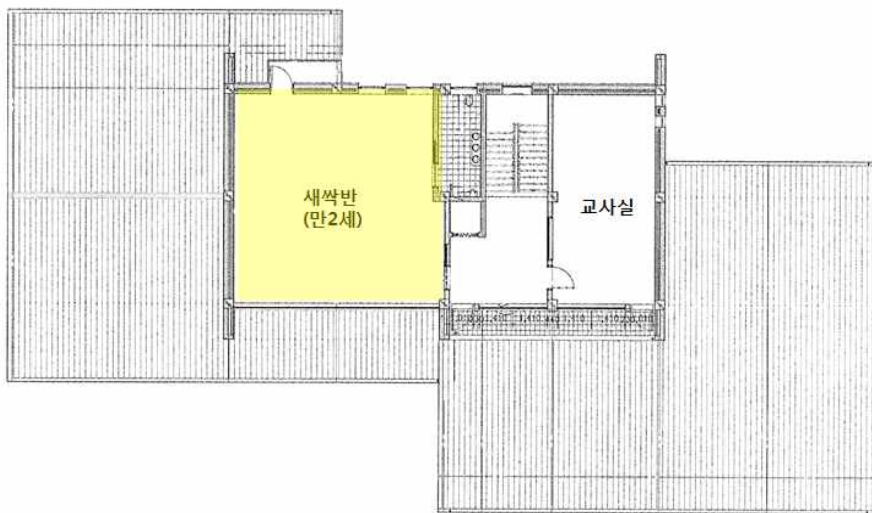
연구자와 교사가 같은 환경을 둘러보았지만 평가자간 지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범위의 차이가 나타나 함께 원내 환경을 둘러보고 함께 환경을 점검 한 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우선 전체 실내외 설비부터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등하원시 영아와 학부모들이 출입하는 출입구와 현관문을 살펴보았는데, 현관은 돌출되는 곳이 없이 문턱이 없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영유아의 통행에 방해 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현관문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닫혀져 있으며, 영유아 등하원시 출입문 옆에 벨을 눌러서 원장실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폰으로 확인 후 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잘 관리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관을 들어서면 1층에 원장실, 도서실, 식당, 만 1세반, 만 3세반이 복도로 이어져 있는데 복도는 너비 최소 150cm에서 최대 263cm로 영유아 충돌 방지를 위해 최소한 성인 2명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 갈수 있는 너비를 확보하고 있었다(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5). 그리고 복도와 이어지는 교실문은 안전손잡이로 되어 있거나 손끼임 방지가 되어 있어서 영유아가 문틈이나 문틀 사이로 손이나 발이 끼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보육실은 총 4개로 되어 있으며, 만 0세에서 만 3세로 총 4개반으로 구성 되어있다. 작년까지는 0세에서 만 4세반까지 구성 되어 있었으나,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상 학부모의 요청으로 이번 학년도에는 영아반을 분반하여 2반으로 늘리고 만 0세에서 만 3세반까지로 반 구성이 변경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만 0세에서 만 3세반은 1층을 사용하고, 만 4세반이 2층을 사용하던 기존 보육실 운영에서 만 0세, 만 1세, 만 3세반이 1층을 사용하고, 만 2세반이 2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내 보육실 구성이 바뀌게 되었다. H어린이집의 층별 배치 및 새싹반의 변경된 교실 위치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새학기 반 구성 전 어린이집 내 새싹반 배치도(1층)



새학기 연령별 인원 및 반 구성 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새싹반 배치도(2층)



[그림 10] H어린이집 층별 반 배치도

새싹반의 교실 배치가 1층에서 2층으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에 대해 원장과 교사도 우려하고 있었지만, 어린이집의 반 구성의 변화와 연령별 보육인원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는 연구기간 중 2층으로 영아반을 옮기는 것에 대해 연구자에게 도움을 구하며, 영아반이 2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해 혹시 발생하게 될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함께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원래 영아반은 1층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만 4세반이 없어서지고, 만 1세와 만 2세반이 인원이 늘게 되면서 교실과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직 기저귀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특히 만 2세는 배변 훈련이 시작되서 화장실에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 지고, 화장실 한곳에 너무 많은 영아가 몰리게 된거예요, 그래서 교사들과 원장님이 상의 끝에 교실 옆에 화장실과 샤워설비가 있는 2층을 만 2세반이 사용하기로 했어요,

(중략)

저도 사실 영아반이 2층을 사용하는게 처음이라 이게 맞는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2층도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같이 연구해 보면 안될까요?(웃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A교사 면담 중, 2017. 2. 23>

저도 알고 1층에 영아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화장실 사용문제도 있고 만 2세반을 합반해서 인원이 늘다보니까, 기존의 보육실이 작아서 도저히 안되겠다라고요, 그래서 보육실 크기가 큰 2층에 기존 만 4세반을 새싹

반(만 2세반)이 사용하는 걸로 했어요. 큰반이 사용하던거
라서 교실도 크고 화장실도 따로 교실 안쪽으로 붙어 있어
요,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는 하는데, 그 계단은 등하원시만
이용하면 되고, 거기는 만 2세반 이용하니까 괜찮을것 같아
요.

<원장 면담 중, 2017. 2. 23>

교사는 2층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는 큰 교실을 사용하게 된 것
이 어쩔 수 없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2층으로 이
동하다가 영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교사는
영아가 원내에서 처음으로 계단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나
타내며 연구자와 함께 안전한 계단 사용을 위한 방법을 찾아 보기를 제안하
였다. 이에 연구자는 추후 활동을 통해 계단 안전을 점검하고, 교사와 함께
계단을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활동을 계획해 보기로 하였
다.

연구자와 교사는 면담 및 회의를 통해 함께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문제들
을 도출해 내고, 문헌 연구를 통해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화 시켰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실행의 과정에 들어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문제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하기’를 선정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지금 현재 H어린이집 및 새싹반의 교육 환경 점검을 통해 안전 점
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내외 설비 및 보육실이 안전하게 구성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원내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의 유형을 알
아보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장소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하기의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1차 실행을 위해 진단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세부 실행
내용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1차 실행의 과정

1차실행	문제점 인식 ⇒ 개선방안	관련 활동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만 2세 영아에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 ⇒ 실제 사고를 되돌아보며 안전사고 예방하기	-원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분석하기 -사례를 통한 예방 대안 마련하기 -위험한 요인을 찾아 환경 개선하기
	교실을 이용하면서 환경 구성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이 발견됨 ⇒ 영아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교실 영역 배치 및 영역별 재배치 -영아용 교구장으로 교체 -비품과 교구 보호대 설치
	연령 구성 변경으로 영아반 교실이 2층으로 이동 ⇒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환경조성하기	-계단 점검 및 문제점 진단 -계단 통행 방법 수정 [안전활동계획 및 실행] ·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교실 환경과 관련하여 영아의 비안전행동이 관찰되지만, 안전교육으 로 이어지지 못함 ⇒ 일상생활 속 환경을 안전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 비안전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안전교육으로 실행 [안전활동계획 및 실행] · 올라가지 않아요 · 그대로 멈춰라

먼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및 계획’을 위해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내 환경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다음은 ‘실행의 과정’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보육실 구성 및 배치를 점검하고, H어린이집에서 3년 동안 실제 일어났던 사고를 분석하여 도출해낸 시사점을 중심으로 계획한 안전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평가 및 재계획’의 과정으로 교사와 연구자는 안전교육 활동 및 환경 개선을 하면서 협의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쳤으며, 활동 후 저널, 참여관찰,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반성적 평가는 다음 활동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졌다. 영아 안전교육

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 한 1차 실행의 과정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의 실행 과정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행과정을 계획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 관계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계획하여 보았다. 협력적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교사 간의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즉 협력적 실행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결론에 대한 보고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인 교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행과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협력적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교사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의 협력적 역할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김지혜, 2011; 유기웅, 2012; 김정숙, 2012; 구정숙, 2016).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전한 환경 구성하기에 대한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은 다음 표 36

과 같다.

<표 36>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표

연구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환경점검표 제작하기 • 환경구성 관련 자료 제공하기 • 원내 안전사고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환경점검표 문항 검토하기 • 교실내 영역 배치 및 환경 구성 • 원내 안전사고 자료 수집하기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환경점검표를 활용한 실내외 환경 점검 •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안전교육계획안 작성하기 • 영아 관찰 및 교사협의회, 교사면담 하기 • 반성적 저널 작성하기 	

2) 실행의 과정

(1) 영아에게 안전한 생활의 장(場)으로서의 환경

① 실제 사고를 되돌아보며, 안전사고 예방하기

영유아기 안전사고 중 만 1세 만 3세사이인 걸음마기에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사고 중 45%로, 영유아기 안전사고 중 대부분의 사고는 걸음마기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정재경 외, 2015). 만 2세는 발달 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고 신체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 서기, 걷기, 빠르게 이동하기가 가능해 지는 반면 신체기능이 발달이 미숙하고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

계를 알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들에게 안전사고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사는 영아반을 맡으면 영아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특히 주의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며, 영아는 언제 어떤 순간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로 영아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야 함을 설명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영아반 교사가 영아반을 맡으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임을 이야기 했다. 이에 연구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혹시 발생 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에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 했던 실제 사고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활동을 교사에게 제안하였다. 영유아 사고는 발달 특성 상 사고의 유형이 반복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기록지와 안전점검표, 일지 등의 기록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앞으로 일어 날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기로 하였다. 실제 사고 사례에 따른 환경구성의 유의점은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실제 사고 사례에 따른 환경 구성

유형	실제 사고 사례	환경구성 시 유의점	장소
오르기	·교실 밖을 내다보다 창틀에 부딪힘 ·책상을 밟고 교구장에 오르다 다침	→ ·교실 창틀이나 교구장 옆에 책상이나 의자 등 밟고 올라 설 수 있는 비품 정리	창가, 교구장
부딪힘	·뛰다가 친구와 부딪힘 ·놀이를 하다가 교구장 모서리에 부딪힘	→ ·모서리 보호대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바닥에 매트 깔기	교구장

손끼임	·교실 문을 열다가 문틈에 손이 끼임 ·경첩이 있는 장난감 썩크 대 문을 닫다 손끼임	→	·손끼임 방지 부착 ·문이 있는 장난감이나 장애 보호대 설치	보육실문 보육실내 썩크대
미끄러짐	·계단을 오르다 넘어짐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 지며 엉덩이를 계단에 부 딪힘	→	·계단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 부착 ·영아용 난간 부착	복도 계단

연구자와 교사가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실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았으며, 교구장이나 문 등의 비품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찰과상이 가장 많이 일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교실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서리 보호대 추가 설치를 제안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각자 실시한 안전점검표를 통한 환경 점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교실 내 안전설비에 대한 부분이었다. 교사는 교실 내 환경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반면, 연구자는 모서리나 출입문 등에 모서리 보호대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존에 옷장이나 교실문에는 모서리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교구장과 화장실 출입문, 벽면에 각진 부분을 발견하고 모서리 보호대가 추가로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살펴 본 결과 모서리 보호대가 없는 부분이 발견 되었고, 설치가 되어 있으나 길이가 영아의 키보다 짧아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연구자 :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거 체크해서 주셨잖아요? 저한테,
모니터링 할 때 안전에 대해 보는 지표에서요,

A교사 : 아, 네,

연구자 : 거기서 보면 선생님도 실내에서 모서리라든지 등 실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항목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는 안주셨죠?

A교사 : 네 그 모서리가 지금은 다 덜 된 부분도 있어서

연구자 : 네, 저도 보면서 '몇 군데 저곳 모서리 보호대 하면 좋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보호대랑 같이 선생님이랑 저랑 좀 안전장치가 보충되어야 하는 곳을 체크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저희 모서리 보호대는 더 있나요?

A교사 : 네, 아마 있을 거예요,

<A교사 면담, 2017. 3. 15>

또한, 교사는 교실 내에 역할영역에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 모형장을 위험요소로 지적하였다. 냉장고와 세탁기 모형장도 작년 유아반에서 사용했던 역할 교구장으로 높이가 높고, 교구장에 달려 있는 나무문이 쉽게 닫혀서 손이 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역할 교구장을 교실에 계속 구성 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문을 때어 낼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역할장의 문을 모두 제거하기로 하였으나 영아들이 역할영역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고, 문을 제거하면 냉장고와 세탁기 모형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B교사 : 저기에도(역할영역 냉장고를 가리키며) 근데 은근 위험하
더라고요, 원래 저기에 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에
소꿉놀이 장난감을 다 빼두었어요.

연구자 : 아 저기 열고 닫기는 거, 그럼 저것도 유아반에 있던건가요? 조금 높네요?

B교사 : 네, 원래 저 냉장고가 유아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문을 닫는 경첩이 꼭 닫히게 되어 있어서 손이 끼일 것 같아요.

연구자 : 손끼임 방지를 위해 뭘 해야겠네요.

B교사 : 저 모서리 보호를 하던지... 약간 저기 약간 가드를 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B교사 면담, 2017. 3. 9>

연구자 :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던 것 중에 냉장고와 화장대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을 떼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문을 안 떼고 너무 세게 안 닫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었는데...

A교사 : 그게 속도를 조절하려면 나사를 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자 : 아마 꼭 맞물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이 다 칠까봐?

A교사 : 그런 것도 있고 ... 지금 냉장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높아서 혹시 머리가 부딪힐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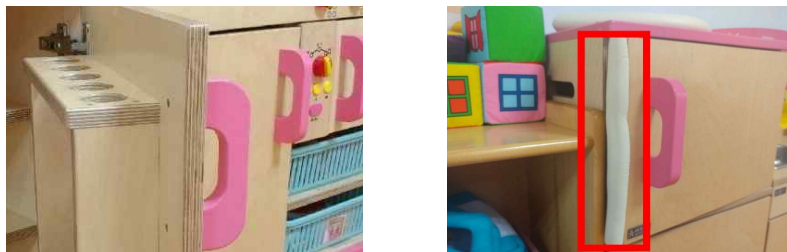
연구자 : 그러면 문을 빼기 전에 냉장고 밑에 우리 모서리 보호대 달 거니까 그런 걸 한 번 달아볼까요? (중략) 한 번 그럼 냉장고는 (보호대를) 달아보고 안되면 두 가지 방법은 문을 아예 떼던지 아예 밖으로 빼던지 인데 이걸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서랍을 다 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야기 했었는데 문 다 떼면 그 모양이 다른 교구장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서요.

A교사 : 네, 애들이 (냉장고 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문이 없으면...

<A교사 면담, 2017. 3. 15>

연구자와 교사는 역할영역에 냉장고와 세탁기 모형장의 문이 세계 닫혀서 영아의 손이 끼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 안쪽으로 백업을 이용하여 닫힘 및 손끼임 방지 보호대를 설치 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는 모서리와 역할장 외에 교실 설비 중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았다.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교실 내에 위험 요소를 살펴본 결과, 영아용 사물함의 일부를 교사가 사용하고 있어서 교사 물품이 있는 부분은 영아가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걸음마의 시기로 균형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넘어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교구장에도 모서리를 씌워서 안전하게 마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새싹반 교실 문, 화장실 문, 화장실 입구의 벽면 모서리에 영아의 키를 넘도록 100cm정도 까지 모서리 보호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구장과 책상은 영아용 책상으로 모서리가 뽀족하지 않지만 부딪힘 사고 시 찰과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EVA(압축 고무판)를 얇게 잘라서 모서리 부분에 안전띠를 부착했다. 그리고 교사용 사물함과 서랍에는 안전고리를 부착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 하여 교실 내에 환경을 개선 한 모습은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냉장고 문 손끼임 방지 설치



문틀 손끼임 방지 설치 및 보수



모서리 보호대 추가 설치

[그림 12] 새싹반의 교실 환경 개선 모습

② 영아를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 만들기

영아를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사는 교실 내에 영역 배치를 점검하고 교실 내 환경에 대해 안전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영유아교육시설 내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실이다(소비자보호원, 2012). 교실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무는 곳이며,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연구를 들어가기 이전부터 교실 내 영역 배치 및 환경 구성에 대해 어려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교사 역량 중 약한 부분으로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먼저 A교사와 B교사가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여 교실 내 영

역을 배치해 보도록 하고 연구자가 추후에 방문하여 교실 내 영역을 살펴보았다.

교실 내 영역은 정적인 영역인 언어· 탐색영역과 동적인 영역을 쌓기·역할·음률·신체영역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미술영역을 화장실 옆으로 배치시켜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잘 배치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 간 구분을 위해 교구장으로 영역을 분할하여서 교사가 교실의 측면에 섰을 때는 영아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연구자 : 지금 환경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2주일쯤 지나서 영아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것이나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서만 2세 반 환경 구성하면서... 뭐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 없었어요?

A교사 : 저희 교구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작년 영아반은)원래 낮았거든요?

연구자 : 아 교구장 이거는 유아반 교구장이네요, 교구장이 높다 보통은 두 단짜리여도 이것보다 낮죠?

A교사 : 이걸 낮은 거, 이게 제일 높은 거 예요, 저게 지금 이게 조금 낮은 건데 지금 벽이 안 막혀 있어가지고(교구장 뒷면), 바퀴도 달려 있어서 고정도 안되고... 교구장 몇 개는 원래 작년 유아반이 쓰던 장이에요,

연구자 : 유아반 것도 쓰고 함께 쓰고 있나봐요,

A교사 : 왜냐하면 저희는 영아반 두개 반이 한실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교구장이나 비품)이 조금 모잘라요,

연구자 : 그래 그러면은 일단 교구장이 너무 높으니까 배치하는

데 문제가 있겠네요?

A교사 : 네 조금 힘들었어요.

<교사면담, 2017. 3. 9>

A교사 : 그런 것 도 있고 저희 교구장이 높아서 아이들이 밀고, 넘어
올까봐

연구자 : 바퀴가 있고 또 이게 만 4세랑 5세가 썼던 거고, (중략)우
리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바퀴를 혹시 떼도 될까요?

A교사 : 떼면 저희가 청소하는 것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전한 측면에서 보면

연구자 : 영아반 교구장에는 바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환경
해서 애들이 교구장을 움직인다면 바퀴를 떼도 괜찮지 않을
까요? 원장님께 상의 드려보았는데, 원장님도 모르셨대요.
(중략) 상의 드렸으니, 교구장을 어떻게 할 지 저희가 결정
해야 할 것 같아요.

A교사 : 고정하거나 떼어내야 할 것 같아요.

<A교사면담, 2017. 3. 28>

새싹반 교실은 작년에 유아반이 사용하던 교실이었고, 올해는 만 5세 유
아반이 없어지고 영아반이 두반씩 늘어나다 보니 영아반에 교구장이 부족하
여 유아반에서 사용한 교구장 중 높이가 낮은 교구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뒤쪽이 막히지 않은 유아용 교구장과 높이가 서로 다른 교구장
들이 교실 환경 배치에 사용되게 되었다.

연구자는 교사가 이야기한 불편 사항을 함께 개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교사와 함께 영역에 있는 교구장의 높이를 최대한 맞춰서 영역을 구성

할 수 있도록 영역별 교구장의 위치를 바꿔서 배치하고 교구장 뒷면이 막히지 않은 유아용 교구장은 바구니나 교구가 뒷면으로 흘러내려가 영아가 교구를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실 벽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실의 측면과 정면에 서서 교사가 보았을 때 교구장이나 비품으로 인해서 영아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새싹반은 교실 문 입구에서 왼쪽벽면으로 실외놀이터와 텃밭이 보이는 창문이 길게 나 있어서 환풍이 잘되며, 창가 가장자리에 채광이 잘 드는 곳에 탐색영역 책상이 배치되어 식물 관찰을 위해 화분이 놓여져 있으며, 언어영역과 함께 휴식영역이 구성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실벽 전면으로 창이 있고 창밖에는 실외놀이터가 보이다 보니 영아들이 창밖에 실외놀이터를 살펴 보기 위해 탐색영역 책상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B교사 : 아이들 목소리가 크니까 밖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나오면 놀이 하는 소리가 조금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놀이하는 모습을 쳐다보려고 창문에 매달려요,

연구자 : 창가에 매달려서 창밖을 내다본다는 건가요? 아이들 키에는 창문이 높을 것 같은데...

A교사 : 그러니까 매달리거나 교구장에 올라 갈려고 하는거예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특히 저기 탐색영역에 관찰 책상을 뺏고 올라서서 밖을 내다 봐요, 책상 위에 화분이란 탐색 교구가 올려져 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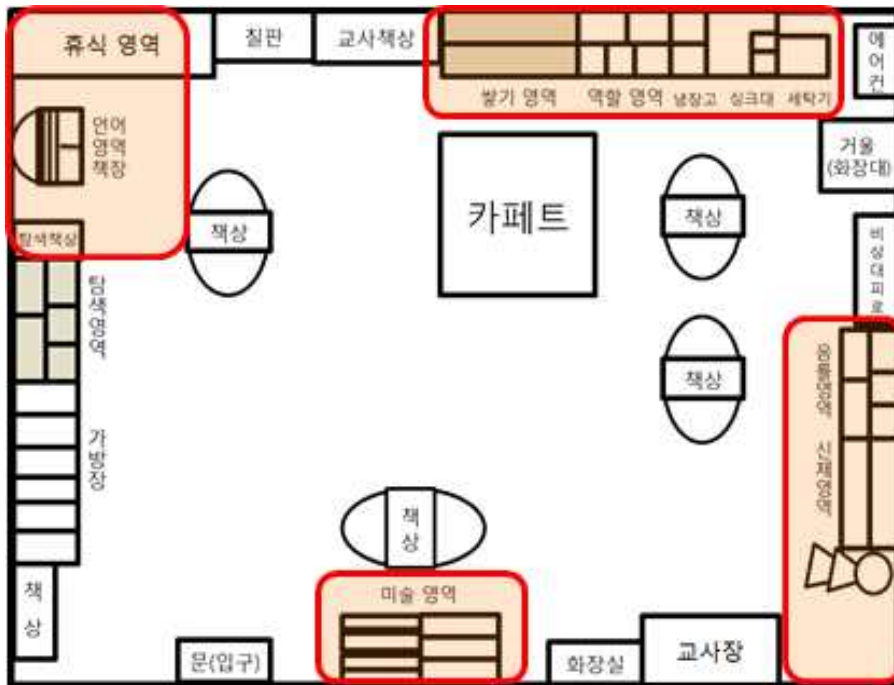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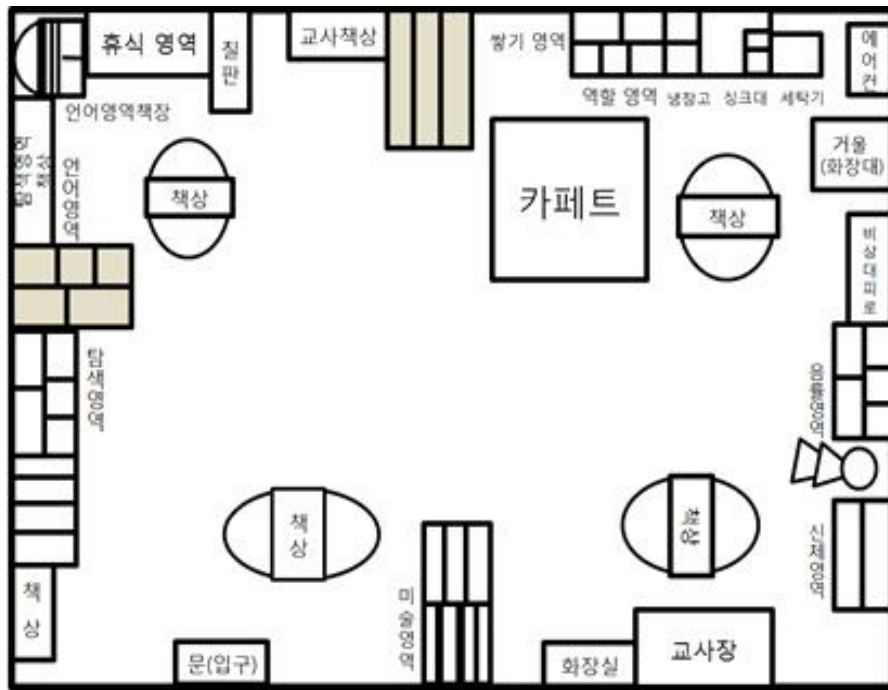
<교사협의회, 2017. 3. 9>

교실 내에 창문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영아들이 창밖을 보기 위해 매달리거나 물건을 딛고 올라가는 경우 위험할 수 있었다. 먼저 창틀 난

간을 가리기 위해 창틀까지의 높이에 맞는 교구장을 벽면으로 설치하고, 탐색영역의 관찰을 위한 앉은뱅이 책상을 밟고 창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창가에서 떨어트려서 배치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교실내 영역 배치 및 환경 구성에 대해 회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실내 교구장은 영아의 키보다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높이가 같은 교구장으로 영역을 구성한다.
- 영아반 교구장은 바퀴가 없는 것으로 하고 바퀴가 있는 교구장을 고정대를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교구장을 벽쪽으로 배치하여 영아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영역 구성으로 인해 폐쇄된 공간이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 창가에 매달리거나 밟고 올라갈 만한 비품을 두지 않는다.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협의한 활동영역 배치 기준에 따라 영아의 키보다 높은 교구장이었던 탐색영역의 2단 교구장 1개와 쌓기영역의 3단 교구장 1개를 없애고, 다른 교구장과 높이가 같은 2단 교구장을 쌓기영역에 배치하였다.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구장을 벽 쪽으로 배치하고, 바퀴가 있는 교구장은 교구장 밑에 고정판을 놓아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였다. 또한 음률영역과 신체영역 사이에서 있던 공놀이 영역을 신체영역 끝으로 이동 시켜 공놀이를 하는 영아에게 활동이 방해 받거나 부딪히지 않게 하고, 음률영역과 신체영역 교구장을 붙여 유사 흥미영역이 통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교실 내 흥미영역 및 공간 배치를 개선한 새싹반의 교실 배치도는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변경 전·후 새싹반 배치도

(2) 효율적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환경

①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환경 조성하기

영아 안전사고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교사가 사전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Berman & Former, 1991).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 되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위험 상황을 줄여나가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이영환 외, 2016). 연구자와 교사는 함께 환경을 점검 하는 과정에서 교실이 2층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어린이집에 연령별 운영계획의 변화로 인해 영아가 생활하는 환경이 변한 만큼 그에 대한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참여관찰 및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계획을 교사와 함께 논의하게 되었다.

교사는 2층으로 교실을 이동한 것으로 인해 혹시 영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영아가 원내에서 처음으로 계단을 사용하여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만 2세 영아의 계단 사용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교실을 옮기는 것을 찬성 했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며, 영아의 계단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이에 연구자는 계단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위험한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제 영아가 계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 한 뒤, 개선 사항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저도 사실 영아반이 2층을 사용하는게 처음이라 이게 맞는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역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영아들이 계단을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작년 만 1세반 끝날 무렵에는 손잡이를 잡고 계단에 잘 올라 갔거든요.

<A교사 면담 중, 2017. 2. 23>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계단은 출입문 바로 옆 복도에서 2층 새싹반 교실까지 중간 사이 층을 두고 이어져 있었으며, 높이 20cm이하 폭 25cm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다만 올라가는 방향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려오는 방향으로는 손잡이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서 계단을 내려 올때 영아가 잡고 내려 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원장 및 교사와 협의를 거쳐 계단의 내려오는 쪽 벽면으로 안전 손잡이 부착을 시도 하였으나, 내려오는 계단 부분의 벽면에 사용 된 자재가 손잡이를 부착할 수 없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잡이를 추가로 부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바닥에 우측통행을 나타내는 양방향 발자국을 떼고 손잡이를 중심으로 계단을 오를 때 우측통행으로, 내려 올때는 좌측통행으로 계단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1-2층을 이어주는 계단은 그림 14와 같다.



내려가는 방향 계단



올라가는 방향 계단

[그림 14] 환경 개선 전 1-2층 연결 계단

손잡이가 있는 방향으로만 통행을 하다보니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였지만 2층은 만 2세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반과 이동이 겹치는 경우가 없어서 별 다른 문제 없이 계단의 이용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다.

연구자 : 애들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왜 '손 허리' 를 하고 내려와요?

B교사 : (생략) 제가 이제 뛰지 말라고 한 게... 너무 말을 해도 뛰니까 교실에서는 이제 걸을 때 '손 허리' 를 하고 걸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혼동이 된 것 같아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아이들이 뛰면 안 되니까 제가 '손 허리' 하고 걸어보자라고 자주 하니까 계단에서 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는 '손 허리' 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뭐 안전교육에서도 걸을 때 '손 허리'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절교육인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교수님께 한 번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자 : 예절교육으로 손을 허리에 놓고 걷는 것은 복도에서 천천히 조용히 걸어야 하고 벽면을 만지거나 손으로 건들면 부딪히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손 허리 하고 걷는다면... 우리가 애들보고 장난감 들고 걷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장난감을 가지고 넘어지면 땅을 짚을 수 없고 장난감 때문에 다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손 허리' 를 하고 걷는 건 무방비 상태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턱이나 얼굴이 그대로 다치니까

B교사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연구자 : 아이들이 걸음마를 완전히 떼 지 얼마 안됐고, 아직 중심을 잘 못 잡는데 이동을 할 때 손을 허리에 대고 걷는 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B교사 : 그럼 기차로 해도 안되죠?

<교사면담, 2017. 5. 8>

위의 사례를 통해 연구자와 교사는 안전한 계단 사용을 위해 계단의 환경 개선 뿐 아니라 계단을 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라는 주제로 교사가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전교육활동 해 볼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교사는 계단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로 계단에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걸어 올라가고 있는 그림과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지는 그림 자료를 준비하고 영아들과 함께 그림자료를 보며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실제로 계단이 있는데 왜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자료와 같은 간접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였는지를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안전교육 수업으로 먼저 계단에 대해서 배우고, 나중에 계단을 이용 할 때 다시 이야기 해주려고 했어요. 계단에서 수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교사협의회, 2017. 5. 12>

교사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을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한다.’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안전교육은 안전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영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연구자는 안전교육활동이 정형화된

교육의 방식 및 형태를 벗어나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의 방향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활동은 이야기나누기의 연계 활동으로 실제 계단을 이용하면서 영아들과 함께 손잡이를 잡고, 한명씩 천천히 이동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계단이 시작되는 벽면에 부착하여 영아들이 계단으로 이동시 사진을 통해 안전하게 계단을 이동하는 방법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계단 벽면의 모습은 그림 15와 같다. 또한,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활동에 대한 안전교육활동계획안은 부록 B-1-1에 제시되어 있다.



1층 계단 벽면



2층 계단 벽면

[그림 15] 계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계단 이용하기에 대한 사진 게시물

② 일상생활을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H어린이집의 안전교육 활동은 매주 1회씩 화요일 오전에 수업일과에 따라 각반에서 따로 진행 되었다. 원내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매주 화요일 주 1회 실시되며, 매달 1회 소방대피 및 재난대피 훈련이 있는 주에는 주 2회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새싹반의 영아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순간 순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전

교육은 연간 주제에 맞춰서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약품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교육’, ‘대인안전교육(성폭력 및 유괴실종,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계획되어 특정한 날에만 교육되고 있었다. 실제 영아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제에 얽매기 보다는 실제 영아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의 주제를 찾아서 활동을 계획해 보기를 제안하였다.

‘계단에서 안전하게 걸어요’ 라는 활동을 통해 해보았다. (중략)
계단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후 영아들과 직접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 보는 훈련을 해보았다. 평상시 이용하는 계단이지만, 이야기 나누기 후 함께 직접해보는 활동에 영아들도 무척 재미있어 하며 교사의 시범을 보고 진지하게 따라서 계단을 따라 걸어오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영아들과 함께 안전한 행동을 직접 경험해보고 익혀 볼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면 좋을 것 같다.

<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해요’ 교사저널, 2017. 5. 12 >

교사도 일상생활에서 영아들이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안전교육활동 계획 시 영아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한 태도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먼저, 만 1세반에 비해 넓어진 교실로 인해 교실 안을 뛰어 다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대로 멈춰라’라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그대로 멈춰라’의 안전활동계획안은 부록 B-1-3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교사가 교실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촬영을 했다며 연구자에 교실 내 위험 상황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다음 그림 16은 교사가 연구자에게 보여준 사진의 일부이다.



쇼파에 올라가기



장난감 위에 올라가기



교구장에 매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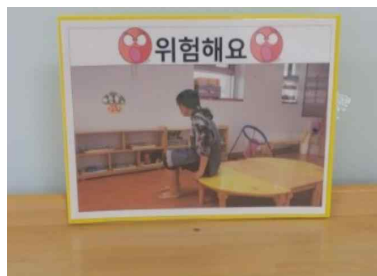
창문에 올라가기

[그림 16] 교실내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 사진

영아들은 창가에 있던 앉은뱅이 책상 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 있는 책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교실장이나 쇼파, 책상 등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블럭이나 책등의 교구를 쌓아서 밟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친구보다 높은 곳을 보거나 친구보다 눈높이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키가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영아의 행동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창가에 쇼파와 앉은뱅이 책상 등을 배치하지 않

는 등의 환경 배치의 변화와 함께 위험한 행동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교육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의 위험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함께 그외에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과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관련 자료를 교실에 게시하였다. 다음 그림 17은 위험한 행동을 알리는 사진과 관련 자료를 교실에 게시한 모습이다.



위험해요 사진 자료



위험해요 사진을 보는 영아

[그림 17] ‘위험해요’ 사진과 사진을 보고 있는 영아 모습

영아들은 게시물에 관심을 보이며, 교구장이나 책상에 오르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친구가 책상에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던 영아들도 “그렇게 올라가면 안된데”라며 책상이나 교구장 등에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연구자가 보았을 때 잘못된 행동을 알림으로써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올바르게 안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교사와 협의하여 영아에게 책상이나 교구장을 이용하는 올바

른 모습을 알려주고 사진으로 촬영하여 올바른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함께 게시 하였다. 다음 그림 18은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과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행동이 있는 모습을 함께 게시한 모습이다.



[그림 18]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과 위험한 모습이 있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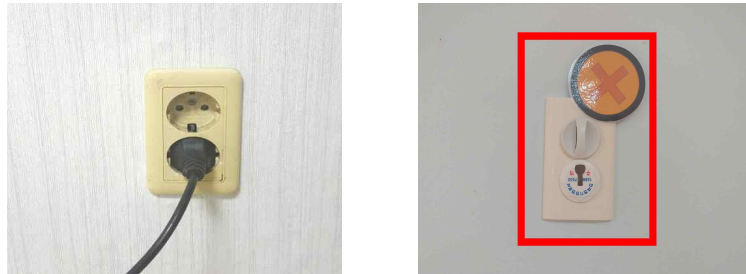
수진 : 야 이거 엑스야 엑스(손으로 X표시를 하며)

슬기 :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되요.(그림을 가리키며)

수진 : 의자에 이렇게 앉아야지.

<언어영역, 2017. 5. 12>

위 사례처럼 영아들은 게시되어 있는 그림 외에 O, X표시에 관심을 보이며, 바람직한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O, X표시를 이용하여 영아들과 함께 ‘위험해요. 만지지 말아요.’라는 수업을 계획해 보았다. 교실내에 영아가 만지지 말아야 하는 위험한 장소나 물건을 찾아보고 X표시를 부착하여 영아들이 위험한 장소나 물건을 알아보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보았다. 다음 그림 19는 교실내에 위험한 장소나 물건을 영아가 만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부착해 놓은 모습이다.



[그림 19] 영아가 만지지 않도록 부착 표시를 한 모습

3) 실행의 평가 및 재계획

연구자와 교사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하기’를 목표로 하여 협의의 과정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해 보았다. 먼저, H어린이집 및 새싹반의 교육 환경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내외 설비 및 보육실이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원내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의 유형을 알아보고 실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장소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보았다. 이렇게 구체화된 문제점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보육실 구성 및 배치를 점검하고, 실제 사고를 분석하여 도출해낸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장치 부착 및 시설 보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교실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안전상황을 안전교육 활동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여 보았다. 이러한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안전문제를 안전교육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영아의 비안전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다음 차시 영아의 안전교육에 내용에 대한 2차 실행에서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아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로 교사들은 학기초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항상 신경 쓰고 있었으며, 영아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준비된 안전한 환경에만 있다가 보면 영아 스스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항상 교사나 부모가 옆에서 24시간 지켜 볼 수 는 없으니까,.. 그리고 항상 교실이나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중략)

외국에서는 숲에 가서도 교육하고, 실제 어른들이 사용하는 도구도 사용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여러번 가르치겠지만,..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7. 5. 11. B교사>

교사들은 아직 성인의 보호가 많이 필요한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안전하게 준비된 환경만 제공하다 보면 혹시 영아 스스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안전한 환경구성과 함께 영아 주변 환경에서 스스로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해 보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영아의 수준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안전한 행동과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영아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다.

3. 2차 실행 :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 구성하기

1) 문제점 인식 및 실행 계획

연구자와 교사는 1차 실행에서 환경을 개선한 것에 이어서 개선된 환경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함께 협의해 실행해 나가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큼 영아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 교과는 교사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거나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효율적 영아 안전교육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교사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영아를 위한”이었다.

연구자: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은 무엇일까요?

A교사: 영아의 발달에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개념이 많이 있으면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연구자: 영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안전교육은 어떤 게 있었나요?

A교사: 재난교육 같은 경우는 영아들이 비나 눈은 알지만, 가뭄이라던지 홍수를 이해하는 건 어려웠던거 같아요.

연구자: 기존에 안전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A교사: 계획되어 있던 안전교육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영아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수업을 했어요, 수준을 많이 내려서요.

<A교사 면담, 4월 4일>

연구자 : 영아에게 하기 어려웠던 안전교육 주제가 있었나요?

B교사 : 저는 재난대비 같은 경우 영아들이 아직까지는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진자료에도 가뭄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영아들이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접하기 힘들니까 여기서(어린이집에서는) 경험하기 힘들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B교사 면담, 2017. 2.13>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활동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은 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과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들도 대부분 유아를 위해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영아반 교사들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느낄수 밖에 없었다.

B교사 : 아이들에게 생소한 물건이 나올때 어렵더라구요, 예로 난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물건이 뭘지~ 어떤 물건인지~

연구자 : 개념을 모르니까

B교사 : 어려워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때 조금 어려웠었고... 네 그런 생소한 물건에 대한 어려움?

연구자 : 아직은 개념 같은 걸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생소한 물건이 나오면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영아용 자료를 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β교사 : 아니요 유아반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구자 : 영아 수준에는...

교사 :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안전교육 자료자체가 조금
유아수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β교사 면담, 2017. 2.13>

H어린이집에서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안전교육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나 활동은 영아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자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영아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교재교구가 부족하다.
-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 영아의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안전교육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교사들은 기존의 안전교육의 내용이 영아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힘들었음을 지적하며 영아 수준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교사들은 영아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아의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계획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교사와 표준보육과정을 살펴보고 영아의 연령에 맞는 내용 범주를 고려하여 영아의 발달과 수준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을 함께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협의를 통해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의 내용 구성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을 함께 찾아 보았다. 연구자와 교사의 협의를 거쳐 계획한 2차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은 다음의 표 38과 같다.

<표 38> 2차 실행의 과정

2차 실행	문제점 인식 ⇒ 개선방안	관련 활동
	안전교육이 유아와 동일한 주제로 이루어져서 영아의 수준에 어려움 ⇒ 유아 안전교육 목표 설정하기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	-표준보육과정을 이용하여 유아발달 및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 목표 설정하기 -연간안전교육의 활동을 유아 안전교육 목표에 따라 목표 재설정하기
영아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 구성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 문제와 관련 없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짐 ⇒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생활안전교육하기 :기존안전교육활동과 함께 생활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행하기	[안전활동계획 및 실행] ·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 · 계단을 안전하게 이동해요 · 양치질을 해요 · 물면 안돼요 · 먹으면 안돼요 ·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요
	유아용 안전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교사의 교수자료로만 활용함 ⇒ 유아 안전교육 위한 교수자료를 교실내 교구로 활용하기	-영아 안전교육에서 사용한 자료를 그림책처럼 구성하여 제공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가 부족함. 영아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교구가 필요함 ⇒ 유아 안전교육 내용에 맞는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안전교재교구 제작 및 활용] · 양치를 해요(대집단) · 양치를 해요(영역 배치) ·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 · 문을 안전하게 사용해요

또한,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실행해야 할 과정과 연구자와 교사가 각자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여 다음 표 39와 같이 역할 분담표를 작성해 보았다.

<표 39>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표

연구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중 안전 관련 자료제공 하기 • 안전교육내용 관련 자료 제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안전교육계획표 작성하기 • 연간 안전교육활동에서 영아 수준에 맞는 활동 찾아보기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안전교육활동 분석하기 •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를 중심으로 연간 안전교육 목표 세우기 • 영아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 • 영아 안전교육교재교구 계획 및 제작하기 • 영아 관찰 및 교사협의회, 교사면담 하기 • 반성적 저널 작성하기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 실시한 실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 파악 및 계획’ 단계로 H어린이집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안전교육활동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영아의 수준에 적합한 안전교육 활동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음은 ‘실행의 과정’으로 영아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의 만 2세 수준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활동 계획하고,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모두 기를 수 있는 안전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만 2세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한 습관을 위한 생활안전교육을 함께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영아의 발달 및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교재교구를 함께 개발하고 적용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재계획’의 과정으로 교사와 연구자는 영아 발달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 활동을 하면서

협의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쳤으며, 활동 후 저널, 참여관찰,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반성적 평가는 다음 활동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영아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 구성하기에 대한 실행 과정은 다음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실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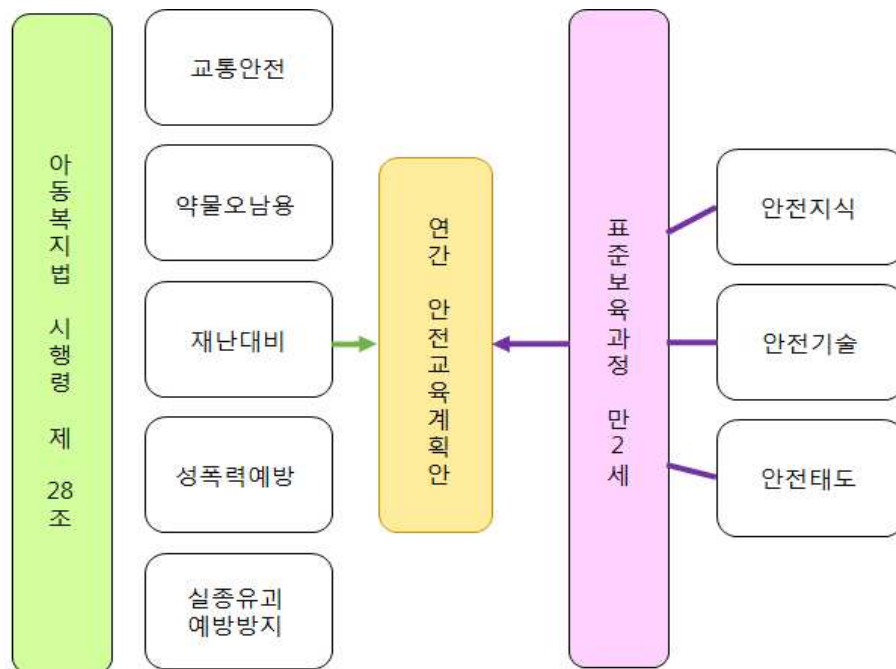
2) 실행의 과정

(1) 영아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 구성하기

① 영아 안전교육의 목표 설정하기: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

연구자는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교사와 함께 찾아볼 것을 제안하였다.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은 그동

안 많이 봐왔지만, 안전교육을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수준을 살펴 본적이 없었다면서 ‘기본생활습관영역’중 안전하게 지내기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해당 될 것 같아요.”라며 쉽게 연관된 부분을 찾아 내었다. 그동안의 안전교육은 연간안전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생활주제와는 연관 없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의 달성 수준은 연령별 영아교육과정인 2013년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만 2세 보육과정으로 기준을 잡고 설정하였다.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 중 안전교육의 내용은 기본생활영역에 포함되며, 기본생활영역 중 만 2세의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목적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알기’, ‘위험한 상황 알기’이다. 이러한 표준보육과정의 연령 수준별 세부내용에 따라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의 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계획한 활동의 개요는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간 안전교육활동 목표 설정하기

연구자는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에 안전 지식과 함께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에게 안전교육에 들어가야 할 교육요소로 ‘안전지식’과 ‘안전태도’, ‘안전기술’을 소개하였다.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가 스스로 안전한 생활 습관과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가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예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 그리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윤선화 외, 2010).

먼저 ‘안전지식’은 안전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써 기본적인 안전규칙과 안전한 상황의 특징 및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김영실 외, 2010), ‘안전태도’는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및 그에 따른 운동능력을 기르며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기술’은 안전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안전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인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영아기부터 습득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한 태도는 성인기까지 안전한 태도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Kendricks, Kaufmann & Messenger, 1988).

이에 연구자는 교사에게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고 함께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2017학년도 연간안전교육계획안의 활동에 따른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를 중심으로 한 목표를 세워 볼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만 2세 영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안전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를 안다.”, “-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등으로 관련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안전기술’과 ‘안전태도’에 대해서는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B교사: 교수님, 이게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지식, 기술, 태도라는 말이 어렵지요?

B교사: 기술이랑 태도랑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이면 될 것 같은데.

연구자: 맞아요. 안전지식은 안전 규칙을 아는 것,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B교사: 그럼 안전태도는요?

연구자: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건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태도나 습관을 기르는 걸 안전태도라고 해요.

B교사: 안전기술은 기술을 습득하는 건가요? 교통법규 익히기?

연구자: 안전기술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거예요. 손씻기 순서 익히기,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보고 건너기, 소방대피훈련 시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하기 같은거요.

B교사: 지식, 기술, 태도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바꾸면 안돼요?

연구자: 그럼 무엇으로 바꿔보면 좋을까요?

<B교사 면담, 17. 6. 5>

교사는 안전지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안전기술과 태도를 어려워해서 내용에 해당하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주었다. 또한 교사가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라는 용어를 어렵게 느껴서, 연구자와 교사는

협의를 통해 ‘안전지식’은 “안전한 것에 대해 알아요.”, ‘안전기술’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요.”, ‘안전태도’는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요.”로 개념에 따라 쉽게 풀어서 용어를 정리해 보았다.

H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이 동일한 안전교육계획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아의 수준에는 활동의 목표와 내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교사들은 영아의 수준으로 목표를 낮추거나 안전에 대한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들은 협의를 통해 연간안전교육계획의 활동을 영아의 수준에 맞춰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가 포함되도록 세부 목표를 구성해 보았다. 연간안전교육계획안의 세부 목표는 다음의 표 40과 같다.

<표 40> H어린이집의 연간안전교육계획안(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

안전교육 주제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	안전교육 영역
3월	고마운 불 무서운 불	불이 주는 이로운과 해로움을 안다.	불을 혼자서 사용하지 않는다.	불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소방안전
	버스를 안전하게 타요	버스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안다.	버스를 안전하게 탈 수 있다.	버스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
	따라가지 마세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위험함에 대해 알 수 있다.	유괴상황을 예측하여 대처방법을 실천한다.	유괴위험시 대처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소중한 우리 몸	소중한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안다.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다.	우리 몸의 소중한 부분이 어딘지 관심을 가진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원에서의 안전	교실과 실내에서 안전한 생활에 대해 안다.	교실과 실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한다.	교실,밖,복도,화장실 등의 안전한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생활안전
4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	화재대피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다.	신속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대피한다.	소방안전
	안전하고 즐거워 여행	자동차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안다.	자동차에서 안전 약속을 지킨다.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위험성에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을때 도움 요청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길을 잃었을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할 수 있다.	길을 잃었을 때 도움 요청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좋은음식, 해로운음식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과 해롭게 하는 음식을 알 수 있다.	내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다.	해로운 음식과 좋은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자연재해란 무엇일까요? 1	자연재해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예방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재난재비
5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 신고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불이 날 때 신고할 수 있다.	화재 신고 요령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소방안전
	무슨 표시 일까요?	교통 표지판에 대해 익힌다.	교통 표지판을 알고 지킨다.	교통 표지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
	함부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실종 유괴 예방 방지
	색이 비슷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는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6월	재난재해란 무엇일까요? 2	자연재해의 현상과 그 위험성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재난재비
	놀이터에서의 안전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지킬 수 있다.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생활안전
	놀라지 마세요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	교사를 따라 안전하게 대피한다.	대피시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소방안전
	낮선 사람	낯선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섭게 생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황극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낯선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진다.	실종 유괴 예방 방지
	입에 넣지 않아요	장난감 등 입에 넣으면 우리 몸에 해로움에 대해 알 수 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여름이 왔어요	물놀이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 수 있다.	물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안전하게 행동한다.	물놀이 안전규칙에 관심을 가진다.	재난재비 안전교육
	우리 몸의 명칭	우리 몸의 명칭에 대해 안다.	소중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몸의 명칭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7월	멈춰요,얼드려요,핑글어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을 기억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소방안전교육
	비오는 날은 위험해요	비오는 날의 위험을 안다.	비오는 날의 보행안전을 실천할 수 있다.	비오는 날의 옷차림과 보행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병원에 갔어요	아픈 증상에 따라 병원을 다르게 가야 함에 대해 알 수 있다.	아픈 증상에 따라 병원에 갈 수 있다.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간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아가야 뭐하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다.		아가 태어나는 과정을 관심을 가진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비오는 날의 안전	비오는 날의 위험성에 대해 안다.	우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우산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옷차림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생활안전교육
8월	옷에 불이 붙었어요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안다.			소방안전교육
	뭉치의 공놀이	도로나 도로 주변에서의 놀이가 위험한 이유를 인지한다.		안전한 놀이 장소 구분과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태풍과 홍수	태풍과 홍수에 대해 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태풍,홍수의 대처법에 관심을 갖는다.	재난재비 안전교육
	좋은비밀과 나쁜비밀	위험한 상황을 안다.	일어난 상황을 교사나 부모에게 설명 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9월	감각기관을 이용한 대처법	감각기관을 통해 화재발생상황을 알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
	바깥놀이 안전	안전한 놀이 장소를 안다.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주의 한다.	안전한 놀이 장소에서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만약 길을 잃으면	길을 잃었을 때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	만약 길을 잃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	대처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본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구급상자	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안다.	약의 종류를 알고 함부로 먹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친구가 싫어해요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 안다.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10월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아요	소화기 사용법을 안다.	소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소화기 사용법에 관심을 갖는다.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 규칙을 배워요	차가 있는 길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안다.	신호등이 있는 길과 없는 길을 건너는 방법을 익힌다.	교통 안전 규칙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따라가면 안돼요	낯선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함을 안다.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	낯선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진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안전하게 약먹기	약을 먹을 때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안전하게 약을 먹을 수 있다.	약을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진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자연재해의 무서움에 대해 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재난재비 안전교육
11월	만약 불 속에 갇히게 된다면?	불이 났을 때 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다.	건물 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
	횡단보도 건너기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신호등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횡단보도 건너기에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낯선사람 조심해요	다양한 유괴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낯선사람들을 경계하여 안전하게 생활한다.	도움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하마아저씨의 약국	함부로 약을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안다.	약은 증상에 따라 먹도록 하고 함부로 먹지 않도록 한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서운 일은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정과 기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조심조심 이용해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이용 안전에 대해 알 수 있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생활안전교육	
12월	소방서에서 하는 일	소방서에서 하는일에 대해 안다.		소방관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소방안전교육

	집으로 가는길	집에 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안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방법을 익힌다.	위험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약을 바르게 먹어요	약을 먹는 올바른 방법을 안다.	약을 올바른 방법대로 먹을 수 있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겨울철 안전하게 생활해요	겨울철 놀이 안전에 대해 알 수 있다.		겨울철 안전보행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익힌다.	재난대비 안전교육
	나를 보호해주세요	학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안다.	학대를 받을 시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1월	불조심해요	집에 있는 불에 대해 위험성을 안다.	집안에 있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소방안전교육
	길을 걸을때는 조심해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보행자의 안전에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유괴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	유괴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 수 있다.	혼자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함을 인지한다.	유괴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관심을 가진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우리 몸을 위험하게 해요	약의 위험성을 안다.	약을 처방 없이 먹지 않는다.	함부로 약을 먹지 않는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하이에나 아저씨는 나빠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몸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미디어 안전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미디어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안전교육
2월	전기 조심해요	전기의 위험성과 편리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전기용품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소방안전교육
	파랑아 고마워	길을 건너기 위한 신호등이 있음을 안다.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널 수 있다.	교통안전규칙에 관심을 가진다.	교통안전교육
	어떡하지?	낮선 사람을 따라가면 위험성에 대해 안다.	유괴 상황을 간접 체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유괴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실종·유괴 예방·방지
	담배는 건강에 해로워요	담배가 신체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안다.	담배 연기를 맡지 않도록 한다.	담배의 해로움에 관심을 갖는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를 중심으로 한 영아 안전교육의 세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안전교육은 영아에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또 얼마나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는 못했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정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목표를 정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17. 5. 19>

교사는 안전활동 계획 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된 모습을 보였으며, 영아 안전교육의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영아 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을 더 명확히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생활 안전교육하기

새싹반은 매주 안전교육의 시간을 정하여 주제에 따른 안전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교육 영역별 설정된 활동들은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약품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교육’, ‘대인안전교육(성폭력 및 유괴실종,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다양한 안전 분야를 고르게 분배하여 전 안전교육 영역에 걸쳐 고르게 안전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따라 계획된 안전교육은 실제 영아와 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안전 문제를 반영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싹반의 영아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안전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져야 했다.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차 실행 과정을 통해서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실제적 안전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아와 함께 계단을 오르고 있다면 계단에 안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영아가 배변 훈련으로 스스로 대소변 보기가 가능해 졌다면 화장실 안전하게 이용하기,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실제 영아가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주제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제 영아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의 주제를 찾아서 활동을 계획해 보기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은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에 따라 교통 안전교육,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재난대비교육,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영역을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에 따라 영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변경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안전교육은 법으로 1년에 4회, 6회, 12회로 안전교육마다 실시 횟수가 정해져 있고, 소방, 약물, 교통 등 각 안전교육영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전교육을 안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 감사의 주요 항목이라서 지금은 감사기준에 맞춰서 내용 및 횟수를 정확하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원장 면담, 2017. 5. 16>

연구자와 교사, 원장은 교사협의회를 거쳐서 매주 1회씩 하는 안전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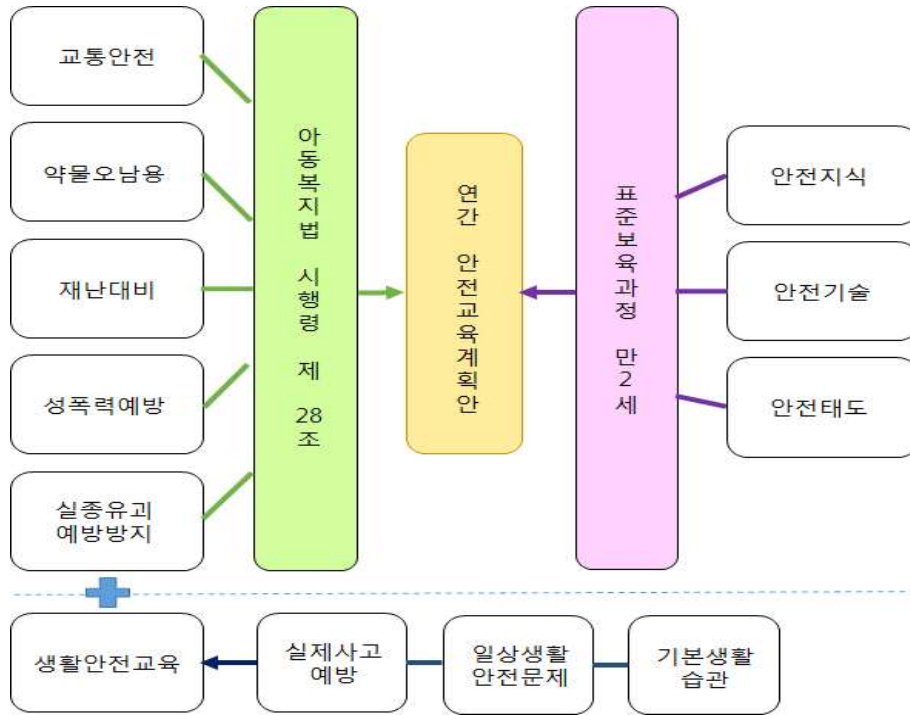
내용은 2차 실행과정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만 2세의 영아 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 계속 지금처럼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안전교육 활동에 추가하여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경험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추가로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표준보육과정에 ‘기본생활영역’ 범주에 포함되어 기본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교육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기본생활습관과 연계하여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한 안전교육활동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안전교육활동에 사용된 안전교육계획안 및 교구제작계획서는 부록 B-1-4~9, 부록 B-2-1~4에 첨부되어 있다.

<표 41>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계한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안전영역	교구번호
-	문을 안전하게 사용해요	생활안전	B-2-1
B-1-4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	생활안전	B-2-4
B-1-5	손을 깨끗이 씻어요	생활안전	
B-1-6	양치질을 해요	생활안전	B-2-2 B-2-3
B-1-7	물면 안돼요	대인안전	
B-1-8	먹으면 안돼요	약품오남용	
B-1-9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요	생활안전	

위에서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협의한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범주 구성

(2) 영아 안전교육 내용에 맞는 교재교구 개발과 활용

①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教材)의 한계

연구자가 영아 안전교육을 참여관찰하면서 지켜본 결과,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의 한계가 계속 드러났다. H어린이집에서는 안전교육을 위해 연간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자료를 구입하여 안전교육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자료는 안전주제와 관련된 그림자료로 되어 있었으며, 어린이집 내에 전 연령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가 안전교육용 그림자료를 가지고 책상으로 다가오자)

세현 : 선생님 오늘 그림 가져왔어요,

문수 : 우와 그림책 보는 시간이다,

교사 : 선생님이 오늘 재미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책상에 앉아보자,

세현 : 그림 보는 날이다,

<소방안전교육, 2017. 4. 25>

영아들은 반복된 형태의 그림자료를 통한 안전교육에 익숙해져서 안전교육 시간을 ‘그림 보는 시간’, ‘그림책 보여주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 (그림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으며)우리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요?

문수 : 안돼

교사 :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 안돼! 안 된다고 했지요,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안전교육 해요,

세현 : 선생님 그림책 또 보여주세요,

교사 : (이미 한번 그림을 반복해서 보여준 후)우리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

(그림자료를 들고, 복도로 나간다.)

<실종유괴예방교육, 2017. 5. 16>

위 사례처럼 안전교육에 참여한 영아는 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한 이야기나누기 그림자료를 그림책이라고 이야기 하며, 이야기나누기 후 또 읽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안전교육에 이용한 교재교구는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교사가 사용하는 교육기자재로만 활용 될 뿐 영아에게 제공 되지 않았다. 활동 후 영아들이 안전교재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놀이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는 전체 반이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밖으로 바로 가지고 나가서

다른 반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학습하고 반복하여 놀이하는 것을 즐기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실내에 안전교육 자료를 비치하여야 겠다고 생각했다. 영아가 안전교육 수업을 들은 후 비치된 자료를 통해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반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아가 안전지식 및 태도를 습득하고,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교사는 이야기나누기 자료를 스캔 받아서 그림책 자료처럼 도서 영역에 비치해 두고 반복해서 안전교육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영아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H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는 연간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교육계획안과 활동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연간안전교육계획안 작성에서 부터 안전교육활동 시 자료 준비까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세트화된 상업적 교구의 특성 연간안전교육에 따른 안전교육 자료가 너무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영아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교재교구의 형태였다.

교사 : 선생님이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 왔을까요? 짜잔

문수 : 짜잔

슬기 : 에이, 그림이잖아요.

교사 : (웃음) 맞아,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놀이터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놀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문수 : 놀이터다.

(중략)

교사 : 미끄럼틀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규리 : (사다리를 잡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하며)이렇게 이렇

게 올라가요,

교사 : 맞아요,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계단을 이렇게 이렇게~(영아의 행동을 따라하며) 한명씩 차례로 올라가야 되지요,

문수 : 저 친구는 손가락이 없다,(그림을 가리키며)

<놀이터에서의 안전, 2017. 4. 18>

교사 : 이것은 무엇인것 같아요?(그림을 가리키며)

부딪쳐서 아야하고(팔을 접어 흔들며) 다쳤거나, 넘어져서 쿵하고(무릎을 올리며) here를 다치면 이걸로 감아서 치료를 해줘요, (붕대 그림을 가리키며)

규리 : 이거는 뭐예요?(붕대 그림을 가리키며)

교사 : 이걸로 아픈곳을 아프지 않게 돌돌 말아서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준대요,

수진 : 휴지

문수 : 이불이다, 이불

<약품 오남용 예방, 2017. 3. 28>

또한, 위의 사례처럼 영아 안전교육의 자료는 안전주제와 관련된 안전 상황이 그림으로 표현된 이야기 나누기용 활동 자료로 되어 있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 실제 사진보다는 예쁜 색감을 이용하여 만화처럼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손가락 등 신체가 뚜렷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붕대’와 같은 비상약품을 나타낼 때도 단순하게 축약된 형태로 나타내져 ‘휴지’, ‘이불’로 영아가 그림을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영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게 표현된 영유아 안전자료로 인해 영아들이 오히려 안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효과적인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영아가 흥미를 가질 만한 안전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하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②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구(校具)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연구자는 교사에게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교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영아반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번 안전교육 때마다 주제와 관련된 교재교구를 제작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특히나 영아를 위한 교재교구는 영아에게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삼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각이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크기가 일정 크기가 넘어야 하는 등 교재교구의 제작방법도 교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가 안전과 관련된 교재교구 제작을 계획해 보려고 하자 교사는 교재교구 제작에 매우 부담감을 느꼈다.

영아반 선생님들은 정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합반을 해서 선생님이 같이 있어도 옆지르고, 넘어지고(웃음)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못떼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교사면담, 2017. 2. 14>

교수님, 제가 원래 교구 같은거를 진짜 못 만들었거든요. 어떤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도 없고, 방법을 잘 모르는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교재교구를 만드는게 많이 늘 것 같기는 하지만, 손재주가 없어서 걱정이 되요. (중략) 애들이랑 있으면 교사용 가위나 글루건, 칼 등을 꺼내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재교구를 만들면 보육시간이 다 끝나고 남아서 만들어야 하는데...사실 부담이 되요.

<교사협의회, 2017. 5. 30>

연구자는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교재교구가 필요하지만 교사가 교재교구를 제작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협의하여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교구를 계획하고 교재교구 제작은 교사와 상의하여 연구자가 제작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함께 제작한 교재교구의 목록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교재교구제작계획서는 부록 B-2-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제작한 교재교구 목록

번호	활동명	안전영역
B-2-2	양치를 해요(대집단)	생활안전
B-2-3	양치를 해요(영역 배치)	생활안전
B-2-4	우는 블록 & 상처용 밴드	생활안전

새싹반 영아들은 배변 훈련을 통해 기저귀를 하던 영아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소변 후 손씻기, 식사 전 손씻기 활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뭐든 스스로 해보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칫솔을 이용하여 잇솔질을 스스로 하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 2세의 영아는 유치기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양치질을 통한 치아의 건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양치질을 하다가 양치를 하는 칫솔로 거울을 닦거나, 옆에서 양치를 하는 친구를 밀거나, 향과 맛이 있는 어린이용 치약을 삼키는 등 여러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바르게 양치질을 해요’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부록-B-1-6 참조] 안전교육활동을 위한 교재교구를 제작하였다. 교사가 안전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칫솔과 치약, 입안의 치아 모형을 크게 제작하고, 영아가 입안 속에서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칫솔을 관찰하여 바른 잇솔질의 방법을 익

힐 수 있도록 했다. 다음 그림 23은 제작된 ‘양치질을 해요’교구를 가지고 영아들이 활동 하고 있는 모습이다.



양치질을 해요 교구



영아들이 활동하는 모습

[그림 23] ‘양치질을 해요’ 교구로 활동하는 모습

‘양치질이 해요’ 교구는 영아들이 흥미를 보이며, 교실에 계속 비치해 놓고 활동하기를 원했으나 큰 크기로 인해 영역 내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여러 영아가 함께 놀이를 하다 보니 서로 칫솔이나 치약을 사용하려고 영아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저희반은 교구 배치할 때 똑같은 교구를 2개씩 놓아요. 영아들은 아직 교구를 같이 가지고 놀이 하는 것에 서툴러서 각자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교구를 2개 이상씩 놓고, 좋아하는 책의 경우는 여러 권을 함께 배치 해줘요.

<B교사 면담, 2017. 2. 13>

영아들이 계속 칫솔교구를 찾는데, 다른반 선생님들이 보시고 탐을 내시더니, 형님반에서도 양치질 교육을 하는데 활용하고 싶다고 빌려가셨어요. 교사가 수업할 때 이용해서 영아들이 가지고 놀게 교실에 두기는 좀 크기가 큰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17. 6. 20>

연구자는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안전교재교구를 계속 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영아가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도록 가볍고 작게 칫솔 및 치아 교구를 만들고, 2셋트를 함께 만들어서 영아가 개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구니에 담아서 그림 24와 같이 탐색영역에 배치하였다.



손에 들 수 있는 크기로 제작



탐색 영역 교구장에 배치

[그림 24] 영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양치질을 해요’ 교구

3) 실행의 평가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의 실행과정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을 목표를 구성하여 보고,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로 목표를 세분화 하여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지식과 함께 필요한 기술을 함께 습득하고 영아가 안전하게 지내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안전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의 흥미에 맞는 안전교재교구를 고안하여 안전교육활동을 해보았다.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문제 상황과 영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안전교육활동을 추가로 계획하여 실행하다 보니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계획한 안전교육활동이 모두 생활안전영역으

로 한정되었다. 이에 다음 실행에서는 안전교육의 다양한 교수방법 활동과 함께 소방안전, 유괴실종예방,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영역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행동을 가르치고, 안전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안전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동안은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교육자료에 의존해서 주로 이야기나누기 활동으로 안전지식에만 치중했었던 것 같다.

<A교사 저널, 2017. 6. 13.>

또한, H어린이집의 안전교육은 연간 안전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주제별 이야기나누기를 통한 안전교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 주도적인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안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전교육 활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실행과정에서의 선정된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안전지식 및 기술, 태도를 익히는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3차 실행의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4. 3차 실행 : 다양한 영아안전교수방법 적용하기

1) 문제점 인식 및 실행 계획

3차 실행과정에서 연구자와 교사는 그동안 실행의 과정을 통해 제기되었던 영아 안전교육의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기로 하였다. 연구

자는 2차에 따른 실행의 과정과 면담 및 참여관찰 등을 통해 새싹반의 영아 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효율적인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영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영아 수준에 맞는 안전 활동 및 목표를 선정하여 적용하면서 확실적인 안전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연구자와 교사가 처음 만나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 협력적 실행연구를 계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교사 면담에서 부터 안전교육의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아 안전교육을 참여관찰하고 교사와 면담을 할 때도 안전교육이 이야기나누기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교육교수방법의 개선해야 문제로 드러났다.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단순히 안전지식을 전달하는 안전교육은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고정완, 2016; 김혜숙, 2013; 박유영, 2014; 박은미, 2012), 안전교육의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을 실시 할 때 이야기 나누기, 동화 및 동시, 역할극, 게임, 실험, 시범 등의 다양한 활동 방법으로 실시하면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켜 영아의 안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유수정, 2011).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차 실행의 과정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실행 초기에 함께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문헌 고찰을 실시 할 때 찾아보았던 안전교육교수방법 자료들을 다시 재검토 하며, 영아 안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표 43은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검토해본 안전 교수학습방법과 관련된 문헌자료이다.

<표 43> 연구자와 교사가 교수학습방법을 위해 함께 검토한 문헌자료

구 분	문헌자료
안전 교육 교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관리(윤선화 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이기숙 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 맞춘 아동안전관리(이영환 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건강 및 안전(정아란,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를 통한 접근을 통한 안전교육(박유영,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안전교육(유선희,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를 통한 안전교육(김영실, 윤진주, 유수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을 활용한 안전교육(서유미,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극을 활용한 안전교육(고정완, 2016) 	

영아 안전교육에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하기 실행을 위해 ‘문제점 파악 및 계획’ 단계에서는 기존에 원내에서 진행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살펴보며 그동안 주로 적용된 교수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안전교육 활동을 찾아봄으로써 안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선정해 보았다. 3차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세부 실행 내용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3차 실행의 과정

3차 실행	문제점 인식 ⇒	개선 방안	관련 활동
다양한 영아안전 교수방법 적용하기	-기존의 안전교육 교수방법이 이야기 나누기를 중심으로 한 강의식 수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영아안전교육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찾아 영아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시범을 적용한 안전교육을 실행 :시범과 시연 시범을 적용한 게임	-안전한 행동 및 기술을 익혀야 하는 안전교육내용을 구성 [안전활동계획 및 실행] ·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 소방관 게임 [안전교재교구 제작 및 활용] · 연기터널 밑으로 빠져나가요 · 소화기로 불을 꺼요 · 투척용 소화기 & 불 불링
		매체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행 :문학과 연계 미디어 활용	-영아 안전교육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활동 -관련 동영상 제작함 [안전활동계획 및 실행] · 선생님 도와주세요 · 똑똑 누가 왔어요 [안전교재교구 제작 및 활용] · 지진이 났어요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행 : 역할놀이 현장학습	-체험을 통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구성하고, 현장학습은 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으로 진행 [안전활동계획 및 실행] · 카시트에 앉아요 · 횡단보도를 건너요 [안전교재교구 제작 및 활용] · 카시트를 해요

‘실행의 과정’에서는 영아 안전교육 및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를 찾아보며 선정된 교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영아 안전교육 활동에 따른 활동자료 및 안전교육 매체 및 교구를 제작하여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재계획’의 과정으로 교사와 연구자는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협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활동 후 저널, 참여관찰,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반성

적 평가는 다음 활동을 위한 재 계획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실행 과정은 다음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실행과정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 하기’ 실행을 계획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 관계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계획하여 보았다.

협력적 실행연구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자와 교사 간 대화와 소통에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할 간의 협의는 새로운 지식과 이해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Feldman, 1996). 연구자가 실행의 과정을 거둬가면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인 교사와의 평등한 관계 유지와 역할의 균형이었다. 이에 실행과정 전 연구자는 교사와 함께 상의하여 역할 분담을 구성하여 역할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

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를 위하여 연구자와 교사가 설정한 역할 분담은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분담표

연구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방법에 관련한 자료 제공하기 • 영아 안전교육자료 계획 및 교재교구 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작성하기 • 영아 안전교육자료 계획하기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안전 교육활동 수행하기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안전교육계획안 작성하기 • 영아 관찰 및 교사협의회, 교사 면담하기 • 반성적 저널 작성하기 	

2) 실행의 과정

(1) 시범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

① 시범과 시연

연구자와 교사는 정확한 대처방법을 요하는 소방안전교육과 대피요령을 습득해야 하는 소방대피훈련을 영아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으로 ‘시범과 시연’을 선정하였다. 시범은 안전 행동에 대해 영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행동이나 기술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정재경 외, 2016)으로 영아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기술을 익히게 하는데 효과

적이다. 시범 및 시연은 안전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교통안전이나 물놀이 안전처럼 정확한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경우 적합한 안전교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권덕수 외, 2015).

새싹반은 매월 1회씩 소방대피훈련을 하고 있으며, 전체 연령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학기초에 소방대피훈련을 할 때에는 사이렌 소리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당황하여 도망가는 영아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충 경충 뛰며 재미있어 하는 영아도 있었지만 소방대피훈련이 거듭 될 수록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며 교사를 따라 신속히 1층 대피장소로 이동하도록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소방대피시 옷 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는 교사를 따라 손으로 입을 가리기는 하였지만, 코는 그대로 노출 되어 있어서 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는지에 대해 영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었다. 또한 소방대피를 할 때 교사를 따라서 몸을 숙이지 않고 교사 뒤에 한줄로 서서 걸어서 대피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연구자 : 소방대피시 아이들이 입과 코를 가리고 잘 대피하지 못하네요? 어떤 친구는 조용히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서인지 췌하고 오기도 하더라고요(웃음)

B교사 : 연기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입만 막고 따라오는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리고 몸을 숙이고 이동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교사 뒤를 따라서 다 서서 이동하는 것 같아요,

B교사 : 영아는 키가 작는데도 몸을 숙여야 하나요?

연구자 :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연기가 천장부터 차오르고 50~60cm까지 유독가스가 내려와서 연기를 마시면 위험할 수 있네요,

<소방대피훈련 후, 2017. 6. 29>

위 사례처럼 영아들이 소방대피훈련 시 대피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습득하고 있지 못하고, 소방대피시 왜 몸을 숙이고 코와 입을 옷과 손으로 막아서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연구자와 교사는 함께 상의하여 소방대피훈련을 시범을 통한 안전교육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활동주제는 다음 표 46과 같이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이며, 활동계획안은 부록 B-1-10, 관련 교재교구제작계획안은 부록 B-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6> 시범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교수방법	안전영역	교구
B-1-10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시범	소방대피훈련	B-2-5

연구자는 (∩)모양의 교구를 만들고, 회색연기를 위쪽에 붙여서 화재에 따라 유독연기가 가득 내려온 장애물 교구를 제작하였다. 교사는 화재 상황으로 인해 교실로 위험한 유독연기가 위에서 부터 가득 차고 있음을 영아들에게 설명해 주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서 연기 터널 밑으로 기어서 대피하는 모습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그림 26과 같이 교사와 또래 영아의 시범을 본 뒤 영아들은 대피에 필요한 안전기술을 더욱 정확히 따라 하며 활동하며 이전 보다 개선 된 모습을 보였다.



연기터널 교구



소방대피 모습

[그림 26]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활동 모습

② 시범을 활용한 게임

게임 활동은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상황에서 영아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 활동이다. 게임은 영아의 내적동기를 유발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방법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하며, 또래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과 강화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아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권혜진 외, 2012).

이처럼 게임을 통한 안전교육은 이미 교육을 통해 익힌 안전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영아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교사가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영아에게 시범을 통해 알게 된 안전기술을 게임을 통해 즐겁게 연습해보며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을 활용한 게임 활동을 계획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계획한 시범과 게임을 적용한 안전교육활동은 다음 표 47과 같다. ‘소방관 게임을 해요’ 활동계획안은 부록 B-1-13, 관련 교재교구제작계획안은 부록 B-2-6에 제시되어 있으며, 교실 내 배치를 위해 추가로 제작된 게임교구 ‘투척용 소화기와 불블링’ 교구제작계획안은 부록 B-2-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7> 시범과 게임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교수방법	안전영역	교구
B-1-13	소방관 게임을 해요	시범, 게임	소방안전	B-2-6
-	투척용 소화기와 불블링	시범, 게임	소방안전	B-2-7

연구자는 ‘소방관이 되어보자’ 활동을 위해 교사와 협의하여, 건물과 건물에 꼽을 수 있는 불꽃 모형, 소방관 옷, 소화기를 안전교구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소방관 옷을 입고, 불꽃이 있는 건물을 향해 가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꽃을 제거하는 시범을 보였다. 이때 교사는 게임 순서 시연에 앞서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 먼저 시범을 보이고, 게임 순서를 보여준 뒤 다시 한번 소화기의 사용법을 보여주며 영아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생각하기에 소화기의 사용법이 영아들이 알기에 어렵다고 생각되었는지 천천히 시범을 반복하여 영아에게 안전기술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가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활동이 좀 더 활기를 띄며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활동이 끝난 후 교실을 살펴보니 교실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교실벽면에 투척용 소화기가 배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 투척용 소화기는 투명한 모양의 15cm정도 높이의 원통형 플라스틱에 소화용 액체가 들어 있는 소화기로 불이 난 곳을 향해 던지면 통이 깨지면서 소화용 액체가 불을 끄게 되는 소화기이다. 분말형 소화기는 사용법이 다소 어렵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영유아교육기관에는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교실 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 안전교재교구로 불링놀이를 응용한 투척용 소화기 모형 교구와 불꽃 모양 불링핀을 만들어 보았다.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제작하여 활동한 교재교구는 다음의 그림 27과 같다.



소방관이 되어보자



투척용 소화기, 불꽃불링핀

[그림 27] 시범과 게임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소방안전교구

(2) 매체를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

① 문학

문학을 이용한 안전교육 교수방법은 영아들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문학을 이용한 접근법 중에 영아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그림책이다. 그림책은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관심사와 생활 경험이 담겨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을 추출할 수 있으며, 영아에게 주변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 실제 생활 속에서 연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안전교육공제회, 2017). 이에 연구자는 문학을 이용한 안전교육방법으로 그림책을 통한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으로 어떤 안전교육영역이 좋을지를 함께 협의해 보았다. 먼저 영아에게 설명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위험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안전교육 영역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이나 유괴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이에 안전교육영역별 활동 내용을 두고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고민해 본 결과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은 안전한 보행이나 차량에서의 안전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이용한 안전교육 활동은 유괴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활동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문학을 통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으로 선정된 활동은 다음 표 48과 같다.

‘선생님 도와주세요’의 활동계획안과 안전교육을 위해 선정된 그림책은 부록 B-1-11에 제시되어 있으며, ‘똑똑 누가 왔어요’ 활동계획안과 선정된 그림책은 부록 B-2-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8> 문학을 통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교수방법	안전영역	교구
B-1-11	선생님 도와주세요	문학	유괴실종예방	그림책
B-1-12	똑똑 누가 왔어요	문학	유괴실종예방	그림책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7) 「그림책을 이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참조

먼저, 연구자와 교사는 유괴실종예방 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선정하면서 어떤 그림책을 선정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협의해 보았다. 연구자는 그림책을 통해 유괴실종예방 교육에 대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그동안 유괴실종예방 교육 시 사용했던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하였다.

유괴실종에 대한 그림은 아이들이 울고 있거나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가 나오니까 그림을 보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안전교육 자료에 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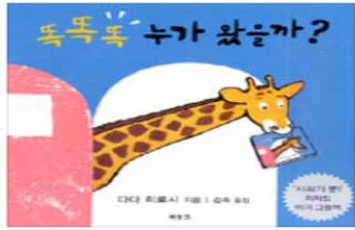
<교사 회의, 2017. 7. 4>

교사는 그동안 사용했던 그림자료를 보면서 영아들이 유괴실종에 대한 자료를 무서워했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림과 줄거리의 그림책을 선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통해 그림책 선정을 위한 기준을 함께 세워 보았다.

- 영아의 수준의 맞는 쉬운 내용으로 줄거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 그림의 비중이 높고, 줄거리가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 영아가 호기심을 갖을 수 있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다.
- 영아에게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줄거리는 피한다.
- 그림 삽화가 줄거리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와 교사의 위의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유괴실종예방과 관련된 그림책의 자료를 찾아보고, 협의를 거쳐 2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그림책은 파울린 아우드의 「동물원에 가면」, 과 다다 히로시의 「똑똑똑 누가 왔을까?」이다. ‘동물원에 가면’은 등장인물이 귀여운 동물로 표현되어 있고, 줄거리의 배경이 동물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영아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등장인물과 배경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줄거리가 외출하거나 밖에 있을 때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똑똑똑 누가 왔을까?’도 등장인물이 동물로 묘사되어 있으며, 만 2세 영아들이 좋아하는 까꿍놀이처럼 문 뒤 창문으로 등장인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배경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설정으로 영아들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사건으로 되어 있으며 낯선 사람이 찾아 왔을 때 대체 방법에 대한 줄거리로 구성 되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 하여 함께 선정한 그림책과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 모습은 다음 그림 28과 같다.



선정된 그림책



그림책을 이용한 안전교육

[그림 28] ‘뚝뚝뚝 누가 왔어요’ 수업 사진

연구자와 교사는 그림책을 통한 안전교육 활동 후 작성한 저널을 통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개념이 영아들이 잘 이해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그림책의 즐거움을 통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경험을 반복하여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해 보기로 하였다.

‘뚝뚝뚝 누가 왔을까?’ 동화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해보았다. 현관 문교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꺼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아들은 새로운 동화책에 흥미를 가지며 푹 빠져 동화를 보았다. 동화책을 열 때 문이 있었는데 문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맞춰보았다. 뚝뚝뚝 노크 소리를 신기해하는 영아들이 많이 있었다. 동화책을 다 읽은 후 “또 읽어주세요” 등 더 읽어 달라는 영아들도 있었고 동화책에 나오는 동물 이름을 말하며 동화책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도 있었다. 뚝뚝뚝 노크 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는 앞으로 나와 동화책을 뚝뚝뚝 두드려 보기도 하였다. (중략)

영아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 따라가려는 반응을 보였다. 수시로 영아들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인지를 해주며 절대 따라가거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동화자료는 도서영역에 배치해주어 영아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도록 하였고 책을

볼 때마다 상황극을 해주어 낯선 사람에 대해인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교사 저널, 2017. 7. 18>

위 교사의 저널처럼 영아들은 푹푹 문을 두드리는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책을 두드리며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교사는 현관문 교구 이용하여 그림책 안전교육과 연계한 확장 활동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지난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교육 활동 때 제작해서 사용하였던 ‘문 교구’[부록 B-2-4 참조]를 떠올리게 되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그림책을 통한 안전교육 활동 후 역할놀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언어영역 옆에 문 교구를 함께 비치하였다. 영아들은 큰 반응을 보였고 문의 양쪽에서 “푹푹. 문 열어주세요.”, “안돼요”, “가세요”를 반복하며 놀이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이러한 교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확장활동에 대한 영아의 높은 반응은 연구자와 교사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미디어

영아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이용한 교수 매체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안전교육은 동영상, 녹음자료, 사진 등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영아의 주의집중을 돕고 직접 경험을 대신 할 간접 경험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권혜진 외, 2012). 안전교육에 동영상을 이용하면 영아가 상상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이나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해 보았다.

그런데 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교사는 영아반은 의도적인 대집단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그동안 교육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저희가 영아반은 아예 교실에 TV가 없어요, 영아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대집단 활동을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여주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에 TV나 핸드폰으로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걸 자꾸 보여주면, 교실에서 책 읽는거나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는 걸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교사가 애들 사진 찍어줄려고 핸드폰만 들어서 우르르 와서 관심을 보이니까

<A교사 면담, 7. 20>

또한, 동영상의 매체는 쉽게 소리와 영상 등 다감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영아기 부터 이러한 매체에 노출 되면 다른 교구나 책 등에 흥미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안전교육을 원하는 영아들에게만 동영상을 보여주기로 하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동안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영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여 동영상을 보여 주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는 협의를 통해 영아에게 보여 줄 동영상의 시간을 5분 이하로 제한하고, 활동에 맞는 동영상 자료를 찾아서 편집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동영상 편집기로는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자와 교사는 동영상을 활용한 활동으로 어떤 활용을 계획하면 좋을지를 상의해 보았다. 교사는 동영상은 약품오남용을 제외한 모든 안전교육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교통안전교육과 소방안전, 성폭력 예방 및 유괴실종교육, 재난대비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며, 어떤 주제를 선정할 지 기준이 서지 않는 듯 고민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에게 평상시 영아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안전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보는 것을 제안하였다. 안전교육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영아가 어려워했던 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지난 연구자와 교사 면담시 작성 했던 때 면담 전사본을 교사에게 보여주며, 교사가 이미 이야기 했던 영아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안전교육 주제들을 함께 찾아보았다.

연구자 : 영아에게 하기 어려웠던 안전교육 주제가 있었나요?

B교사 : 저는 재난대비 같은 경우 영아들이 아직까지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진자료에도 가뭄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영아들이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접하기 힘들니까 여기서(어린이집에서는) 경험하기 힘들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B교사 면담, 2017. 2.13>

연구자: 영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안전교육은 어떤 게 있었나요?

A교사: 재난교육 같은 경우는 영아들이 비나 눈은 알지만, 가뭄이라든지 홍수를 이해하는 건 어려웠던거 같아요.

<A교사 면담, 4월 4일>

위의 면담 사례를 보여주자 교사는 재난대비교육 시 영아들이 자연 환경에 대한 경험 부족과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활동의 진행이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고는 미디어를 적용한 안전교육영역으로 재난대비교육을 선정하기 것에 동의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협의를 하면서 재난대비교육의 활동으로 어떤 것을 다루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다가 현장학습과 연계한 안전교육 일정을 원장에게 미리 상의하고 허락을 구해야 해서 현장학습 일정에 대한 상의를 먼저 하게 되었다. 현장학습을 나갈 때 날씨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월별 날씨를 보고 비가 오지 않는 날로 일정을 선택 한 뒤 혹시라도 비가 오면 그 다음주로 연기하는 것으로 현장학습일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때 교사가 “미세먼지가 많아도 나가기 어려워요”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교사의 의견을 통해 요즘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활동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해 보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재난대비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미세먼지’처럼 요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H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2016년 있었던 지진의 발생지와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진의 피해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지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라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미세먼지와 지진을 안전교육활동 주제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미디어를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은 다음 표 49와 같다. ‘지진시 대피요령’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안은 부록 B-1-10, 관련 교재교구제작계획안은 부록 B-2-16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래바람이 불어요’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안은 부록 B-1-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9> 미디어를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교수방법	안전영역	교구
B-1-16	지진시 대피요령	미디어 활용	재난대비	B-2-9
B-1-17	모래바람이 불어요	미디어 활용	재난대비	동영상

연구자는 지진과 미세먼지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고 교사와의 협의를 거쳐 ‘윈도우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5분이내로 동영상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관련 안전활동은 안전교육을 원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으며, 활동 중인 다른 영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TV가 설치된 유희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 안전교육 활동 모습은 다음 그림 29와 같다.



제작된 동영상



동영상을 이용한 안전교육

[그림 29]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업 사진

연구자와 교사는 실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집 안의 모습과 가구들을 디오라마로 제작하고, 실제 지진이 일어난 상황처럼 디오라마를 흔들어서 가구가 흔들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을 해보는 것으로 활동을 확장 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디오라마 교구와 이를 활용한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수업 모습은 다음 그림 30과 같다.



디오라마



디오라마를 활용한 수업모습

[그림 30]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수업 사진

(3) 체험을 통한 영아 안전교육

① 역할놀이

역할놀이는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가상적인 상황과 역할을 맡아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기숙 외, 2011). 안전교육방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시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할 놀이는 영아에게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영유아는 안전과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알고 있는 안전지식을 안전한 행동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위해 안전지식과 함께 안전한 행동을 체험하고 습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영아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을 역할놀이에 적용하여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놀이로 통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적절한 대처방법이나 자발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역할놀이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따라 해 봄으로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행동과 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역할놀이를 통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해 보았다. 역할놀이와 같은 체험을 통한 학습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한 행동과 기술을 습득하기에 효과적임으로, 연구자는 교통안전교육 영역의 활동을 계획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교통안전교육은 영아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안전 기술을 익히고, 바르게 교통안전을 지켜나가는 안전한 태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통한 체험교육이 적합한 영역이었다.

H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학부모님이 직접 영아를 등·하원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교사는 어린이집 버스 이용이나 차량의 탑승과 하차 시 안전규칙에 대한 주제 보다는 차량 이동시 영아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규칙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5월 학부모 면담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등원 할 때 카시트에 안 앉겠다고 때를 쓰면서 울어서, 안고 운전 하 실 수가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안아서 데리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교사 협의회 중, 2017. 7. 20>

연구자는 교사의 의견에 따라 카시트에 바르게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활동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함께 구성한 활동계획안은 다음 표 50과 같다. “카시트에 앉아요”에 대한 활동계획안은 부록 B-1-10, 관련 교재교구제작계획안은 부록 B-2-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0> 역할놀이를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교수방법	안전영역	교구
B-1-14	카시트에 앉아요.	역할	교통안전	B-2-8

연구자는 활동을 위한 카시트 교구를 만들기 위해 카시트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차량에 부착된 카시트를 관찰하여 교재교구를 구체적으로 구상하였다. 실제 카시트는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안전벨트의 고리는 단추를 눌러서 키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영아가 조작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와 상의하여 영아가 역할 놀이 시 자유롭게 카시트에 안전벨트를 조작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 고리를 찍찍이와 보들이를 이용하여 접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교실에서 영아가 또래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구를 똑같은 모양으로 2개를 제작하였다.

연구자가 교사와 협의하여 제작한 카시트 모형을 이용하게 안전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은 다음 그림 31와 같다.



카시트 사용법에 대한 설명



카시트를 이용한 놀이

[그림 31] ‘카시트를 이용해요’에 대한 수업 사진

연구자와 교사는 교구를 역할영역에 비치하고, 영아들이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역할 놀이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 핸들을 추가로 제작해 운전하는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과 관련된 역할놀이를 통해 영아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배워나감으로써 안전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김경화 외, 2011). 또한, 영아 안전교육 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고,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 보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다(권덕수 외, 2014). 이에 따라 연구자는 운전대 핸들을 추가로 역할영역에 배치하여 운전을 하는 엄마, 아빠의 역할도 영아가 체험해 보고, 영아와 부모의 역할을 바꿔서 활동해 봄으로써 영아가 다양한 상황을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확장시켜 구성해 보았다.

② 현장학습

현장학습은 교육시설에서 할 수 없는 실제적 경험을 위해 관련 장소 및 기관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주영은 외, 2011). 현장학습을 통한 안전교육은 실제의 상황이나 사건을 관찰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안전한 행동과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안전교육영역 중 현장학습으로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역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원내에서도 교재교구로 제작하여 활동을 해 볼 수 있지만 횡단보도와 차도, 신호등 및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 실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갖추어진 교통공원이거나 실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통안전교육의 활동 중 현장학습을 통한 안전교육활동으로 주로 계획되는 활동은 횡단보도 건너기, 지하도 및 육교로 이동하기 등이 있다(권덕수 외, 2016). 이에 연구자는 교사와 현장학습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준비를 함께 협의해 보았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전교육을 하는 건데 혹시 밖에 가서 사고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

요, 워낙에 아이들이 걷는 것도 힘들어 해서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교사협의회, 2017. 7. 4>

위의 사례처럼 교사는 영아들을 데리고 원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견학은 교육기관을 떠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권혜진, 2012). 이에 연구자는 원 밖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의 사전답사를 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보조 연구자를 함께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영아를 데리고 교육기관을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연구자와 교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원장에게 현장학습의 필요성과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사전답사를 마치고 보조 연구자와 동행할 것을 전달한 뒤 허락을 받았다.

어린이집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원 근처를 산책하거나 근처 아파트에 공원이나 놀이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근방을 방문하는 건 될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따로 번거롭게 안 데리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보조 선생님들도 있으시니까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 면담, 2017. 7. 4>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원장은 영아반의 산책활동 경험을 이야기 하며 이미 경험해 본 어린이집 주변으로 현장학습을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교육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활동에 대해 허락해 주었다.

연구자는 원장 및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학습을 통한 안전교육활동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협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장학습 장소는 영아에게 익숙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정한다.
- 현장학습 장소는 영아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위치로 정한다.
- 현장학습의 이동경로를 미리 답사한다.
- 교사 외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진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연구자와 교사는 H어린이집 앞에 시장골목을 지나 큰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현장학습의 장소로 정하고, 연구자는 사전답사를 통해 영아의 이동 경로 및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였다.

현장학습을 통해 영아의 경험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학습 전, 그리고 현장학습, 현장 학습 후의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주영은 외, 2011).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장학습 전에는 현장학습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사진을 찍어 교사에게 제공하였다. 교사는 어린이집 앞 골목길과 횡단보도의 사진을 영아에게 보여주며 현장학습을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미리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연구자와 교사는 실제로 어린이집 앞 4차선 도로로 현장학습을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교실 내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모형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신호를 보고,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활동을 해보았다. 실제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 온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오는지 확

인하기, 손을 들고 걷기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사전활동을 실시하였다. 교실에서 횡단보도 및 신호등 모형을 이용하여 실시한 사전활동의 모습은 다음 그림 32과 같다.



약속 정하기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그림 32] ‘횡단보도를 건너요’ 사전 활동 모습

현장학습을 통한 교통안전교육활동의 본 활동은 사전답사를 통해 이동 경로에 이동하는 사람이 없고 차량 통행이 혼잡하지 않았던 오전 10시 30분경에 실시하였고, 교사와 함께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2명이 함께 동행 하였다. 영아는 보폭이 좁고 걸음이 느려서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호등의 보행신호 시간 내에 영아를 이동시키기 위해 7명씩으로 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A·B교사가 교대로 수업에 참여하고,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동행하여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교사와 연구자는 영아와 이동시 영아에게 골목길에서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이동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요’ 주제에 따른 본 활동은 표 51, 활동 모습은 사진 33과 같으며, 활동계획안은 부록 B-1-15에 제시되어있다.

<표 51> 현장학습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

번호	활동명	교수방법	안전영역
B-1-15	횡단보도를 건너요	현장학습	교통안전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그림 33] ‘횡단보도를 건너요’ 본 활동 모습

지혜: 선생님-저거 뭐예요? 트럭이에요? 큰거요?

문혜: (바닥을 가리키며) 저기 검은 곳이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연구자: 맞아, 저기 검은색 길이 차가 다니는 길이라서, 우리는 위험하니까 여기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만 건너야 해요.

<현장학습, 2017. 7. 28>

연구자와 교사는 현장학습을 통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의 본 활동을 진행하면서 영아가 질문을 통해 궁금해 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V.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변화

1.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위하여, 협력적 실행연구 사전·사후에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 사전·사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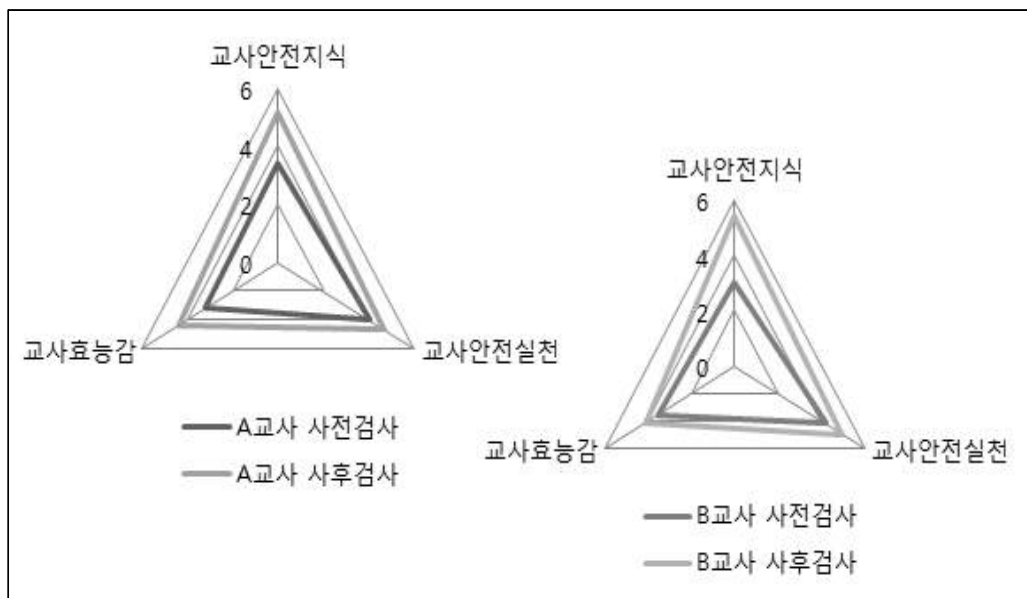
구분	A교사		B교사		평균점수(M)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교사안전의식	17.00	26.00	15.00	27.00	16.00	26.50
교사안전실천	4.03	4.69	4.21	4.97	4.12	4.82
교사효능감	3.20	4.40	3.55	4.15	3.37	4.27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교사안전의식 영역인 경우 사전($M=16$), 사후($M=26.5$)로 사후검사의 평균이 10.5점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안전실천 영역인 경우 사전($M=4.12$), 사후($M=4.82$)로 사후검사의 평균이 0.7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효능감 영역인 경우 사전($M=3.37$), 사후($M=4.27$)로 사후검사의 평균이 0.9점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영

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교사는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력적 실행연구에 따른 교사별 변화를 살펴보면, A교사는 안전지식, 안전실천, 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교사안전지식(사전 $M=17$, 사후 $M=26$)과 교사안전실천(사전 $M=4.03$, 사후 $M=4.69$), 교사효능감(사전 $M=3.2$, 사후 $M=4.4$)이 모두 향상되었다. B교사도 안전지식, 안전실천, 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결과 교사 안전지식(사전 $M=15$, 사후 $M=27$)과 교사안전실천(사전 $M=4.21$, 사후 $M=4.97$), 교사효능감(사전 $M=3.55$, 사후 $M=4.15$)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A교사와 B교사 모두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별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교사별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의 변화

2.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안전지식 및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1)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 안전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전·후로 영아의 안전지식을 검사하여 분석한 결과 영아의 안전지식에 대한 사전검사 전체 평균은 7.29($SD=2.49$), 사후검사 전체 평균은 10.93($SD=1.33$)로 사후검사의 영아안전지식 평균이 3.6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실행연구 전·후 영아의 안전지식과 하위요인별 변화는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영아의 안전지식 변화

구분	하위요인	사전		사후	
		<i>M</i>	<i>SD</i>	<i>M</i>	<i>SD</i>
영아안전지식	교통안전	1.14	0.77	1.86	0.36
	놀이안전	0.79	0.58	1.71	0.47
	대인안전	1.64	0.50	1.86	0.36
	소방안전	0.93	0.27	1.00	0.00
	재난대비	0.21	0.43	1.00	0.00
	생활안전	1.64	0.50	1.93	0.27
	동물안전	0.36	0.50	0.79	0.43
	약품오남용	0.57	0.51	0.79	0.43
	전체	7.29	2.49	10.93	1.33

영아의 안전지식의 변화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놀이안전(사전 $M=0.79$, $SD=0.58$, 사후 $M=1.71$, $SD=0.47$), 재난대비(사전 $M=0.21$, $SD=0.43$, 사후 $M=1.00$, $SD=0.00$), 교통안전(사전 $M=1.14$, $SD=0.77$, 사후 $M=1.86$, $SD=0.36$)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적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수방안전(사전 $M=0.93$, $SD=0.27$, 사후 $M=1.00$, $SD=0.00$), 대인안전(사전 $M=1.64$, $SD=0.50$, 사후 $M=1.86$, $SD=0.36$), 약품오남용(사전 $M=0.57$, $SD=0.51$, 사후 $M=0.79$, $SD=0.43$)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안전지식에 대한 비모수검증(Wilcoxon 부호 순위 검증)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영아 안전지식에 대한 비모수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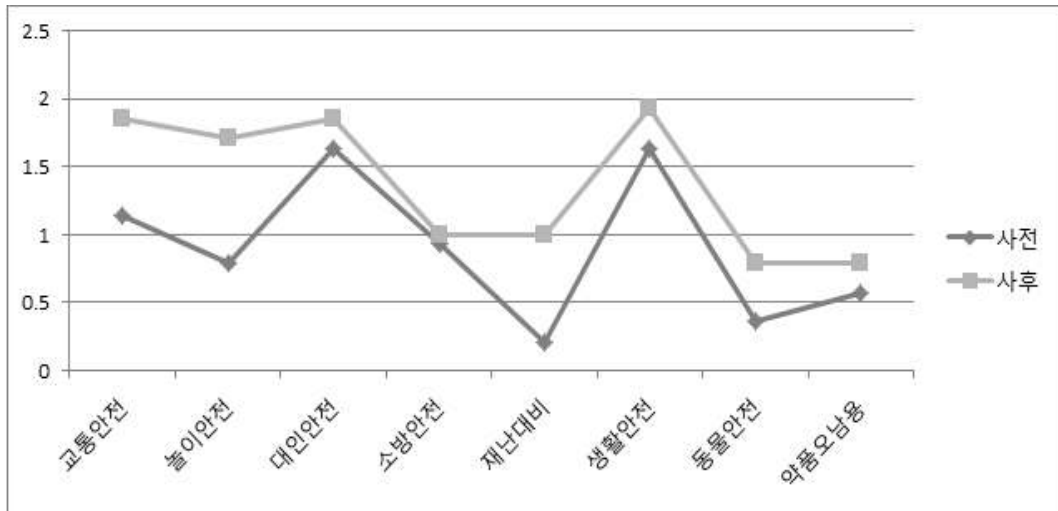
구분		N	평균순위	순위합	Z
영아안전지식 후-	음의 순위	2a	1.75	3.50	-2.789**
	양의 순위	10b	7.45	74.50	
영아안전지식 전	동률	2c			

** $p<.01$

- a. 영아안전지식 후<영아안전지식 전
- b. 영아안전지식 후>영아안전지식 전
- c. 영아안전지식 후=영아안전지식 전

영아 안전지식의 사전($M=7.29$, $SD=2.49$)에서 사후($M=10.93$, $SD=1.33$)로의 변화는 비모수검증(Wilcoxon 부호 순위 검증)결과 $Z=-2.789(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의 안전지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후 영아의 안전지식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 그림 35과 같다.



[그림 35] 영아의 안전지식에 대한 변화

2)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비안전한 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협력적 실행연구 전과 후에 영아의 비안전행동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5과 같다.

<표 55> 영아의 비안전행동 변화

	하위요인	사전		사후	
		<i>M</i>	<i>SD</i>	<i>M</i>	<i>SD</i>
비안전	쌓기	14.79	2.15	12.71	2.33
행동	역할	5.86	1.35	4.00	0.00

비안전 행동	실내 자유 선택 활동	미술	6.79	1.25	5.43	0.76
		언어	4.50	0.52	4.00	0.00
		감각	4.57	0.65	4.29	0.47
		탐색	7.07	1.00	5.71	0.91
		음률	4.64	0.63	4.29	0.47
	기타 공간	12.50	2.31	10.21	1.19	
	실외 놀이	미끄럼틀	12.79	2.39	8.93	0.73
		모래놀이	3.86	0.53	3.29	0.61
		복합놀이	5.21	0.97	4.93	1.00
	전체	82.57	8.43	67.79	5.54	

영아 비안전한 행동 사전·사후검사 결과 영아비안전한 행동 전의 평균은 82.57($SD=8.43$), 영아비안전한 행동 후의 평균은 67.79($SD=5.54$)로 사후검사의 평균이 14.78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의 비안전행동이 감소되고, 영아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실외놀이영역의 미끄럼틀(사전 $M=12.79$, $SD=2.39$, 사후 $M=8.93$, $SD=0.73$)과 복도, 난간, 교구장 등을 포함하는 기타영역(사전 $M=12.50$, $SD=2.31$, 사후 $M=10.21$, $SD=1.19$)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대한 비모수검증(Wilcoxon 부호 순위 검증)결과는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영아 비안전행동에 대한 비모수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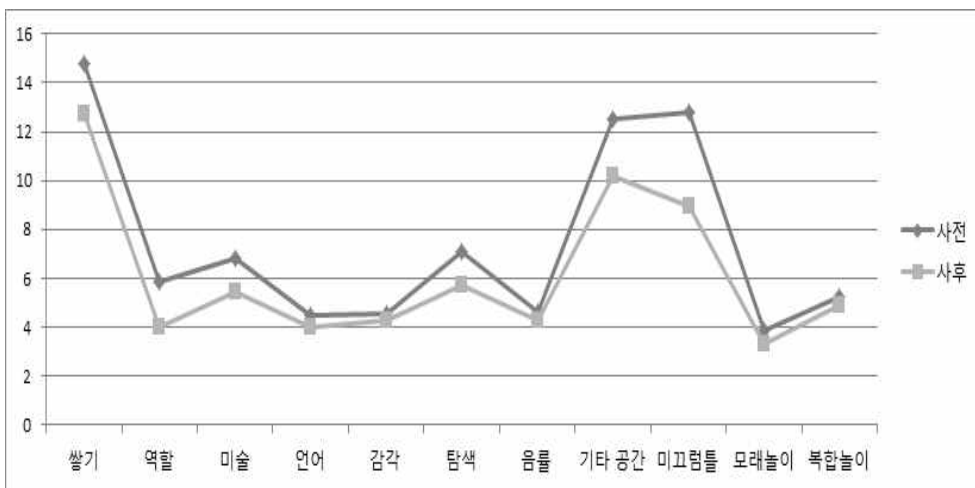
구분		N	평균순위	순위합	Z
비안전한 행동 후- 비안전한 행동 전	음의순위	13a	8.0	104.00	-2.789**
	양의순위	1b	1.0	1.0	
	동률	0c			

** $p < .01$

- a. 비안전한 행동 후 < 비안전한 행동 전
- b. 비안전한 행동 후 > 비안전한 행동 전
- c. 비안전한 행동 후 = 비안전한 행동 전

영아 비안전행동의 사전($M=82.57, SD=8.43$)에서 사후($M=67.79, SD=5.54$)로의 변화는 비모수검증(Wilcoxon 부호 순위 검증)결과 $Z=-2.789(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후 영아의 비안전행동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영아 비안전행동의 변화

3.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변화

1) 안전지식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교사

교사가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하면서 안전지식을 습득하여 자신감 있는 교사로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와 교사가 영아 안전교육의 향상을 위해 협력하여 연구를 시작 할 당시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연구의 과정에 따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안전교육은 기존에 구입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를 매년 반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안전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아반과 영아반이 유사한 형태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도 이러한 안전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잘 알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지만, 모든 교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형태이고, 교사 개인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안전자료와 수업을 준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안전교육이 매 번 똑같은 자료로 수업하니까 재미도 없고, 수업이 느는 것(교사의 교수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 1세는 한 반에 4명에서 5명이지만 2세가 되면서 7~8명으로 인원이 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사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보니 정말 학기 초에는 정신이 없어요, 사실 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구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은데 교구를 제작해서 넣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영아반 교사는 영아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 아이들 보는게 기뻐서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가?" 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사 교육도 영아반교사 보다는 유아반교사

가 위주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영아반 선생님들은 유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가르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도 교사 스스로도 교육보다는 양육과 보호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영아반 선생님들은 정말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합반을 해서 선생님이 같이 있어도 옆지르고, 넘어지고(웃음)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못 떴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교사면담, 2017. 2. 14>

또한, 교사는 자신이 안전교육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는 대학에서 배웠던 안전관리과목 외에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사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없었으며, 심폐소생술이나 아동학대 예방과 같은 원내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경험만 있었다. 이처럼 기존의 교사교육을 통해서도 안전교육에 대해 실제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교사는 안전교육 분야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었으며,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아들을 교육하다 보니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안전사고의 우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안전교수활동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늘어갈 수록 교사의 자신감도 점점 하락하였다.

대학교때 수업시간에 안전관리에 대해 배웠지만,(중략) 안전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영아를 위한 연수는 거의 본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아

에 대한 안전 연수로 성폭력이랑 아동학대랑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이
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사항이었
어요.(중략)

영아를 가리키면서 겁나는 부분이 아직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교사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혹시 사고가 일어나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실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이에요, 영아반은 크게 사고가 일어나지
는 않지만 넘어지거나 물리거나 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요즘은 부
모님들도 아이가 다치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시구요, 제가 혹시 안전
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불안해요.

<B교사 면담 중, 2017, 2, 16>

교사는 연구자와 함께 협력적 실행연구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문제에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기존 안전교육 활동 및 환경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찾아봄으로써 안전과 관련 지식을 조금씩 구성해 나가게 되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지식을 알아가게
되었고, 교사는 협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가까워질 수록, 관
련 문헌 고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함께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때로는 교사가 점차 많
아지는 관련 문헌 자료와 개선 방안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그 동
안 영아 안전교육을 수행 하면서 관련 참고 문헌 및 교육 자료를 접할 기회
가 부족 했었던 것을 안전교육 개선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다양한 문헌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교사는 실행의 과정이 진행될 수록 연구자에게 새롭게 드러난 문제나
적용하기를 원하는 교수학습방법 등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연구자와 함께 의견을 주고받아 협의하고, 계획하고, 수정하는 실행의 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을 점점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교사는 그동안 잘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던 안전교육에 관해 조금씩 관련 지식을 형성하게 되자 관련 지식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교사에게 안전 관련 지식은 잘 모르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려 했던 분야에서 벗어나 관련 지식을 더 찾아서 알아야 하는 분야로 변화되게 되었다.

김승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도 실행의 과정을 통해 안전 관련 지식이 높아질수록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수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그동안 유아를 위주로 이루어졌던 안전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영아의 발달과 수준을 고려한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영아에게 초점을 맞춘 영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을 위해서는)영아의 발달에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개념이 많이 있으면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중략)

기존에 안전교육은 계획되어 있던 안전교육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영아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수업을 했어요, 수준을 많이 내려서요, 그러다 보니 영아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도 힘들었어요, 영아의 수준에 맞아야 흥미를 보이고 재미있어 할 텐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 하니 아이들이 못 알아듣거나 재미없어 하기도 해요, 수업 중간에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거나 친구와 다른 장난감을 가져와서 놀기도 해요,

<A교사 면담, 2017. 4. 4>

교사는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을 구성하면서, 안전교육내용 및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의 만 2세 보육과정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표준보육과정의 연령 수준별 내용영역을 검토하였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설정된 안전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로 나누어 안전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해 보았다. 교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표준보육과정 및 안전지식·안전기술·안전태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교수자로서의 기술을 향상하게 되었다.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영아 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을 더 명확히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활동에 따른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안전교육 활동을 표준보육과정의 만 2세 영아 수준에 맞게 목표 및 수준을 잡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동안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을 계속 봐 왔었지만 안전교육을 계획하면서는 한번도 표준보육과정을 본 적이 없었다. 안전교육을 수업하면서 그동안 영아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 한다고 했었지만, 정작 영아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 인지를 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은 갖지 못한 것 같다. (중략) 이번 안전지식, 안전태도, 안전기술로 나누어 목표를 정해보는 활동을 통해 연령에 맞춰 활동에 따른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

<B교사 저널, 2017. 5. 16>

안전교육은 영아에게 어렵다고만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또 얼마나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는 못했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정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목표를 정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A교사 면담, 2017. 5. 19>

이와 같은 협력적 실행의 과정을 통해 교사는 그 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안전교육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이번 연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습득한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2)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하는 교사

교사는 영아의 기본 요구에 대한 지식과 영아의 발달을 위한 교수기술을 토대로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Berthelsen & Brownlee, 2007).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연구자와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안전 지식 및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교사는 안전에 관한 자료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영역은 시행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육활동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안전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실천의식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미경(2015)도 보육교사의 영아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곧 실천과도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보육교사가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 의지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영아 수준에 맞춰서 안전교육활동 계획안을 짜고, 활동을 하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렵지 않게 진행 되는거 같아요. 안전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어렵다고도 생각 했지만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거 같아요. 이번에 같이 의논하고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 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영아의 행동도 위험한 곳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환경 구성도 안전하지 않게 구성된 영역은 없는지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항상 살펴보게 되요.

<A 교사, 2017. 5. 23>

교사는 안전교육의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 과정에 들어가면서, 실천의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과정을 진행할 수록 안전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안전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쉽게 도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 뒤돌아보니 교사가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안전교육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는 연구자와 함께 문제를 찾고 의논하며 안전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안전교육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고 피하고 싶어 했었지만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이후로는 교사 스스로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데(정제경, 2010),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도 영아 안전교육을 실행하

는 경험이 쌓여갈 수록 안전교육을 잘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실행의 과정 초기에 연구자의 제안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와의 협의에서도 연구자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어내기 보다는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연구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교사: 글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구자: 오늘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을 보면, 영아들이 창문 밖을 보려고 창틀에 매달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위험한 행동이니까 창문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B교사: 네, 저도 창문에 아이들이 매달리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문 밖을 보려고 계속 뭔가를 붙잡고 올라가려 하거나, 뺨고 올라서더라고요.

연구자: 교구장을 자주 붙잡고 올라가니까 교구장이 넘어가서 영아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창가에 뺨고 올라설 만한 것을 치우고 교구장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B교사: 교구장을 어떻게 고정 할까요? 바퀴가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퀴는 떼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를 끼워야 할까요?

<B교사 면담, 2017. 4. 18>

교사는 영아에게 교사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안전지식을 전달하려고 해서 함께 문제로 지적했던 안전교육의 방법처럼, 연구자와의 협력에서도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 자신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실행과정을 통해 영아가 안전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협의하여 제공한 안전교육 교재교구로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자 교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 교사가 함께 낸 아이디어로 안전교육활동이 개선되고, 함께 제작하여 교실에 배치한 안전교육 교재교구들에 영아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자 교사는 연구자와 협의 과정에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는 영아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에 신기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면서 실행의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수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에서 협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행의 과정을 제안해 나가는 연구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아들이 소화기를 들고 건물에 불꽃을 떨어트리는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어서 껌충 껌충 뛰더라구요, 특히 소방대원 옷을 입고 활동을 하니까 서로 입고 싶어하면서 더 좋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아이들이 좋아해서 교실에 두고 며칠동안 활동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실에는 분말용 소화기는 없고 투척용 소화기가 있는데,..이번에는 투척용소화기를 이용한 교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꽃을 없애는 놀이에 특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교사협의회, 2017. 7. 13>

이처럼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가하여, 주도적으로 실행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 교사의 변화는 교사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었다. 교사들은 그동안 평가하기 보다는 평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협력적 실행연구를 시작하기 전 교사들은 자신의 안전교육 교수방법이나 교수 기술이 평가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수업평가를 받는데 매주 수업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긴장이 되더라구요.(중략)
안전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수업을 할 때 오셔서 보시면 실망하실까봐 걱정이 되요, 수업 할 때 질문하고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다 보고 평가 받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요,

<A교사, 2017. 2. 7>

교사들은 동료평가를 하거나, 원장이나 평가자에게 수업을 평가 받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자체가 교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연구자의 과정은 계획과 실행, 평가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의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계획하여 수업한 과정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은 협력적 실행연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교사는 평가의 과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러한 실행의 과정에서 평가를 어려워하였다.

교사는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 스스로의 눈을 통해 교수 -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길러진 반성적 사고는 당면한 상황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해준다(O'Loughlin, 1992). 이에 연구자는 안전교육의 운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개선점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 위해 교사와 함께 교사 회의, 안전교육활동, 면담이 끝날 때마다 반성적 사고를 통한 평가를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교사는 평가의 과정을 어려워했지만, 평가와 평가가 반영되는

협회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교사 스스로 교육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에 의한 교사의 행동은 문제 상황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탐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Zeichner, 1981). 즉, 반성적 사고는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제 상황을 탐구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개선의 과정으로 협력적 실행의 중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평가 과정에서의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을 인식 한 뒤 반성적 사고를 반영한 저널을 쓰기 시작했다. 교사는 안전교육활동 후 저널을 쓰기 시작하면서 수업과정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었고 반복적인 자기 반성과 수정을 거쳐서 더 개선된 안전교육을 위한 방향을 만들어 나갔다. 또한 자신의 수업활동 중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교실 환경 부분에 실내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영어반 이어서 교구장을 벽으로 붙여서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영어들이 교구장을 올라타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역할 영역의 장 문을 열고 닫고 하며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 손 끼임 방지가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 화장실, 계단 등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 교실에서 영어들이 책상 위의 올라가고 계단에서 뛰기, 손잡이 잡지 않는 등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여 기본 생활 안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남자 영어들이 많다 보니 놀잇감으로 다투거나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어 필요로 할 것 같다.

<교실에서 위험한 부분 찾기 저널, 2017. 4. 12>

지진 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에 대해 활동을 해보았다. (중략)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은 실제로 일어난 지진 동영상이었다. 소리가 크고 땅이 흔들리고 물건을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자 몇 명

영아는 귀를 막고 무서움을 느꼈다, 그래서 안아주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을 때 침착하게 선생님과 엄마 말씀을 들으며 잘 대피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교사가 준비한 모형 집을 보여주어 예쁜 집에 옷장과 의자 책상 등이 있어 그런데 아까 동영상처럼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하자 영아는 "대피해요, 계단으로 가요 머리를 숙이고 가요" 등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교사가 모형 집을 흔들자 집안에 있던 가구가 떨어지자 영아들은 "떨어져요 위험해요" 라고 말하였다, (중략) 영아들이 지진이라는 재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영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니깐 조금 이해를 하고 말해주었다, 다음번에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주어야 겠다, 인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진 시 대피요령 저널, 2017, 7. 31 >

반성적 저널 쓰기과정을 통해 교사는 수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수업의 과정과 수업에 따른 영아의 반응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다음 활동 때 반영하여야 할 개선점을 찾아 재계획에 평가를 적용하는 교사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교사는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 해 나아갈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3) 협력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형성한 교사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에 지속하여 참여해야 하고, 교사로서의 성장과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은상 외, 2013). 이처럼 교사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는데,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실행연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교사는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협력,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 위해 연구자와 현장의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는 현장의 중심에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의 깊게 현장의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A교사: 안전교육활동을 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 "이렇게 해볼까" 하고 계속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옆에서 잘못된 것이나 계획해서 활동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까, 저도 잘못된 부분을 찾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중략)

B교사: 어린이집은 평가가 많이 나오니까 환경을 구성 할 때도... 환경구성을 하면서도 안전영역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환경을 구성했었는데, 환경구성에 대한 지표랑 방법을 알고 나니까 환경구성을 자꾸 바꿔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저도 어린이집에 평가는 많이 다녔었는데, 평가를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과 실제로 환경을 구성하는 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 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교사협의회, 2017. 6. 5>

또한, 연구자는 안전교육과 관련한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사이에

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협력의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다.

교사는 이렇게 연구자와의 실행과정을 통해 협력을 통한 성장을 경험한 뒤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로의 경험이나 영아의 발달 특성, 교수방법, 행동지도 등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교사 상호간 구성된 협력적인 관계는 교사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자극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연구자: 자세한 내용은 B선생님 오시면 계속 이야기할게요.

A교사: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전달해주고 같이 준비하면 되고요, 같이 안전교육을 시작한 뒤로 둘이 상의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연구자: 네, 선생님 두분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니까 활동 결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A교사: 제가 어려워하는 건 B선생님께 부탁하고, B선생님이 어려워하는 건 제가 하려고 해요, 서로 미루지 않고 하니 불편한 건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중략)

A교사: 요즘은 우리끼리 있어도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아이들 얘기도 하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둘이 상의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요, 회의시간에 얘기한 것들 대부분 같이 상의해서 생각해낸 것 들이에요.

<교사 협의회, 2017. 6. 29>

또한, 이렇게 교사 간 구축된 협력관계는 주변 동료에게도 이어져서 원내에 교사들 간에 협력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사가 준비하는 교재교구와 안전교육활동에 동료교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관련 교구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큰반 선생님들도 저희가 만든 안전교구를 쓰고 싶다며, 빌려가서 돌려가며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안전교육하면서 저희반 활동에 많이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할게 많으면 도와준다고...큰반 선생님은 교재교구실에 교구를 많이 아니까 나중에 교재를 찾을 때 부탁해야겠어요,

<B교사 면담, 2017. 6. 15>

교사는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자료와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사는 협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구체화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된 자료 및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수집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현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자료를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배운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책 하나를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말았는데...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안전교육 위한 교수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논문을 이렇게 찾아서 끝까지 읽어본 건 처음이에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주제에 맞는 논문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사협의회, 2017. 7. 4>

또한, 협력적 실행의 과정을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행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업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여 남기게 되었다. 실행의 과정을 평가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는 교육 관련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사의 습관은 스스로 반성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난감을 뺏지 않아요’ 주제로 활동을 해보았다. 쌓기 영역 놀잇감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쌓기 영역 놀잇감을 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쌓기 영역 놀잇감이 모서리 부분, 울퉁불퉁 한 놀잇감이 많아 위험함이 높았던 것 같다. 다음번에는 교사 주도 수업이 아닌 영아 주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영아들이 활동 하기전 충분히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교사저널, 2017. 7 10>

4.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1)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게 된 영아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은 협력적 실행과정의 통해 위험한 상황과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영아로 성장하게 되었다.

영아는 아직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이기숙 외, 2012). 영아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영아의 안전사고

를 예방, 안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고 관련한 안전지식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영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려 주었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위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영아는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영아들은 학기 초 영아 안전교육 활동을 시작 했을 때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였지만 안전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기는 호기심이 많은 시기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안전교육 활동이지만, 새로운 활동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보이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교육 활동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예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약은 자기 약만 먹어야 해요, 모두 아픈 곳이 달라서 다른 친구
의 약을 먹으면 안돼요,

규리: 난 약 먹고 마이쥬 하나만 먹었는데...

교사: 규리는 약 먹고 쓰니까 마이쥬를 먹었구나,

그리고, 내 약이어도 한번에 많은 약을 먹으면 안돼요, 의사 선
생님이 먹으라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먹어야 한대요,

다희: 배가 탈나

지안: 배불러~

<약품오남용, 2017, 3. 21>

위의 사례처럼 약에 대한 안전지식이 없는 영아들은 약품오남용 교육 내

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은 약의 용도와 용량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약을 아플 때 먹는 음식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약을 복용양 만큼 먹어야 한다.’,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교육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영아는 약을 마치 음식처럼 많이 먹으면 소화가 힘들어서 배가 부르고, 배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교사: 자, 불이 났어요, 대피해야 해요, 선생님 뒤로 오세요.(중략)
(줄을 서지 않는 영아를 보며) 민수야, 민수도 대피 해야지,
민수: 나~ 안가~이따가 엄마 오면 갈 거야(울음)
<소방대피훈련, 2017. 3. 29>

위 사례에서 영아는 소방대피훈련을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에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화재가 발생한 위급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에서 대피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영아가 안전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영아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위험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될 수 있었다.

교사: 화장실에 와서 쉬야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몰래 와서 보고 있어,
규리: 지호 같다,
교사: 그래서, 친구가 속상해 하고 있대
수진: 슬퍼서?
여경: 엄마보고 싶어서 그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017. 3. 28>

위 사례에서처럼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친구의 몸을 몰래 보지 않아요’라는 활동에서도 영아는 안전 문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내 몸은 소중한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다른 친구의 몸을 함부로 보지 않는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른 영아의 몸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하였다. 영아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친구가 봐서 창피해서 우는 친구 그림을 보고 친구가 우는 이유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영아는 우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보고 싶어 슬퍼서 운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상황 인식의 차이는 영아가 해야 하는 안전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달라지게 하였다. ‘친구의 몸을 함부로 보면 친구가 속상해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을 찾게 했다. 이처럼, 영아의 안전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안전 상황 인식은 적절하지 않은 안전 행동 및 대처로 이어졌다.

영아에게 안전에 관련된 지식과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아가 상황을 보고 위험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교사: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보보하는데 표정이 어때?

재희: 슬퍼요,

교사: 싫어하는 표정이지~

슬기: 싫어? 싫어~~~(손을 흔들며)

교사: 맞아, 친구가 보보 하는게 싫으면 싫어~~~(손을 흔들며)하고

이야기 해주어야지

슬기는 친구가 싫어하는데 보보 할 거예요?

슬기: 응(고개를 끄덕) 사, 랑, 해~

<성폭력예방 및 아동학대, 2017. 4. 25>

위 사례처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은 영아가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영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영아는 사건에 인과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아가 무심코 한 행동이 위험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며, 장난감을 밟아서 발이 다친 사진을 보여주었다)영아들은 "울어요 아파요 정리를 안해서 밟아서 아파요" 라고 이야기 하였다. 인형이 놀잇감 밟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인형 발이 어떨까?" "교실 바닥이 어때요?" 등 물었다. 영아들은 "발이 아야해요, 피가 나요" 라고 이야기 해보았다. 한 명씩 나와 장난감을 피해 걸어봐야 하는데,, 전부 다 나와서 하게 되 조금 정신없는 상태에 하게 되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난감을 피해서 걸어야 하는데 아파하며 장난감을 밟으며 걷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영아들은 교사의 말을 따라 장난감을 피해 걸어보았고 장난감을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해보았다. 장난감에 대해 충분히 탐색을 하고 영아들도 장난감을 만져보고 느낌이 어떤지 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교사 저널, 2017. 5. 2>

위의 사례에서처럼 영아의 잘못된 안전 인식은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교사의 저널을 보면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라는 활동으로 교사가 장난감을 밟아서 장난감이 울고 있는 사진과 장난감에 발을 다친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바닥에 놓여진 장난감들을 피해서 지나가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영아들은 장난감을 밟아서 다친 그림을 보고도, 장난감을 피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림을 따라 장난감을 밟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난감을 밟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지식을 배웠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적 실행의 과정을 통해 영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알려 주기 위해 활동을 제공하였다. 영아는 다양한 안전교수방법을 통해 얻은 직·간접적인 안전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안전한 행동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영아는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안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전지식은 영아에게 위험상황을 인식 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험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사 : 불은 집도 태울 수 있지만 나무와 산도 태울 수 있는데, 쓰레기를 태우고 작은 불씨기 커다랗게 변해서 이렇게 무섭게 불이 변했대요, 애들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현 : 구급차

수진 : 소방아저씨를 불러요, 물 주세요.

교사 : 맞아 소방관 아저씨를 불러서 물을 뿌려서 불을 꺼달라고 해야지요.

석현 : 119 아저씨, 불 났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전화해요.

<소방안전, 2017. 6. 20>

위의 사례처럼 영아는 불이 난 위험 상황에 대해 인식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소방관을 불러야 한다는 것과 소방관을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것, 소방서는 119로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안

전 관련 지식은 영아가 위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아는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법 찾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의 소방대피훈련과 소방교육의 사례에서도 영아는 불이 있을 때 대피해야 됨을 알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 대처방안으로 소방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 (중략) 그렇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 가까이에는 가지 않도록 해요, 위험해요, 봐봐, 이 아저씨가 지금 차에 태우려고 한 대, 손을 잡고 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저씨가 "지호야 가자" 하고 차에 딱 태우려고 해(지호 손을 잡고) 그럼, 이지호 어떻게 해야 해?

지호 : 안돼요, 싫어요, (손으로 X자를 그린다)

여경 : 태우고 가면 어린이집도 못 와요, 엄마, 아빠도 못 만나요.

교사 : 자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영아 :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세현 : 큰~(손을 크게 벌리며)소리로 말해야 되요,

<소방안전, 2017. 4. 25.>

교사 :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아 : 빨리 밖으로 나가서 놀이터에, 놀이터에(어린이집 대피장소)

교사 : 응 놀이터 바깥으로 뛰어 나가야겠다, 그치? 그러면 도망갈 때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야돼?

영아 : 계단으로, 계단으로(손을 다급하게 흔들며) 엘리베이터는 안돼요.

교사 : 응 계단으로 내려가야되겠다, 그치?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어? 그러면은 연기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영아 : 이렇게(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며)
교사 : 응 어디를 막아? 입하고 어디를 막고 나가야되지?
영아 : 코에 구멍, 여기 (코를 가리킨다.)

<소방안전, 2017. 5. 9>

위의 사례처럼 영아는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통해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해야 뭘을 알고, 대처방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야 하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피해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코와 입을 가리고 몸을 숙여 이동하는 행동을 보이며, 알고 있는 안전지식을 스스로 실천 하여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아는 안전교육 시간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교육을 통해 습득한 안전 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영역 창가에서)친구가 창문에 가까이 가자
다희 : 창문에 매달리면 안되는 거 알지?
재희 : 창문에 매달리면 안되지~ 여기에 매달리면 꼭 떨어져서 병원가야 되지
다희 : 선생님 없어도 올라가면 안돼
재희 : 떨어지면 꼭-해서 피나서- 병원가야 돼, 백병원.

<자유선택활동 시간, 2017. 7. 6>

위의 사례처럼 영아는 친구가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창문에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여 예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으로 ‘창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안전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안전한 습관을 시작하게 된 영아

영아들은 영아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영아기부터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한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아는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지식을 배우고,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안전 행동 및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아기부터 습득한 안전한 행동은 어른이 도어서 까지 평생에 이르는 좋은 안전습관이 될 수 있다(Kendrinks, Kaufmann & Messenger, 1988). 영아는 교육을 통해 체험한 안전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영아기의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 안전한 행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영아기는 생애에서 안전과 관련된 결정적 시기로 영아기 때 형성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습관, 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이영환 외, 2016). 이처럼 영아는 영아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한 행동을 위한 습관의 첫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영아들은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었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한 약속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지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은 못하고 있었다.

*A교사가 의자에 앉아 상어가 나타났다, 손유희를 하자 영아들이 매트
로 다가간다,

*B교사가 뒤로 가서 뒤쪽부터 영아들을 끌어와서 매트에 차례대로
앉힌다,

A교사: 엄마상어~ 엄마상어~

민수: 나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지호 무릎 위로 앉으며)

지호: 야-(소리치며 민수를 밀친다) 저기 가

민수: 안 보여(지호를 같이 밀치며, 지호와 수진이 사이에 좁게 앉는다.)

<자유선택활동 마무리, 2017. 3. 24>

위의 사례에서처럼 영아들은 활동을 시작하면 매트에 가서 앉는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앉을 자리를 찾아서 앉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이 매트로 가서 서 있으면, 교사가 와서 친구와 안전거리를 두고 조금씩 떨어트려서 앉혀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시작된 활동에 흥미를 빼앗긴 영아들은 매트 위에 앉아 있는 영아를 밟고 지나가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앉아 버려서 매트에 먼저 앉은 영아가 부딪히거나 밀리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그리고 이미 매트에 앉은 뒤에도 더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미 영아가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친구들을 밀치고 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경: 야, 같이 가야지, 빨리 가자

(다희가 앞에서 한걸음씩 걸음을 떼며, 계단을 내려가자)

여경: 천천히 가지마,

다희: 밀지마,

여경: 같이 가야지(앞에 줄이 멀어지자 다희를 앞으로 밀친다)

다희: (손잡이를 잡으며) 야, 밀지 말라고, 가고 있잖아,

교사: 여경아, 계단에서 친구를 밀면 안돼요, 위험해요,

여경: 아, 미안해요, 그런데 다가는 데 애가 안가요,

<계단 이동 중, 2017. 4. 20>

위 사례에서처럼 영아는 계단에서 친구를 밀지 않고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올바른 안전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에 영아의 더딘 걸음으로 인해 앞에 줄서서 이동하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자 빨리 내려갈 것을 재촉하며, 계단에서 앞 친구를 밀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교사가 다가와 제지하자 놀라며 바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이미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는 방법과 계단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계단을 내려가는 상황이 되자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는 모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가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지식과 위험한 상황을 아는 것과 함께 이러한 지식을 올바른 안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친구를 괴롭히는 그림을 보고 있다.

교사: 여기 친구가 울고 있어 어떻게 해줘야 하지?

다희: 안돼요.

교사: 안돼, 싫어, 하지마라고 얘기해 줘야지

다희: 안돼, 싫어, 하지마(교사의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

지안: 안돼, 싫어, 하지마(교사의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

교사: 이 그림은 언제?

*친구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주자 다희와 지안이 뽀뽀하는 것처럼

입술을 내밀고 그림을 따라 한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017. 3. 28>

위의 사례에서 처럼, 영아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안전교육활동에서 보여지는 활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익히는 모습이 보여졌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활동으로 다른 친구가 싫어하는데 안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아

는 교사의 수업에 따라 “안돼, 싫어, 하지마”라는 말을 따라하면서도, 정작 영아들의 행동은 활동자료 속에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다. 이처럼 영아들은 교사의 행동이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며, 안전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에게 뽀뽀하는 모습이 나오자 똑같이 뽀뽀하는 모습을 흉내 냈으며, 친구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자 팔을 앞으로 뻗어서 무언가를 안고 있는 듯한 모양을 흉내내었다. 이처럼 영아들은 교사나 또래의 행동이나 안전교육자료에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아에게 올바른 안전 기술과 안전한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범과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 지식을 안전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안전한 습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영아에게 올바른 안전행동의 모델링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아들이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행동을 교육하고, 안전한 행동 사진을 찍어서 영아가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 곳에 게시하고, 영아가 안전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린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유희실로 이동한다.

민수: 안녕하세요.(연구자를 보고 두 손을 흔든다.)

수진: 이거 잡아야지(민수 손을 잡아서 계단 옆 손잡이로 가져간다.)

민수: (손잡이를 잡고 연구자를 보며)이거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석현: 여기 그림에 있는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연구자: 아-여기 계단 옆에 사진이 있구나, 이거 보고 따라서 내려가는 거야?

민수: 멋지지요? 이렇게 잡고 내려가야지, 친구 밀면 안돼요.

<계단이동 중, 17, 5, 3>

‘위험해요, 만지지 않아요.’ 수업 후 교실에 영아가 만지면 안되는 곳에 X표시를 붙여 두었다. 교실에 너무 부정적인 표시가 많을 까봐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영아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X표시를 보고 “야, 저기는 삐- 우리가 만지면 안되지” 라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험해요’, ‘만지지 말아요’ 라는 약속에 따라 영아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실제로 콘센트 등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고 조심하는 행동을 보였다.

<교사 저널, 2017. 4. 18>

위의 사례처럼 영아는 사진 속 올바른 모습을 따라 하며, 안전하게 계단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험한 곳이나 물건을 알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실제 안전한 행동을 교사의 시범이나 자료를 통해 모델링하며 안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식을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도 행동으로 익히기 되었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의 안전에 대한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목표 및 활동을 다시 설정하고 재 계획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안전 지식을 전달하던 안전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안전한 행동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협의하여 영아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정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목표를 정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니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교사 면담, 2017. 5. 19>

안전기술, 안전지식, 안전태도로 나누어 안전교육의 목표를 다시 정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 그동안 이른 위주도 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나누기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기만 하였는데, 이제 영아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행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 보아야겠다.

<B교사 저널, 2017. 5. 19>

위의 사례처럼 영아가 안전한 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연구자와 교사는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태도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설정하고 영아에게 효과적인 안전교육활동 제공하기 위한 실행과정을 진행하였다.

영아는 안전지식과 행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안전 행동 및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안전한 습관과 태도는 영아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교사: 오늘 우리 지안이가 책을 친구들이 같이 읽고 싶다고 책을 3권

이나 가져왔네

*세현이는 친구 맨 뒤에 매트 빈자리에 가서 서서 동화책을 본다.

교사: 이건 뭐지?

다희: 악어(손으로 악어 입 모양을 하며 뛰어 오름)

석현: 영, (앞을 보려고 뒤로 몸을 젖히며) 안 보인다고 줘야,

문혁: (석현 뒤에 앉아 있는) 문혁이 있어, 아니야

*석현이가 뒤를 돌아보고는 바로 뒤에 앉은 문혁이를 확인하고,

매트 뒤로 가서 넓은 곳에 가서 앉는다.

위의 사례처럼, 영아들이 교사와 함께 매트에 앉아서 활동을 할 때 서서 활동을 하고 싶은 영아는 다른 영아가 없는 가장 뒷자리로 이동하고, 앞에

친구 때문에 교사의 책이 잘 보이지 않는 영아도 뒤로 가서 매트에 넓은 곳을 찾아서 앉는 모습을 보였다. 학기 초기에는 매트에 앉아서 일어나서 또래를 밟거나, 매트 앞으로 가기 위해 앞쪽으로 이동해서 또래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교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다른 영아를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이처럼 안전교육을 통해 단순히 안전에 관련된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안전한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3) 나, 너...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아

영아들은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또래와 안전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영아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아들은 다양한 안전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으며, 안전교육을 통해 영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아가 안전교육을 통해 쌓은 또래와 어울리는 경험은 영아가 혼자 놀이에서 벗어나 또래에게 관심을 갖고, 또래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또한, 영아는 안전교육을 통해 소방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과 같은 안전교육을 통해 교실을 벗어나 어린이집 전체의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류의 기회는 영아가 주변 구성원을 인식하고 관심 갖을 수 있도록 영아를 변화시켰으며, 영아의 사회관계를 나, 너의 관계에서 나, 너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확장 시키게 되었다.

협력적 실행연구 초기에 영아들은 거의 혼자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율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뭐든 혼자서 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였다. 영아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놀이의 과정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 가면서 스스

로 혼자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은 또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중심적인 영아에게 또래는 어린이집에 와서 만나게 되는 관심의 대상 일 뿐 함께 놀이와 활동을 하는 대상은 아니었다. 영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중심화 경향으로 또래를 좋아하고 놀이를 함께 하고자 하지만, 협력 및 양보가 불가능한 시기(이기숙 외, 2011; 정아란, 2011)이기 때문에 또래와의 놀이는 잘 일어나지 않고, 놀이가 일어나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 곧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지호: (번호를 누르며) 여보세요, 엄마, 빨리 오세요, 지호 데리러 오세요,

문수: (지호를 보고 있다가 전화기를 가져간다)

지호: 야, 그거 내거잡아,

문수: (양손에 전화기를 들고 귀에 가져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호: 아, 내꺼, 내 전화기 줘

*교사가 다가와서

교사: 문수야 이거 지호가 가지고 놀던 전화기잖아, 같이 놀아야지, 이거 지호 주자,

문수: 자(지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화기를 던진다)

지호: 그거 니거잡아, 내꺼 줘,

<자유선택활동, 2017. 4. 13>

위 사례처럼 영아는 또래와 함께 있더라도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놀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영아는 놀이 중 자신의 뜻대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자 놀잇감을 친구에게 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영아들은 또래에 놀이에 관심은 보이고 있었지만, 함께 놀잇감은 나누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놀잇감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실 내에 동일한 놀잇감을 2개 이상씩 여러개 구비

해 두고, 영아 각자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교실에 영역에 배치해 두려면 적어도 칫솔을 2세트는 만들어야 해요, 친구랑 같이 놀이를 하기는 하는데,..꼭 놀이를 하다보면 장난감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같이 놀아도 교구는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친구랑 사이좋게 같이 가지고 놀지도 않으면서, 꼭 친구라 같이 옆에 앉아서 놀고 싶어해요.

<교사 면담, 2017. 6. 20.>

위의 사례처럼 영아는 또래와 같은 장소에서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또래와 함께 놀이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통해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교구를 제작하고 영아들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서, 영아에게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현이가 거울을 보고 세현이 키만한 칫솔 교구를 들고 양치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세현: 이거 이렇게 치카 치카 치카,

문수: (세현이를 보고 손으로 양치하는 모습을 따라한다.) 치카 치카

세현: 양치 할래?

문수: 나두 할래

세현: 내가 해주께, 치카 치카 치카

문수: 내가 하께(세현이의 칫솔 교구를 가져온다)

치카 치카

세현: (문수가 하는 양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와줄까?

문수: 아니, 나 하고 너 주께

<양치질을 해요 활동 후, 2017. 6. 15>

영아들이 안전교육을 위해 제작한 안전교육 교구에 관심을 보이면서, 또래의 놀이에도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함께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양치질을 해요’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고 난 이후에 안전교육 수업에 활용했던 교구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함께 즐겁게 활동 한 경험 때문인지 친구의 놀이를 기다려 주며, 서로 번갈아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에게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래에게 때때로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물지 않아요’라는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해서 실행해 보았다.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가래떡을 이용해 화가 나서 친구를 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2명의 영아에게 가래떡을 주고 번갈아서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 치아 자국이 남은 모습을 가래떡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교사: 화가 난다고 친구를 짹 물면 어떻게 될까?

여경: 친구가 아파요

슬기: 물면 피나요

교사: 맞아, 친구가 아파하고, 다쳐서 상처가 생기거나 피가 날수도 있겠다.

재희: 그냥 친구가 놀고 싶다고 하면 장난감을 줘야 되요

교사: 재희는 친구가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장난감을 양보해줄거예요?

다희: 나도 빌려주고 기다릴거예요.

<생활안전교육, 2017. 5. 10>

위 사례처럼 영아는 ‘친구를 물지 않아요.’라는 활동을 통해 또래와 함께

활동을 위해 나누어 준 가래떡을 함께 사용해 보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활동의 결과를 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모르고 자신이 행동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위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피해, 대처 방법 등을 배우면서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영아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또래와 어울리는 경험을 쌓아 감으로써 점차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슬기: 나 이거 안할래요,

교사: 왜? 슬기야 조금 있다가 할래?

슬기: 나, 핑크색이요

교사: 슬기는 핑크색 카시트에 앉고 싶구나,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핑크색 의자에 앉자

수진: 자, 그럼 니가 여기 앉아,

슬기: 어, 고마워

수진: 파랑도 좋은 거야,

교사: 수진이가 슬기에게 카시트 장난감을 양보했구나, 그럼 수진이 파

랑 앉을래, 수진이는 파랑색 좋아해요?

수진: 핑크색, 근데...친구한테 양보할 거예요,

<카시트에 앉아요, 2017. 7. 20>

지호: 자, 우리 위험하니까 손잡고 가자,

석현: 살살,

지호: 살살? 아프니까 살살 잡을게,

석현: 우리 좋으니까 손잡고 가자,

지호: 횡단보도 갈 때도 손잡고 가자

<횡단보도를 건너요, 2017. 7. 28>

위 사례처럼 영아는 또래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또래의 감정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영아의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또래에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영아는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또래와 공통의 관심사인 안전에 대해 또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또래가 모르는 안전지식이나 행동을 알려주며 돕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가 영아에게 " 어떤 그림이에요? " 라고 묻자 영아는 " 미끄럼틀이에요, ", " 놀이감이 있어요, " 라고 말하며 카드를 바구니에 넣었다. 조금 헛갈려 하는 영아도 있었지만 또래가 알려주어 바르게 넣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영아들이 올라가면 안되는 곳과 올라가도 되는 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활동을 한 후 사진을 붙여 주자 영아들은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니 부듯했다.

<교사저널, 2017. 4. 20>

영아는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또래와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익히고, 또래와 어울리는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자제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방식을 배워나가게 된다(김숙이 외, 2014). 이처럼, 영아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통해 또래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전교육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을 익히고 또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영아는 주변 구성원을 인식하고 관심 갖았으며, 영아의 사회관계도 영아의 주변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영아는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전체의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류의 기회는 영아가 주변 구성원을 인식하고 관심 갖을 수 있도록 영아를 변화 시키게 되었다.

영아는 누군지 모르는 처음 보는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 왔을 당시 무척 낮설어 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서자 영아들이 하고 있던 활동에서 멈추고, 연구자를 쳐다본다. 몇 명을 일어서서 연구자를 쪽을 보며 교실 안쪽으로 이동한다.

교사: 애들아 누구실까? 이제 우리 새싹반 보러 자주 오실거래, 안녕하세요,
세요,

지호: 누구예요?(교사 옆으로 붙는다)

*연구자가 교실 문 앞 미술영역에 앉자 영아들이 미술영역 반대편으로 이동한다.

위 사례처럼, 연구자가 처음 관찰을 위해 교실을 방문했을 당시 영아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연구자 근처에 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연구자를 많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자주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실에서 참여 관찰을 통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영아들은 연구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어린이집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서자

지호: 어, 왔다.

규리: 선생님, 왜 어제 안 왔어요? 개나리반에 갔었어요?(만 1세반)

지호: 오늘은 새싹반에 왔다-(손을 들고 자리에서 뛰다.)

교사: 어제 규리가 간식 가져 왔었는데, 그래서 왜 안오셨지 물어보나봐요, 요즘에 애들이 선생님이 안 오시냐고 자꾸 찾아요.

<자유선택활동시간, 2017. 7. 4>

또한, 영아들은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구성원에도 관심을 보이며, 관계를 확장시켜 가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는 소방대피훈련을 통해 어린이집 전체 구성원이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벗어나 다른반 선생님들과 형, 누나, 동생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린이 울리자 영아들이 교사 뒤로 모여든다,

교사: 자 불이 났어요, 주방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다희: 불이야!

석현: 브이아(손으로 입을 막고 불이야를 외친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교사 뒤에 서서 비상 대피로 앞으로 이동한다,

교사: 애들아, 밑에서 선생님 받아 주실거예요, 한명씩 천천히 내려가자
(중략)

*놀이터로 대피 후, 각반의 인원을 보고 한다,

교사: 우리 친구들이 신속하게 대피해줘서 오늘 모두 무사히 대피했어요,

지안: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다른반 쪽을 살펴보니)원장님은요?

교사: 원장님은 지금...(원 쪽을 바라보고는 대답을 하지 못함)

지안: 원장님도 도망쳐야 되는데, 위험한데

<재난(소방)대피훈련, 2017. 7. 20>

위 사례처럼 영아는 소방대피훈련과 재난대피훈련과 같은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내에 다양한 구성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은 영아가 속해 있는 교육기관 내에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형제가 없는 영아가 많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시설에서는 영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교육시설 내에 구성원을 만나고, 다른반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어울려 활동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방대피훈련과 같은 안전교육활동은 안전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영아에게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되기도 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교사와 연구가 함께 협력적 실행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 관련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과 협력적 실행연구의 의미에 대해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논의

1)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과정은 협력적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과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협력적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연구자는 교사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력적 실행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사가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보완해 가면서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김정숙,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동등한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연구자의 이론적 견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며, 교사가 주도적으로 안전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

사의 참여 여부 확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 활동을 개선하기 바라는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협력적 실행연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접근해야 한다(Hilson, 2006).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가 자발적으로 실행연구의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해 교사의 실제적인 문제인식이 중요하다는 최혜윤(2015)의 주장과 상응하며,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과 교사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교사와 연구자의 공통된 문제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실행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면담과 참여관찰, 객관화된 지표 검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사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적 실행연구를 시작하면서 공동의 실행 목표를 세우고, 협력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지혜, 2011; 최혜윤, 2015; Tomal, 2010). 연구자는 사전진단으로 교사들과의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각 교사별로 안전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과 안전교육에서의 느끼는 어려움,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및 교사효능감에 대한 객관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교사의 안전지식 인식과 안전실천 정도와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들의 안전지식과 비안전행동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영아별 안전행동과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전 진단을 통해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진행해야 할 협력 과정의 시작점을 맞춰 볼 수 있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과 교사의 사전진단 결과를 협력적 실행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연구자와 교사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고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난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는 교사와 함께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목표 설정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동향, 영아 안전 관련 법규,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안전교육 평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읽고 연구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협의의 과정을 통해 함께 인식한 문제점들을 구체화하였다. 교사들은 문헌연구의 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서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문제점과 관련된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문헌고찰을 통해 안전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안전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행연구 시 문헌자료 검토를 통한 관련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용숙외, 2015)에 상응하고,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에서 문헌을 통한 지식 함양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행동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최혜윤(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 현장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력적 실행과정은 ‘안전한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하기’,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 ‘다양한 영아 안전교육 교수법 적용하기’를 주제로 3

차 실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행연구의 문제인식 및 계획, 실행, 반성 및 재계획의 순서에 따라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1차 실행은 ‘안전한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하기’로 보육환경의 실제적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연구 시작 당시 H어린이집 및 새싹반의 교육 환경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실내외 설비 및 보육실이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위험 상황을 줄여나가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이영환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보육시설 점검 지표 중 안전에 관련 된 부분을 발췌하여 교사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내 환경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찾아 함께 개선하였다.

또한, 위험한 환경 안전사고 기록지와 안전점검표, 일지 등의 기록을 통해 그 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원인을 찾고, 원내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의 유형과 사고가 일어나게 된 장소와 원인을 분석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다. 영유아교육기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조남숙, 2013). 영아는 발달상이 특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사고를 예측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어난 사고를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안전사고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육환경 내에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었으며, 영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영아의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하여 제공함

으로써 안전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던 강성희(2003)의 연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영역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현장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조남숙(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 안전교육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내용 구성이 중요하며, 환경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차 실행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내용 구성하기’로 만 2세 영아의 발달과 수준에 맞는 영아 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먼저,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영아 안전교육의 주제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영아 발달과 수준에 맞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동안 새싹반에서 진행해 왔던 영아 안전교육은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영아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영아 안전교육 자료의 부족과 안전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영아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주영미(2015)의 영아교사의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에서 영아 발달과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활동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며, 안전교육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보고한 이명환(2009)과 유혜경(200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발달과 수준을 반영한 안전교육활동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안전교육 주제에 따라 계획된 안전활동은 실제 영아와 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안전 문제를 반영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영아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고와 문제상황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적 대처가 필요했다. 이에 영아의 일상생

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안전 상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영아가 익혀야 할 안전습관이나 태도를 안전교육으로 구성하여 영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영아의 안전 태도 및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적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안전문제해결을 향상시켰다는 유민중(2015)의 연구결과와 일상생활의 문제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박유영(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황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배지희 외, 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생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아의 안전한 습관 및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영아의 실생활 및 하루 일과와 관련한 생활안전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차 실행의 과정에서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문제 상황과 영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안전교육활동을 추가로 계획하여 실행하다 보니, 2차 실행과정에서 진행한 안전교육이 생활안전영역에 한정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3차 실행에서는 안전교육의 다양한 교수방법 활동과 함께 소방안전, 유괴실종예방,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영역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셋째, 3차 실행은 ‘다양한 영아 안전교육 교수법 적용하기’로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방법 및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영아 안전교육의 교수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안전교육의 방법이 이야기 나누기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교육 실행

에 대한 선행연구(유혜경, 2000; 심용옥, 2005; 김혜정, 2009; 주영미, 2015)에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교수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며, 안전교육의 교육방법으로 이야기 나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영미(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먼저, 시범과 시연을 적용한 안전교육활동으로 소방대피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시범은 안전 행동에 대해 영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행동이나 기술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정재경 외, 2016)으로 영아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기술을 익히게 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정확한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안전교수방법이다(권덕수 외, 2015).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시범과 시연을 통해 영아에게 직접적인 안전기술을 쉽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영아는 시범과 시범을 통한 게임 활동을 통해 안전한 기술과 행동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한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영아에게 주변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 실제 생활 속에서 연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은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매체로, 영아의 관심사와 생활 경험이 담겨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안전교육공제회, 2017), 유괴실종예방교육으로 연계하여 위험한 상황별로 대처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영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별 대처 방안을 익힐 수 있었다. 이는 동화가 유아의 감정이입과 이해를 쉽게 하며 동화 속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흥미있게 교통안전지식의 습득이 가능했으며, 교통안전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하고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였음을 보고한 박유영(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동

화를 통한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한 이경애(2010)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활동을 계획하여 활동함으로써 놀이를 통해 생활 주변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위험상황을 경험해 봄으로써 유아들은 올바른 대처방법과 자발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었다. 안전교육방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시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영환 외, 2016). 이러한 관점에서 체험을 통해 유아에게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유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교사와 영아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유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및 안전실천,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영아의 안전지식 및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와 영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사와 영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적 실행연구가 교사의 안전지식, 안전실천 및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안전지식 및 안전실천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도 향상되었다. 또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한 두 교사 모두 안전지식, 안전실천, 교사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따른 교사 안전지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협력적 실행연구 전과 후에 교사의 안전지식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의 안전지식이 상승하였으며, 하위요인 전체에서 고르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안전교육 경험이나 안전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승현(2005)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며,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김은숙(2009)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자와의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안전지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안전실천이 상승하였다. 교사들은 실행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영아 안전교육을 계획·실행하고 평가하여 반영하는 일련의 실행 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교사의 실천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유아교사의 안전지식이 높아질수록 안전실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윤선화(199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이 안전실천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김은숙(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교사는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 영아 안전교육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교사의 안전실천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안전에 대한 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안전교육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교사교육 방법으로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이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연수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진다든 현실을 반영할 때(정재경, 성소영, 2011) 교사의 안전 지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사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사 모두 교사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영아의 발달과 안전교육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영아안전활동을 계획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협력적 실행연구가 영아의 안전지식 및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는 영아의 안전지식과 비안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의 안전지식이 향상되었다. 영아들은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후 안전지식이 증가하였으며, 안전지식의 하위요인인 놀이안전, 재난대비, 교통안전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는 안전교육활동으로 ‘장난감을 밟으면 안돼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요’ 등 안전교육 영역별로 영아가 알아야 할 안전지식과 관련한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안전문제 해결사고 및 안전지식에 영향을 준다는 윤지현(2017)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이야기나누기, 역할놀이, 모델링, 토의,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 통합적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문제해결사고능력과 안전지식을 향상시켰다는 선행연구(박미

경, 2012; 유수정, 2012; 유종민, 2015)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이야기나누기, 모델링, 시범과 시연, 동화 및 미디어 등의 매체 활용, 역할놀이,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아의 안전지식이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실생활과 연관된 안전교육을 통해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영아의 비안전행동이 감소되었다. 영아의 비안전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저해시키는 행동(김동주, 2006)을 의미한다. 연구자와 교사는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들의 안전한 행동과 태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영아의 비안전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아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실생활과 연계된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영아의 비안전행동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비안전행동에 대한 교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비안전행동은 부주의한 행동, 위험행동, 위험놀이를 포함한 행동으로 잠재적으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유아의 안전 유지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아의 비안전행동 대한 관리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최금영(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영아들의 비안전행동 변화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실외놀이에서의 놀이시설과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교실의 기타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외영역의 미끄럼틀과 교실 난간과 교구장, 계단 등 교실의 기타영역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영역이다. 이처럼 영아의 실생활과 연계하여 상황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수방법을 적용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영아 안전교육에 참여한 영아들의 비안전행동이 감소되고,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이야기나누기, 역할놀이, 모델링, 토의 등이 포함된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유아의 비안전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곽은복(2000)의 연구, 그리고 이야기나누기, 동화, 역할놀이, 게임, 신체 등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구성된 안전교육활동이 만 2세 영아의 비안전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유수정(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아의 비안전행동을 줄이고, 안전행동과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계한 통합적 안전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영아 안전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변화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안전지식을 습득하여 안전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안전교육을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하는 교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교사는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협력,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사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 과정을 통해 안전지식을 습득하여 자신감을 갖춘 교사로 변화되었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연구의 과정에 따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안전교육의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며, 안전교육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홍혜선, 2002; 이소정, 2009; 정재경, 2010; 주영미, 2015)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와 함께 협력적 실행연구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문제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하였고, 기존 안전교육 활동 및 환경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찾아봄으로써 안전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Berthelsen와 Brownlee(2007)에 의하면 교사가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영아의 요구와 발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협력적 실행의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그 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안전교육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서 실행의 과정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교사가 스스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영아 안전에 대한 지식은 안전에 대한 실천으로 연결되며,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 의지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미경(2015)의 연구와 교사의 안전지식은 안전의 실천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김은숙(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습득한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교수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교사가 수학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교수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김정숙(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 및 실천을 높이고,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안전 관련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교사의 안전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사연수나 다양한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협력적 실행과정을 수행하면서 실천을 주도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교사로 성장하였다. 교사들은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안전 지식 및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구 참여 당시, 교사는 안전에 관한 자료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영역은 시행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육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실

행과정을 통해 안전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능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등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서 교사의 안전교육에 대한 실천의식도 높아지게 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소정, 2009; 정재경, 2010; 이미경, 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안전교육에 실천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데(정재경, 2010), 교사도 영아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안전교육을 잘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승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실행의 과정을 통해 안전 관련 지식이 높아질수록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수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실행과정이 진행될수록 수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에서 협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행의 과정을 제안해 나가는 연구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평가하고,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활동을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수업의 과정과 수업에 따른 영아의 반응을 평가하고, 재계획에 평가를 적용하여 다음 활동 때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를 가진 교사로 변화하게 되었다. 반성적 사고는 교사에게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당면한 상황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해준다(O'Loughlin, 1992). 이러한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의미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탐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사의 행동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Zeichner, 1981). 실행연

구 과정을 통해 반성적 사고와 저널 쓰기가 가능해진 교사들은 영아 안전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상황을 스스로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수업계획과 실행이 반성적 평가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성소영과 심향분의 연구(2015)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것에 교육 계획과 실행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하는 실행연구의 과정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는데(이은상 외, 2013), 교사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을 위한 훈련의 과정을 필요하다. 또한 교사가 된 후에도 교육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교사로서의 성장과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협력,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연구자와의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로의 경험이나 영아의 발달 특성, 교수방법, 행동지도 등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와 교사간 관계 형성을 통해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협력적 실행연구들(김정숙, 2012; 최혜윤, 2015; 구정미, 2016; 이지연, 2017)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사들은 원내 원장, 교사 등의 구성원과 실행연구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동료교사들과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실행과정에서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경험한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교수방법 등을 동료교사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동료교사와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동료교사와의 협력으로 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행연구의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권유진(2016)의 교사 간 팀티칭이 교사간 소통을 통해 실행 능력을 높이며, 팀티칭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른 교사와 원활한 소통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교사의 동료와 연구자와의 협력과 학습 공동체의 구성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 팀티칭, 동료장학, 교사 학습공동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현장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식 공유 공동체를 통해 교사와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변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영아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고, 주변 환경과 구성원에 관심을 갖는 영아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아들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협력적 실행과정을 통해 위험한 상황과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영아기는 아직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이기숙 외, 2012).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 관련한 안전지식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이 영아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영아 수준에 맞는 영아 안전교육 활동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위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영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아들은 영아 수준에 맞는 영아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안전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아에게 실시되는 안전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유아용 안전교육내용을 단순화 시키거나 언어사용의 수준을 낮춰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권경숙과 박지영(2010)의 연구와 영아 안전교육이 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한 홍혜선(200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의 발달과 수준에 맞는 영아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아 안전교육이 영아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영아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아의 발달과 수준에 맞는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고,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해 봄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남숙(2013)이 영유아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성인에 의한 보호나 안전문제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아의 안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아에게 위험한 상황을 인식시키고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신중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영아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행동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성인 중심의 수동적인 영아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영아의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아안전교육 내용이 계획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영아는 영아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영아기부터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한 습관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아는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지식을 배우고, 영아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안전 행동 및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영아는 교육을 통해 체험한 안전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반복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영아기의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 안전한 행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영아기는 생애에서 안전과 관련된 결정적 시기로 영아기 때 형성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습관, 태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이영환 외, 2016). 이는 안전한 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영아의 발달 및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영아기부터 안전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교육 방향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영아들은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또래와 안전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영아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아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중심화 경향으로 또래를 좋아하고 놀이를 함께 하고자 하지만, 협력 및 양보가 어려운 시기(이기숙 외, 2011; 정아란, 2011)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은 또래간에 놀이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며, 놀이가 일어나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해 곧 중단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또래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것은 또래를 유아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 중 하나로 보고한 박선영과 신동주(201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영아대상 보육시설에서 만 2세 영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물리기, 할퀴 당하기 등 다른 영아에 의한 상해 유형을 보고한 장소영(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영아기는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고,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자제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방식을 배워나가게 된다(김숙이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 안전교육으로 영아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영아들은 다양한 안전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으며, 안전교육을 통해 영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아가 안전교육을 통해 쌓은 또래와 어울리는 경험은 영아가 혼자 놀이에서 벗어나 또래에게 관심을 갖고, 또래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또한, 영아는 안전교육을 통해 소방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과 같은 안전교육을 통해 교실을 벗어나 어린이집 전체의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류의 기회는 영아가 주변 구성원을 인식하고 관심 갖을 수 있도록 영아를 변화 시켰으며, 영아의 사회관계를 나, 너의 관계에서 나, 너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확장 시키게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은 안전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또래와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으며, 또래와 어울리는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또래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전교육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성을 익히고 또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교육활동이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켰다는 권영옥(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영아 안전교육을 통해 영아들이 또래와의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원내 교직원 및 구성원간의 교류로 영아의 사회관계를 확장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Kemmis와 McTaggart(1998)의 연구 모형을 토대로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 실행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교사는 현장의 중심에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주의 깊게 현장의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였으며, 연구자는 안전교육과 관련한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연구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교사는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전문성과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교육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과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 실행연구의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적 실행연구가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며, 다각적인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현장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의 연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교사는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안전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안전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안전실천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교사는 안전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 영아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교사연수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안전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감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교사는 안전에 대한 지식, 교육 내용, 교수학습방법과 함께 영아의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으며 실천의식 및 교수효능감이 증진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장의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사교육 및 연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는 영아 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안전지식을 높이고 안전한 습관을 기르게 되었다.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찾아서 영아의 수준과 발달에 맞는 안전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영아는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영아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활동이 영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영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현장과 연구 참여자에 초점을 두고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어린이집 유형상의 차이와 교사 및 영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만 2세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 및 연령별 발달 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연구 참여 영아들의 발달 및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지식 및 안전행동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참여관찰을 통해 영아들의 개별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안전한 환경의 구성 역시 보육시설 지침서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였지만,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 유형상의 차이와 지역적, 시설

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설 및 환경 안전의 문제가 모든 영아반의 공통적인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 중 만 2세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아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특성 상 연령별 발달 및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아 전체에게 효과적인 안전교육방법이라고 보기엔 제한적이다. 또한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에서 영아의 특성 상 단일연령이지만 영아 수준 및 발달에 개인차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영아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연령별 안전교육이 연구되어야 하며, 영아 간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준별 목표 설정 및 활동이 가능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사는 연구자와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전문성을 성장 시킬 수 있었다. 협력적 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교사의 내용지식, 실천능력, 교수 효능감이 증진되었으며, 교사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적 실행연구, 동료장학, 교사공동체, 멘토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교사를 지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안전교육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교사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아에 대한 안전교육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안전교육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안전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재(2008). 가정과 연계된 교통안전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과 문제해결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성희(2003).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문숙(2010). 협력적 멘토링이 초임 중등과학교사의 교수실행에서 반성적 실천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정완(2016). 상황역할극 중심의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경선, 김태임, 서영희, 홍은숙(2013). 아동안전관리. 경기: 정민사.
- 구정숙(2016). 유아 음률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연구원(2014).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휴먼컬처아리랑.
- 권경숙, 박지영(2010). 어린이집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경험 및 영아 안전교육.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14(4), 7-31.
- 권덕수, 김애란, 김지영, 우민정, 한진원(2013). 아동안전관리. 경기: 정민사.
- 권영옥(2015). 토의활동을 통한 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지식과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유진(2016). 어린이집 팀티칭 교사 간 소통의 인식과 실행의 관계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신혜경, 이임복(2011). 아동건강 및 안전. 경기도: 공동체.
- 김명주(2015). 어린이집 영아안전교육의 현황과 교사의 어려움 및 지원요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16). 유아교육기관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중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예, 권인수, 김성희, 김진선, 김태임, 심미경, 이수연, 정승은, 조갑출
(2014). 아동간호학개론. 경기도: 수문사.

김숙이, 손수민, 고선옥, 신리행(2014). 아동건강교육. 경기도: 정민사.

김승현(2005). 유아교사의 안전 지식 정도 및 안전연수에 관한 인식과 요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옥심(2007). 가정보육시설 영아돌연사 사고와 보육시설 책임한계에 대한
시설장 및 부모 인식실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실, 윤진주, 유수정(2009). 유아 교통안전 교육에서 토의 중심과 시범 중
심 교수법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 및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
교육연구, 14(6), 397-419.

김인주(2006). 유아기 자녀안전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실천 및 부모교육 요
구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일옥, 이정은, 박현정(2013). 아동안전관리. 경기도: 양서원.

김은숙(2009). 보육교사의 안전에 관한 지식과 실천에 관한 인식 연구: 서울,
경기, 인천지역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
사논문.

김은희, 유준호(2013). 유아안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59-286.

김은혜(2016). 만2세 학급의 영아 평가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성신여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남(2015). 영아 부모와 영아반 교사의 영아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지식수
준과 교육 요구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민(2014).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중
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12). 유아수학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정의 의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11). 유치원 과학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2014).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한 환경 및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자, 허선자, 김혜선(2003). 멀티미디어에 대한 안전 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모색 : 주제 접근 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어린이미디어연구, (14)3, 75-98.
- 김현령, 임부연(2016).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과학교사의 교수실행 변화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899-920.
- 김현수(2010). 유아교육기관의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이 유아 교통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육시설(수도권) 취학 전 7세 유아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9).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13). 극 놀이 활동에 따른 유아의 인터넷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선(2006). 영아안전 및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과 실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원, 주현정, 김남연(2016). 유아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실태 및 유아교사의 인식과 요구 조사. 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6), 141-165.
- 마미애, 최양미(2011). 만 2세 영아반 그림책 보기 활동에 관한 실행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115-146.
- 문숙희(2006). 안전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조사 연구: 창원시 사립 유

- 치원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정화(2002). 유아교사양성교육기관 예비교사의 유아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11). 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 및 안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희(2011).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의 영아안전사고 경험에 따른 교사의 사고관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신동주(2014). 유아교육기관 유아 안전사고의 잠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4(2), 347-370.
- 박세진(2012). 만 2세반 영아들의 또래 간 갈등상황에서의 교사 역할 지원을 위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영(2014). 영아반 교사들의 식습관 지도 행동 변화를 위한 실험연구: 만 2세 영아반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유영(2004). 동화를 통한 유아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2012). 영상매체를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이 유아의 안전문제해결사고 및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수(2015). 유아교사의 자유선택활동 운영에 대한 반성적 저널 의미 탐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빈, 김정희, 김은심(2012). 영아반 교사(만 2세)의 수업 컨설팅에 대한 현황 및 요구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3, 473-496.
- 박주연(2009).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란(2009). 유아 유괴 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창훈, 정계영, 이용주(2006). 소방안전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1), 15-22.
- 변정희(2006). 유아교육기관의 교통안전교육 실태와 요구도에 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 권경숙, 이사임, 이미선(2015).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실제와 교사의 어려움 및 요구. 유아교육학회, 35(4), 223-248.
- 서유미(2008). 현장학습을 통한 유아의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안전지식 및 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희숙(2001). 교통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소영, 심향분(2015).,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한 수업 계획과 실행에 대한 성찰 탐구: "유아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35(5), 515-542.
- 송용준(2016).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학생 선택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력적 실행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용옥(2005). 영·유아 보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방법 및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아(2017). 영유아 안전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95년~2015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2).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연구.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오정옥(2008).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안전교육 실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기웅, 정종원, 김원석,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미숙(2000).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미(2004). 이야기 꾸미기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선화(1999). 유아교사의 아동안전 지식, 지각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화, 정윤경(2012).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의 효과. 한국위기관리학회, 8(3), 187-204.
- 유선희(2003). 통합적 활동을 통한 유치원 교통안전 교육이 유아의 교통안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정(2012). 통합적 안전교육활동이 만 2세 학급 영아의 비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민(2017).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운영 실태 :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종민(2015). 통합적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 해결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혜경(2000).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2015). 육아정책포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선화, 정윤경, 이경선(2010). 아동안전관리. 경기: 양서원.
- 윤지현(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안전지식, 안전문제 해결사고,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선(2017).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환경 실태: 대전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배소현, 박희숙(2002).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경기: 양서원.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윤선화(2014). 영유아안전교육. 경기: 양서원.
- 이명환(2009). 유아안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3) 75-98.
- 이미경(2010). 가정연계 교통안전 그림책읽기 활동이 유아의 교통안전지식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15). 영아안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17). CIPP모형에 기초한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와 요구도.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애(2010). 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안전지식 및 안전문제해결사이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숙, 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윤옥(2014). 영유아행동관찰. 서울: 신정.
- 이영환, 고선옥, 김경신, 김정희, 이수재(2016). 표준보육과정 · 누리과정에 맞춘 아동안전관리. 서울: 창지사.
- 이인숙(2012). 영아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태도연구 : 서울특별시 3개 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정(2009). 영아교사의 건강 · 안전에 대한 지식정도 및 교육 요구와 관리 실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03). 유아안전교육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북 북부지역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동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17). 만 2세 영아의 점토놀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 마송희, 김수영, 정정희(2009). 영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경기: 공동체.
- 이진옥, 이대균(2016). 어린이집 만1세 영아반 교사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수업컨설팅 실행 과정과 결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1(1), 241-273.
- 이화영(2008).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안전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란(2015). 만 4세 유아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렬, 이은정(2014). “예측하지 못한 수업상황”에서 나타난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탐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8(2), 495-518.
- 임혜준(2015).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한 과학교사의 교수실행 변화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석준, 박창희(2016). 유년층 스마트 미디어 중독과 부모 및 선생님의 중재 역할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1(1), 93-116.
- 장소영(2011). 영아대상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및 안전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남련, 한혜선, 황연옥, 백향기, 김경신, 홍은미, 권인양, 장유정(2014). 아동 안전관리. 경기: 양서원.
- 정남미(2005). 유아언어교육. 서울: 창지사.
- 정아란(2011). 아동건강 및 안전. 경기: 공동체.
- 정재경(2010). 보육교사의 영아 안전에 관한 인식과 실천 및 지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경, 김형숙, 김형재, 이순애, 최지현, 현혜정(2015). 아동안전관리. 서울: 동문사.
- 조남숙(2013).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평가인증 안전지표에 관한 연구. 한영논총, 17, 111-130.
- 조미숙(2016).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회, 18(4), 1-49.
- 조윤주(2015). 유아 교통안전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른 차.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미(2015). 영아교사의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조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화(2015). 어린이집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영향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선, 임미혜, 김종배, 이순자, 안경일(2014). 아동안전관리. 경기: 양서원.
- 최금영(2009). 유아의 비안전행동에 대한 교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은(2004). 유괴예방을 위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수, 공양님(2016). 유아 성폭력 예방교육활동의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학회. 8(3), 141-158.
- 최수진(2016). 영아반 교사들의 협력적 실행연구: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양서원.
- 최정희(2017).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수준에 따른 일일교육계획안 평가내용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윤(2015). 유아의 신체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광표, 조준호(2015). 유아 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35(4), 469-491.
- 홍혜선(2002). 영아 발달에 따른 교사의 안전 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익, 송연숙, 정혜영(2003).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유아행동 관찰법. 서울: 정민사
- Abdullah, K. I., & Hashim, A. (2000).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Malaysia*: The University of Teknologi Press.
- Almond, L. (1997). Reflecting on practice: A changing research in collaboration: Reflection on the process.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2, 35-62.
- Banegas, D., Pavese, A. Velazquez, A., & Velez, S. M. (2013).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impact in foreign English-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Educational Action research*, 21(2), 185-201.
- Berman, C., & Fromer, J. (1991). *Teaching children about food: A teachers and activities guide*. Palo Alto, CA: Bullpublishing Co.
- Berthelsen, D., & Brownlee, J. (2007). Working with toddlers in child care: Practitioners' beliefs about their ro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3), 347-362.
- Borse, N. N., Gilchrist, J., Dellinger, A. M., Rudd, R. A., Ballesteros, M. F., & Sleet, D. A. (2009). Unintentional childhood injuries in the United States: Key findings from the CDC childhood injury report. *Journal of Safety Research*, 40(1), 71-74.

- Bogdan, R., & Biklen, S. K. (2011). 교육의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초(조정수 역). 서울:경문사. (원전 2007 출판)
- Buchmann, M. (1987). Reporting and using educational research: conviction or persuasion? In J. I. Goollad (eds.), *The ecology of school renewal*, 86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rt 1, 170-191.
- Coppens, N. M. (1986). Cognitive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safety and preven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1, 189-202.
- Creswell, J. W.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학지사. (원전 2007 출판)
- Denzin, N. K., & Lincoln, Y. S. (2009). *Qualitative research*. Yogyakarta: PustakaPelajar.
- Enochs, L. G., Smith, L. P., & Huinker, D. A. (2000). Establishing factorial validity of the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00(4), 194-202.
- Feldman, A. (1996). Enhancing the practice of physics teacher: Mechanism for the generation and sharing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on Science Teaching*, 33(5), 153-540.
- Feldman, A., & Minstrell, J. (2000). Action research as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and learning of science.<http://people.umass.edu/afeldman/ActionResearch-Papers/FeldmanMinstrell2000.pdf>

- Ferrance, E. (2000). *Action reserch*. Northeast and islands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at Brown University.
- Graue, M. E., & Walsh, D. J. (2014). 어린이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Studying children in context: theories, Methods, and ethics*]. (홍용희, 이경화, 배지희, 정혜욱 공역). 고양: 파워북. (원전 1998 출판)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 Hatch, J. Amos.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State University of NewYorkPress.
- Heinrich, H. W. (1980).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5th ed, NewYork: Mcgrow Hill Book Co.
- Hendricks, S. C., & Smith, C. J. (1996). Transforming Health Curriculum. In S. Bredekamp & T. Rosegrant(Eds.), *Reaching Potentials: Transt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sment(2)*, NAEYC.
- Hilson, A. I. (2006). And they shall be known by their deeds: ethics and politics in action research. *Action Research*, 15(1), 5-19.
- Kemmis, S., & McTaggart, R. (2000). Participatory action reserch, in N.K. Denzin and Y.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Sage, CA.
- Kendricks. A. S., Kaufmann, R., & Messenger, K. P. (1988). *Healthy Young Children: A mamual for Programs*. NAEYC.
- Kuntz, A. M., Presnall, M. M., Tilford, A., & Ward, R. (2013). Creative pedagogies and collaboration: an action research project. *Educational Action Research*, 21(1), 42-58.

- Locke, T., & Riley, D. (2009). What happened to Educational Criticism? Engaging with a paradigm for observation. *Educational Action Research, 17*(4), 489-504.
- MacNaughton, J., & Hughes, P. (2013). 유아교육에서 실행연구하기[*Doing action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tudies : A step by step guide*]. (박은혜, 이진화, 고동섭, 최혜윤 공역). 서울:창지사. (원전 2008 출판)
- Marland, S. K., James, A. E., Ralph, B. C., & John, E. R. (1973). *Fundamentals of safety education*(2nd ed.). NY: Macmillan.
- Maslow, A.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 Merriam, S.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ls, J. E. (2003). *Action research:a guide for the teacher researcher*. (2nd ed.). *Pearson Education*.
- Mitchell, S. N., Reily, R. C., & Logue, M. E. (2009). Benefit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the beginning teache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2), 344-349.
- Morrongiello, B. A., Midgett, C., & Shields, R. (2001). Don't run with children's knowledge of home safety rul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5*(2), 105-115.
- Nolen, A. L., & Putten, J. V. (2007). Action research in education: Addressing gaps in ethical principles and practices. *Educational Researcher, 36*(7), 401-407.

- O'Loughlin, M. (1992). Engaging teacher in emancipatory knowledge construction. *Journal Teacher Education*, 43(5), 336-346.
- Pickle, B. (1989). *Increasing safety awareness of preschoolers through a safety education program*. Nova University.
- Pissanos B. W., & Allison, P. C. (1996). Continued professional learning: A topical life histor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6, pp2-19.
- Pugach, M., & Johnson, L. (1995). Unlocking expertise among classroom teachers through structured dialogue: Extending research on peer collaboration, *Exceptional Children*, 62(2), 101-110.
- Quinn, K. & Cumblad, C. (1994). Service provider's perceptions of interagency collaboration in their communiti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2(2), pp106-116.
- Raymond, A. M. (1996). 'What is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in A. M. Raymond, C. D. Rafferty and K. M. Dutt(eds.),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Case Studies of School-University Initiatives*, Indiana State University Curriculum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 Terre Haute, IN.
- Roberts, M. C., & Brooks, P. H. (1987). Children's injuries: Issues in prevention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Social Issues*, 43(2), 1-12.
- Rosenbaum, M. S., & Drabman, R. S. (1981). *Training preschool children of identity emergency situations and make emergency phone calls*. *Behavior Therapy*, 12.

- Rui Kang. (2016). Deepening Novice Teachers'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Through Lesson Study in a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Context. *Teacher Education & Practice*, 29(4), 682-698.
- Scheidt, P. C. (1988). Behavioral research toward prevention of childhood injury.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in Children*, 142, 612-617.
- Schwebel, D. C. (2000). Relation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bility estimation, and unintentional inju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 Spradley, J. P.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The ethnographic interview*]. (박종흡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1979 출판)
- Tessier, K. (2010). Effectiveness of hands-on education for correct child restraint use by parent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42, 1041-1047.
- Tomal, D. R. (2010). *Action research for educato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Education.
- Tower, E., & Ward, H. (1988). Prevention of injuries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way a head for the UK. *Injury Prevention*, 4, 17-25.
- Walton, J. (2011). A Collaborative inquiry: "how do we improve our practice with children?", *Educational Action Research*, 19(3), 297-311.
- Williams, A. F., & Lund, A. K. (1992). Injur control: What psychologists can contribute. *American Psycholgist*, 47, 1036-1039.
- Zeichner, K. (1981). Reflective teaching and field-based experience in teacher education. *Interchange*, 12(4), 1-22.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www.schoolsafe.kr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어린이세상 kid.ts2020.kr/main.jsp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어린이집안전공제회 www.csia.or.kr
육아정책연구소 www.kicce.re.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학교안전공제중앙회 www.ssif.or.kr
한국보육진흥원 www.kcpi.or.kr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ABSTRACT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Lee, Soo-Yo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 cooperation with teachers, to grasp the problems of infant safety education and devise the measur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any change in teachers and infants during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infant safety education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eacher training for safety education and the methods of infant safety education. Research problems were set as below following the study purpose.

First, how is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Second, how is the change in teachers and infants during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for infant safety educ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argeting 14 infants and 2 teachers of Sprout Classroom at H Daycare Center located in K Cit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the researcher proceeded with action research in cooperation with teachers. Preliminary study and main study were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16 to January 31, 2017 and from February 1, 2017 to August 31, 2017, respectively. For data collection, multilateral methods were used such as participant observation, individual interview, group discussion, reflective journal, researcher journal, document data, and objectified test. For data analysis, the collected data of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and the change in teachers and infants was analyzed and interpreted through integration and classification of data, data analysis, data categorization, category analysis,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safety education on teachers and infants, pre-test and post-test were conducted on teachers' safety knowledge, safety practice, and teaching efficacy as well as on infants' safety knowledge and unsafe behavior. The data was used to perform non-parametric test with SPSS 19.0 to analyze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infant safety education on teachers and infant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for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collaborative action, the researcher interviewed teachers and performed participant observation to form rapport, and then grasped the general problems of infant safety educa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dditionally, through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infant safety education,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improv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infant safety education.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infant safety education was performed in three phases based on planning-action-observation and reflection-repeated action. The first phase of action was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safe education' to analyze actual accidents, improve risky places of safety accident, and use risky situations in daily life for safety education activity. The second phase of action was 'Making the content of safety education for infants' to reestablish the title and goal of infant safety education focusing on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to make the cont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and level of two-year-old infants, and to produce and use educational materials appropriate for the content of safety education. The third phase of action was 'Applying various teaching methods of infant safety education' to learn the problems of teaching methods of infant safety education and perform infant safety education applying various safety teaching-learning methods.

Second, the change in teachers and infant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for infant safety education was as follow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on teachers and infants, teacher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actice improved through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and their teaching efficacy in regard to safety education also increased. Through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infant safety education, infants' safety knowledge improved, and their unsafe behavior observed at the

daycare center was reduced.

The change in teachers and infants participating in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infant safety education was as follows. Teachers acquired safety knowledge and gained confidence in safety education, and thereby came to be able to practice and evaluate safety education themselves.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ss of collaborative action, teachers cooperated with the researcher and colleagues and formed learning community where they could grow further. On the other hand, infants came to be able to recognize and cope with risky situations, form the basis of safe habits, and have much interest in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members.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nfant safety education could improve actual difficulties at educational sites, raise teachers' confidence in safety education, professionalism, and efficacy, and promote infants' safety knowledge and safe behavior. Thus,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should be used in devising various measures for safety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In addition, related research should be constantly conducted on infants that are relatively isolated from the field of safety education, and it is necessary to have much interest in development of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materials for infants.

부록

A. 검사도구

-교사용

1. 교사의 안전지식
2. 교사의 안전실천
3. 교수효능감

-영아용

4. 영아의 안전지식
5. 비안전행동

1. 교사의 안전지식

1. 영아가 보육시설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v표해 주십시오.

※ 전혀 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에 표기 합니다.

보육시설에서 영아 상해 가능성	점수				
	1	2	3	4	5
1 낙상(놀이터, 책상, 교구장 등에서의 추락, 미끄럼틀)					
2 화상					
3 교통사고					
4 전기 감전 사고					
5 중독(가스, 약물)					
6 익수(현장학습)					
7 타박상 및 찰과상					
8 골절 및 탈골(부러짐, 빠짐)					
9 치아손상					
10 경련(열성)					
11 곤충과 벌레물림					
12 식중독					
13 아동학대					
14 성폭력					

2. 보육시설에서의 사고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 ② 조심하면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다.
- ③ 사고는 운이 나빠 생기는 것이므로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전혀 예방할 수 없다.

3. 영아가 바퀴달린 것(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두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른의 감독하에서 타게 한다.
- ② 헬멧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9. 다음 중 통학차량 안전 수칙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동승교사가 탑승한다.
- ② 차량 출발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및 문단속을 확인한다.
- ③ 차가 도착하기 전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내릴 준비를 한다.
- ④ 완전히 정차 후 문을 열어준다.

10. 안전한 길 건너기의 3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멈춘다
- ② 길 건너편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
- ③ 좌우를 살핀다.
- ④ 천천히 건넌다.

11. 영아 약물 안전에 대해 올바른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럽을 딸기쥬스라고 말해서 약을 먹도록 유도한다.
- ②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③ 약병은 아이 방지용 뚜껑을 사용하여 잠근다.
- ④ 약을 먹을 경우, 영유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복용한다.

12. 다음 중 세제류를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병 앞에 라벨을 써둔다.
- ② 영아가 만질 수 없는 곳에 둔다.
- ③ 화장실 바닥에 둔다.
- ④ 화장실 구석에 둔다.

13. 낯선 사람이 영유아에게 길을 묻거나 같이 가자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손을 잡고 가르쳐 달라는 곳까지 같이 간다.
- ②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무조건 싫다고 말한다.
- ④ 그 자리에서 길을 알려준다.

14. 유괴 예방교육은 어떤 순서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 A. 도망간다.
- B. “안돼요.”라고 말한다.
- C.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말한다.

- ① A - B - C
- ② B - A - C
- ③ C - A - B
- ④ A - C - B

15. 영유아의 성폭력은 어떤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아가 모르는 사람 ② 영유아와 안면이 있는 사람
- ③ 친척 ④ 가족

16.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 폭언
- ②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영아를 안아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 ③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
- ④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7. 아동학대 신고번호(국번없이 112)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18. 다음 중 천둥 번개 시 위험한 물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손전등 ② 전화기 ③ 우산 ④ 촛불

19. 홍수가 날 때 대피 요령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밖에 있을 때 얼른 집으로 들어간다.
- ②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한다.
- ③ 밖에 있을 때는 모르는 길이라도 대피장소로 빨리 간다.
- ④ 산으로 올라간다.

20. 영아가 입안으로 물체나 음식을 집어넣어 숨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의 등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친다.
- ② 영아를 잡고서 흔든다.
- ③ 영아에게 기침을 하게 한다.
- ④ 가느다란 도구를 이용해 끄집어낸다.

21. 영아가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리 도구와 식기류는 열탕소독, 염소소독 한다.
- ② 남은 우유나 음식은 다음날 데워서 먹인다.
- ③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물은 꼭 상온 보관한다.
- ④ 식사 전에만 손을 씻는다.

22. 보육시설의 영아가 식중독 증상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실액을 타서 먹인다.
- ② 설사가 심한 경우 지사제를 먹인다.
- ③ 병의원으로 후송 후, 보건서에 신고한다.
- ④ 흰죽을 먹여 본다.

23. 외부활동 시 곤충이나 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벌이나 곤충을 따라간다.
- ② 반갑게 다가가서 만져본다.
- ③ 간식 등의 먹이를 준다.
- ④ 향이 강한 로션이나 알록달록한 옷을 입지 않는다.

24.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피가 난 자리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른다.
- ② 물린 상처에 지혈가루를 뿌린다.
- ③ 벌에 물렸을 경우, 손톱이나 핀셋으로 침을 뽑아낸다.
- ④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병원에 바로 데려간다.

25. 영아 물놀이시 안전수칙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영장 바닥에서 뛰지 않도록 한다.
- ②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친구들에게 물을 뿌려주며 즐겁게 놀이한다.
- ④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26. 영유아가 미디어(컴퓨터, TV 등)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른용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함께 보면 괜찮다.
- ②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만 사용한다.
- ③ 식사하는 동안에 TV를 보는 것은 괜찮다.
- ④ '7세이하 시청 가능' 표시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 봐도 된다.

2. 교사의 안전실천

※ 전혀 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에 표기 합니다.

문항 내용		점 수				
		1	2	3	4	5
1	아침에 영아들이 교실에 도착하기 전, 교실이 안전한지 눈으로 살펴본다.					
2	영아들이 등원할 때 시진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	영아들에게 장난감과 교구를 제시할 때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전달한다.					
4	교실에 깔린 매트와 카펫트는 쉽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영아들이 미술재료를 사용한 다음이나 바깥놀이를 다녀온 후 즉시 손을 씻게 한다.					
6	영아들끼리만 교실에 두지 않고, 언제나 아이들의 행동을 관리·감독한다.					
7	부모의 휴대폰이나 직장 전화번호, 보건소, 경찰서 등의 긴급연락처를 보관하고 있다.					
8	영아에게 음식을 줄 때, 모든 음식과 음료 그리고 그릇이 깨끗한지를 점검한다.					
9	영아들이 바깥놀이를 할 때, 함께 나가서 관리 감독한다.					
10	전기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전기코드를 빼고, 아이들이 만질 수 없도록 안전콘센트를 꽂아둔다.					
11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갈 때는 비상구급함을 가지고 간다.					
12	비상구급함에 있는 약을 점검하고 구입한다.(유통기한 확인 등)					
13	살충제, 약품, 세제류가 아이들 근처에 있는지 확인한다.					
14	놀이터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교체하도록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5	아이들이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지 않도록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6	교실에 들어갈 때는 튀어나온 반지나 악세사리를 빼고, 교사의 복장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간다.					
17	교사가 사용하는 가위나 칼, 스테플러 등은 아이들이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18	책상과 의자 등 교실의 가구는 뾰족한 부분이나 가시가 없는지 확인한다.					
19	모래놀이 상자와 실외모래놀이영역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두거나 조치한다.					
20	매일 퇴근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1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난대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2	성폭력 아동학대에 관한 책, 역할극, 영상물 등과 같은 자료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23	안전교육 계획에 맞추어 안전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24	영아들이 TV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5	벌레 쏘이거나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26	영아의 응급상황 발생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27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28	통학버스에 동승시, 통학버스 안전규칙을 숙지하고 잘 지킨다.					
29	감정을 조절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영아의 말을 경청한다.					

3. 교사효능감

※ 전혀 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에 표기 합니다.

문 항	점 수				
	1	2	3	4	5
1. 나는 영아가 안전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알고자 한다.					
2.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활동 만큼 안전교육을 지도하는데 자신이 없다.					
3. 영아가 안전교육 활동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내가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4. 나는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지도하지 못한다.					
5. 나는 대체로 안전교육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6. 나는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안전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7. 나는 영아의 안전에 관한 질문들에 적절하게 대답 할수 있다.					
8. 나는 영아에게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9. 가능하면 내가 안전에 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해 평가받고 싶지 않다.					
10. 나는 안전교육에 대한 영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11.	나는 영아들이 안전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한다.				
12.	나는 안전교육 활동을 지도할 때 영아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한다.				
13.	영아가 평소보다 안전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교사가 안전교육 활동에 그 만큼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14.	영아가 안전교육 활동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교사가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5.	영아가 안전교육 활동에 흥미를 잃는다면 교사의 부적절한 교수방법 때문이다.				
16.	영아의 부족한 안전 지식은 교사의 좋은 가르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17.	안전교육 활동에 관심이 없던 영아가 점점 활발한 참여를 하는 것은 교사의 특별한 관심 때문이다.				
18.	안전교육 활동에 대한 영아의 흥미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 된다면 이는 교사의 적절한 안전 교수 때문일 것이다.				
19.	안전교육 활동에 대한 영아의 관심과 흥미 정도는 교사의 책임에 있다.				
20.	영아가 적극적으로 안전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효과적인 안전 교육 교수방법과 관련이 있다.				

4. 영아의 안전지식

※ 사전검사용

: ○, × 카드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할 때는 ○를 가리키거나 맞다는 표시를, 틀렸다고 생각 할 때는 ×를 가리키거나 틀렸다는 표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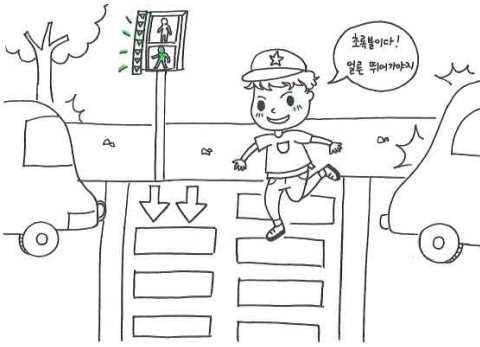
영아안전지식 문항	응답	
	○	×
1. 길을 건널 때 초록 불이 되자마자 빨리 건너간다.		
2. 차를 탈 때 카시트에 앉지 않아도 된다.		
3. 그네 타기를 기다릴 때는 그네 가까이 서서 지켜봐야 한다.		
4. 미끄럼틀에 친구가 있어도 내려가도 된다.		
5.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할 때 따라가지 않는다.		
6. 옆집 아저씨가 이쁘다고 뽀뽀하거나 몸을 만져도 가만히 있다.		
7.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소리친다.		
8. 황사 바람이 불어도 밖에 나가 놀아도 된다.		
9. 친구에게 가위를 줄때 던져도 된다.		
10. 주차장에서 놀아도 된다.		
11. 강아지와 과자를 나누어 먹고 입을 맞춰도 된다.		
12. 혼자서 약을 먹어도 된다.		

※ 사후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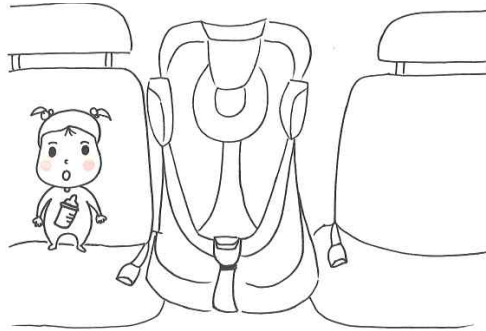
: ○, × 카드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할 때는 ○를 가리키거나 맞다는 표시를, 틀렸다고 생각 할 때는 ×를 가리키거나 틀렸다는 표시를 한다.

영아안전지식 문항	응답	
	○	×
1.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손을 들고 건넌다.		
2. 차에 앞좌석에 앉아도 된다.		
3. 미끄럼틀을 탈 때 친구 등을 세게 밀어 주며 내려온다.		
4. 시소를 타다 먼저 내려도 된다.		
5. 모르는 어른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따라간다.		
6. 옆집 오빠(누나)가 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몸을 보여준다.		
7. 불이 나면 선생님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8. 지진이 나면 탁자 밑에 들어간다.		
9. 멀리 있는 곳에 가위를 주려면 던져서 준다.		
10. 주차장에서 놀아도 된다.		
11. 우리집 강아지는 작고 예쁘니까 입으로 뽀뽀를 해줘도 된다.		
12. 색깔이 예쁜 약은 모두 먹어도 된다.		

사전검사 - 1문항



사전검사 - 2문항



사전검사 - 3문항



사전검사 - 4문항



사전검사 - 5문항



사전검사 - 6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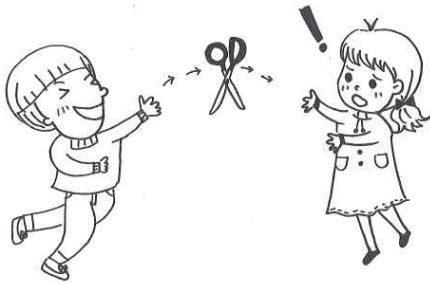
사전검사 - 7문항



사전검사 - 8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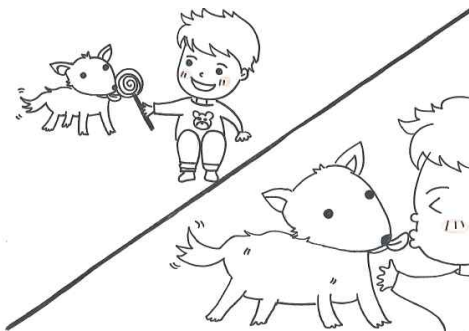
사전검사 - 9문항



사전검사 - 10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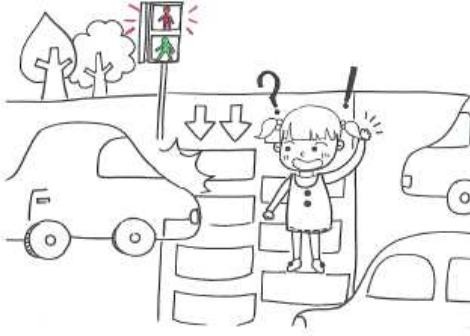
사전검사 - 11문항



사전검사 - 12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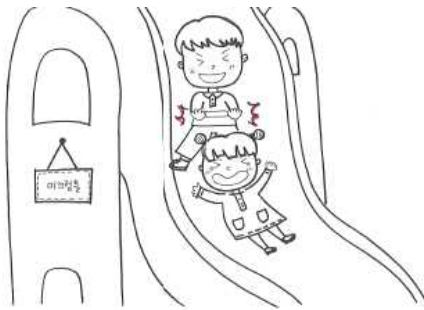
사후검사 - 1문항



사후검사 - 2문항



사후검사 - 3문항



사후검사 - 4문항



사후검사 - 5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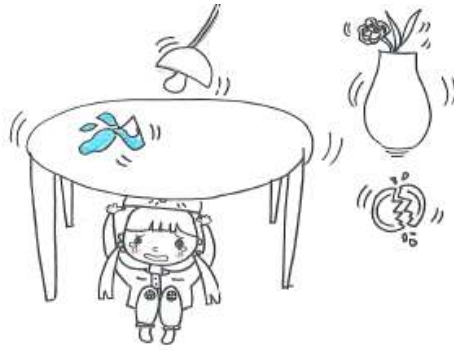
사후검사 - 6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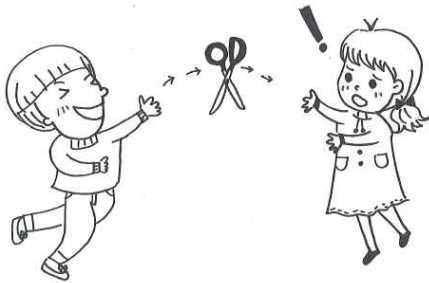
사후검사 - 7문항



사후검사 - 8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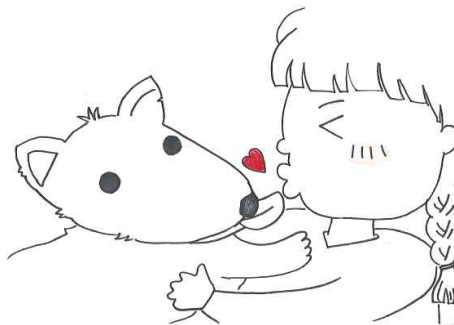
사후검사 - 9문항



사후검사 - 10문항



사후검사 - 11문항



사후검사 - 12문항



5. 비안전 행동

※ 아주 그렇다-> 3점 / 보통이다. -> 2점, / 그렇지 않다. ->1점에 표기 합니다.

영역		비안전한 행동	점 수		
실내 자유 선택 활동	쌓기	1. 블록을 자기 어깨 높이 보다 높게 쌓는다.	3	2	1
		2. 블록을 치울 때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3. 블록을 밟고 다닌다.			
		4. 블록을 입에 넣는다.			
		5. 블록 구멍에 손가락을 끼워 장난한다.			
		6. 블록으로 총, 칼 등을 만들어 위험한 놀이를 한다.			
		7. 블록을 던지거나 블록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8. 커다란 블록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역할	1. 물건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는다.			
		2. 뾰족한 물건으로 위험한 놀이를 한다.			
		3. 싱크대나 선반 위에 올라간다.			
		4. 가방의 줄을 자신이나 친구의 목에 걸고 잡아 당긴다.			
	미술	1. 종이나 호일 등을 꺼낼 때 옆 사람을 보지 않고 휘두르듯이 꺼낸다.			
		2. 물감, 찰흙, 풀 등을 입에 대거나 맛을 본다.			
		3. 가위나 연필, 스테플러 등을 들고 다니며 놀이한다.			
4. 가위를 잡고 장난을 한다.					
5. 붓, 색연필 등 그리기 도구를 코나 귀에 넣는다.					

영역		비안전한 행동	점 수		
실내 자유 선택 활동	언어	1. 필기도구로 장난한다.	3	2	1
		2. 책을 던지거나 책으로 친구를 때린다.			
		3. 필기도구를 입에 넣는다.			
		4. 책을 밟는다.			
	감각	1. 동·식물을 함부로 만진다.			
		2. 감각도구를 가지고 위험한 놀이를 한다.			
		3. 색깔판을 친구 얼굴(눈)에 대고 장난한다.			
		4. 감각카드를 바닥에 던지거나, 친구를 괴롭힌다.			
	탐색	1. 교구를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			
		2. 블록이나 구슬을 떨어뜨리고 치우지 않는다.			
		3. 작은 물건을 입이나 코에 넣는다.			
		4. 줄이나 끈을 친구에게 휘두른다.			
		5. 흥미영역의 교구로 친구들과 장난한다.			
	음률	1. 악기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2. 악기를 친구 귀에 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3. 다른 사람 손을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두드린다.			
4. 악기를 입에 물고 뺀다.					

영역		비안전한 행동	점 수		
실내 자유 선택 활동	기타 공간	1.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교실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는다.	3	2	1
		2. 의자에 앉을 때 걸터 앉거나 흔들다.			
		3. 교사나 성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4. 책상이나 창문틀, 교구장 위에 올라간다.			
		5. 책상이나 창문틀, 교구장에 매달린다.			
		6. 장난감을 던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휘두른다.			
		7. 친구를 밀거나 잡는 등 몸으로 격하게 놀이 한다.			
		8. 교실에서 뛰어 다닌다.			
		9. 친구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누워 있다.			
실외 놀이 활동	미끄 럼틀	1. 다른 친구를 민다.			
		2. 미끄럼틀에서 여럿이 한꺼번에 내려 온다.			
		3. 먼저 내려온 친구가 일어나기도 전에 위에서 내려온다.			
		4. 옆드려 타거나 서서 또는 거꾸로 내려 온다.			
		5. 내려오면서 뒤 돌아보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6. 한쪽 다리를 바깥으로 내밀고 내려온다.			
		7. 장난감 등을 들고 내려온다.			
		8.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간다.			

영역		비안전한 행동	점 수		
실외 놀이 활동	모래 놀이	1. 다른 사람에게 모래를 뿌린다.	3	2	1
		2. 모래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빈다.			
		3. 모래놀이 도구를 가지고 위험하게 장난을 한다.			
	복합 놀이	1. 손잡이를 잡지 않고 올라간다.			
		2. 놀이기구 위에서 뛰어 내려온다.			
		3. 구름다리에서 뛰어 다닌다.			
		4. 터널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부록

B. 영아 안전교육 관련 자료

1.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2. 영아 안전교재교구제작 계획안

※ 부록 B-1은 영아안전교육을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영아 안전교육계획안으로 활동내용 및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영아 안전교육활동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연계하여 안전한 습관을 기르고, 일상생활에서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교육 활동으로 구성 하였다.

영아 안전교육활동은 만 2세의 하루일과 중 오전 자유놀이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안전교육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참여를 원하는 영아에게 놀이 중심의 소집단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만 2세 교실 흥미영역에 영아 안전교재교구를 배치하여 영아가 영아 안전교육활동 외에도 자유롭게 안전교재교구를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작한 교재교구는 부록 B-2에 제시하였다.

<B-1-1>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알기->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에서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오기를 실천한다.
안전지식	계단을 바르게 걷는 방법을 안다.
안전기술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안전태도	계단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다.
활동자료	계단에서의 안전 그림 카드
활동방법	<p>1. 계단을 이용하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그림일까요? - 계단에서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 계단에서 친구를 밀면 어떻게 될까요? <p>2.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친구가 멋있는 모습으로 계단을 이용하고 있을까? -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계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3. 교사와 함께 계단을 바르게 이용해 본다.</p> <p>① 실제 계단을 이용하며 손잡이를 잡고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따라서 손잡이 잡고 천천히 내려가볼까요? - 선생님 따라서 손잡이 잡고 천천히 올라가볼까요? <p>② 차례로 순서를 지켜서 올라가고 내려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 있는 친구가 먼저 내려간 다음 내려가볼까요?
유의점	-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복해서 이야기 해주고, 교사가 올바른 시범을 보인다.

<B-1-2>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올라가지 않아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놀이하기
활동목표	· 올라가면 위험한 곳을 알고 올라가지 않는다.
안전지식	올라가면 위험한 곳에 대해 안다.
안전기술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를 한다.
안전태도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지 않는다.
활동자료	놀이시설 및 가구모형, o x 표시를 한 바구니
활동방법	<p>1. 우리가 올라가서 놀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걸까요? - 미끄럼틀이네요, 어떻게 놀이할까요? -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소네요. - 시소는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네요. <p>2. 올라갈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 놀이기구네요, 올라가서 놀 수 있을까요? - 왜 올라가면 안될까요? - 기구 위에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요? -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올라 갈 수 없는 곳이 있네요. <p>3. 영아가 올라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가져올까요? - 이번에는 올라 갈 수 없는 곳을 가져와볼까요? - 올라갈 수 있는 곳은 O모양 바구니에 담아볼까요? - 올라갈 수 없는 곳은 X모양 바구니에 담아볼까요? - X모양 바구니에 담긴 곳은 위험하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말아요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들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주변의 바닥에 쿠션이 있는 깔개를 깔아놓는다. - 게임을 할 때 빨리 걸어오도록 재촉하지 않는다.

<B-1-3>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그대로 멈춰라!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알기->위험한 상황시 어른의 지시에 따른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멈추는 경험을 해본다. · 교사의 신호에 따라 걸거나 멈춰본다.
안전지식	교실에서 뛰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안전기술	음악에 맞춰 멈출 수 있다.
안전태도	위험한 상황 시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활동자료	음악 CD, 탬버린, 인형2개
활동방법	<p>1.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부르며 움직이다 멈추는 활동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대로 멈춰라’ 하면 움직이다가 멈춰볼까요? - 멈추고 나면 다시 노래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거예요. - 노래 부르면서 해볼까요? <p>2. 걸어 다니다 교사의 신호에 따라 멈추는 활동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는 걸어 다니다가 멈춰볼까요? - 탬버린 소리가 나면 걸다가 멈추는 거예요. - 그런데 걸어 다닐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 여기 인형이 걸고 있네요. - 인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껴서 걸어갔네요. - 이번에는 인형이 걸다가 부딪혔네요. - 조심조심 비껴서 걸으니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었네요. - 친구랑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다녀볼까요?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놀이초반에는 두명정도가 먼저 놀이하면서 다른 영아들이 활동을 이해하도록 한 후에 전체 영아가 함께하도록 한다.

<B-1-4>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장난감을 밟지 않아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놀이하기->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활동목표	· 다양한 놀잇감의 촉감을 느껴본다. · 장난감을 밟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서 걸어본다.
안전지식	장난감을 밟으며 위험함에 대해 안다.
안전기술	장난감을 제자리에 정리 할 수 있다.
안전태도	장난감을 밟으면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활동자료	인형, 여러 가지 모서리가 있는 장난감
활동방법	<p>1. 여러 가지 장난감의 촉감을 느껴본다. - 장난감이 있네, 여기가 모서리네요. - 모서리를 한 번 만져보니 느낌이 어때요? - 장난감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네요, 울퉁불퉁하네요.</p> <p>2. 인형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밟는 장면을 보여준다. - 여기 인형이 있네요, 인형이 장난감 위로 걸어가고 있네요. - 장난감을 밟으면 인형의 발은 어떻게 될까요? - 장난감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밟으면 아프겠다. 다칠 거 같아요.</p> <p>3. 바닥에 장난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해본다. - 바닥에 장난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바닥에 장난감이 있으면 아주 위험해요. - 한명씩 나와서 장난감을 피해 걸어볼까요? - 장난감이 있나 없나 잘 보고 잘 보고 다녀야 해요. - OO는 장난감을 밟지 않고 조심해서 잘 걷네요.</p> <p>4. 놀이 후 바닥에 장난감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밟고 넘어질 수 있으니 바닥에 장난감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정리해 봐요.</p>
유의점	- 놀이실 내에 너무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놀잇감은 비치하지 않도록 한다. - 바닥에 놓여 있는 놀잇감이 없도록 교사가 확인하며 수시로 정리한다.

<B-1-5>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손을 깨끗이 씻어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건강하게 생활하기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함을 안다. ·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을 씻어본다.
안전지식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안다.
안전기술	손을 혼자서 씻을 수 있다.
안전태도	손을 씻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활동자료	야옹이와 멍멍이 인형, 세균그림, 수건, 비누, 빵 모형
활동방법	<p>1. 야옹이와 멍멍이 인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줄거리: 야옹이와 멍멍이가 빵을 나누어 먹는데, 멍멍이는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배탈이 난다. 다음날 야옹이와 멍멍이는 모두 손을 씻고 빵을 먹었는데, 멍멍이는 비누를 쓰지 않고 손을 물에만 넣어서 다시 배탈이 난다.)</p> <p>2. 야옹이와 멍멍이의 손 씻기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멍멍이는 왜 배가 아팠을까? - 야옹이는 어떻게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까? - 멍멍이는 손을 씻었는데 왜 배가 아팠을까?</p> <p>3. 손을 씻는 방법을 알아본다.</p> <p>4. 비누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어 본다. -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되어가네? - 오늘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했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볼까? - 비누로 이용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자. - 손을 씻자 손을 씻자 깨끗하게 손을 씻자.</p>
유의점	-비누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누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도록 한다.

<B-1-6>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양치질을 해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건강하게 생활하기
활동목표	·양치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안전지식	· 양치질 도구를 알 수 있다.
안전기술	· 칫솔을 바르게 잡고 사용 할 수 있다.
안전태도	·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한다.
활동자료	칫솔, 치약, 세균, 음식들, 활동판
활동방법	<p>1. 양치 관련 동화를 들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울고 있나 봐요. 친구가 왜 울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 이야기 잘 들었어요? 친구가 왜 울고 있다고 했나요? - 우리가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p>2. 양치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왜 아프다고 했어요? - 치카치카 이를 닦지 않으면 입속에 나쁜 세균이 생길 수 있어요 - 나쁜 세균은 이를 몹시 아프게 할 수 있대요 <p>3. 칫솔과 치약을 탐색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칫솔의 모양을 살펴보고 탐색해본다. - 치약의 모양을 살펴보고, 향을 맡아본다. <p>4. 바른 양치질 방법 순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치약을 칫솔에 묻혀요 ②칫솔에 잇몸에 깊이 넣어요 ③이와 잇몸에 닿는 부위부터 돌려서 닦아요 ④치아의 바깥쪽을 닦아요 ⑥치아 안쪽면을 닦아요 ⑦치아의 씹는 부분을 닦아요 ⑧혀를 닦아요</p> </div> <p>5. 치아 모양 교구를 이용해 양치질을 연습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양치를 했지? - 00이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칫솔을 바르게 잡고 양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교사의 도움 받아 실제로 양치를 해보도록 한다.

<B-1-7>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물면 안돼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놀이하기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로 깨물 때의 느낌과 물고 난 후 자국을 경험한다. · 친구를 물면 안되는 것을 안다.
안전지식	친구를 물면 아프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안전기술	친구를 물면 안되는 것을 안다.
안전태도	친구를 물지 않는다.
활동자료	놀잇감으로 인한 영아 간 갈등상황 그림자료, 가래떡, 접시, 포크, '물면안돼'반주CD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림자료를 보며 이야기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그림일까요? - 이 친구들이 왜 싸우고 있을까요? - 친구가 다른 친구를 꼭 깨물었네요. - 친구를 깨물면 어떻게 될까요? 2. 가래떡을 물어본 후 느낌과 가래떡에 남은 자국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래떡을 이로 깨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 가래떡처럼 친구를 이로 물면 어떻게 될까요? - 친구 몸에 자국이 생기고 많이 아프대요. - 친구는 절대로 물면 안돼요~ 약속! -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친구가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그럴때는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요. 3. '물면안돼' 노래를 개사 하여 노래를 함께 불러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면안돼 물면안돼 친구를 물면 아파요 친구 아파 병원가요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를 개사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영아가 가래떡을 물때 포크에 다치지 않도록 입으로 깨물 수 있는 부위에서 멀리 꽃아서 제공한다.

<B-1-8>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먹으면 안돼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놀이하기->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활동목표	먹으면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
안전지식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안다.
안전기술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한다.
안전태도	먹으면 위험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활동자료	입 모형, 음식 모형, 약, 화장품, 인형, 종이, 돌, 크레파스
활동방법	<p>1. 여러 가지 모형들을 살펴보고,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건 무엇일까? -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일까? - 먹어본 적이 있니? <p>2.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되는 것을 알아보고, 먹어도 되는 것은 입모양 안에 넣어준다.</p> <p>3. 먹거나 입에 넣으면 위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에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1)장난감을 입에 넣고 빨면 안돼요.(플라스틱 블록, 공) 2)인형털을 빨거나 잡아당기지 않아요.(곰인형) 3)작은 장난감은 삼킬 위험이 있어요.(작은 블록조각, 구슬) 4)종이, 책 등을 입으로 빨지 않아요. 5)화장품을 입에 넣지 않아요. 6)크레파스를 입에 넣고 빨지 않아요.(크레파스, 색연필)
유의점	-교구를 실제로 입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작은 물건을 입에 넣었을 경우 삼키거나 목에 걸릴 수 있음을 알려준다.

<B-1-9>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놀이하기->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활동목표	·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지식	·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
안전기술	· 약속에 따라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태도	· 약속을 지키며 미끄럼틀을 탄다.
활동자료	· 미끄럼틀 놀이 사진, 미끄럼틀에서 위험한 상황 그림자료(놀잇감을 들고 미끄럼틀 타는 그림, 거꾸로 올라가는 그림)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외놀이 사진을 보며 영아와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갔을까? - 어떤 놀이를 하고 있지? 2. 위험한 놀이 상황 그림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틀을 탈 때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미끄럼틀에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3. 안전하게 미끄럼틀을 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안전하게 미끄럼틀 놀이를 하기 위한 약속을 정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으로 올라가서 타기 - 친구들이 내려오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기 - 순서대로 한 명씩 미끄럼틀 타기 - 미끄럼틀 난간 잡고 내려가기 - 놀잇감 들고 타지 않기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틀에서 친구가 타고 내릴 때까지 기다린 뒤 한명 타야함을 반복하여 알려준다. - 미끄럼틀 아래에서 놀이지 않도록 한다.

<B-1-10>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시 어른의 지시에 따른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가 났을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안다.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화재상황에서 대피한다.
안전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가 났을 때 연기도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안전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안전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화재상황에서 대피한다.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 불꽃모양, 연기 그림카드, 이불 등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상시 소방대피훈련을 통해 불이 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2.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불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가 나요. 뜨거워요. - 밖으로 대피해야해요. 3. 불이 났을 때 나는 연기를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연기를 마시지 않아야 함을 알려준다. 4.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입과 코를 가리고, 몸을 숙여서 연기 밑으로 지나가야 함을 알려준다. 5.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연기 모형 밑으로 기어서 대피하는 활동을 해 본다.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 모형 밑으로 기어갈 때 모형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 시킨다. - 정확한 시범을 보고, 영아들이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B-1-11>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선생님(보호자) 도와주세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활동목표	·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고, 주변에 도움 청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안전지식	·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경계해야 함을 안다.
안전기술	·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안전태도	· 보호자와 함께 다닌다.
활동자료	· 그림책(동물원에 가면 / 글 : 파울린 아우드)
활동방법	<p>1.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면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에 간 장면을 보며) 동물 친구들이 동물원을 갔네~ -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니? - 누구와 함께 갔니? <p>2. 모르는 사람이 먹는 것을 주거나 관심을 보이며 같이 가자고 할 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사람이 과자나 사탕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 모르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주는 것을 받으면 안돼요. - 모르는 사람이 나를 데려가려 할 때 “도와주세요!”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해 보자. <p>3. 어머니나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오리는 어디 있을까? - 선생님은 어디에 가셨을까? - 밖에 나갈 때는 어머니나 선생님과 함께 다녀야 해요.
유의점	· 안전교육을 할 때 너무 어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이야기 한다.

<B-1-12>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똑똑똑 누가 왔을 때 문을 열지 않아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활동목표	·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안전지식	·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함을 안다.
안전기술	· 낯선 사람이 찾아 왔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안전태도	·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활동자료	· 그림책(똑똑똑 누가 왔을까? / 글 : 다다 히로시), 현관문 모형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똑똑똑 누가 왔을까 책을 영아가 관심을 보일 때 선생님과 함께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생일인가봐? - (그림책을 보며) 어떤 동물들이 집에 찾아 왔구나! 2. 그림책을 다시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을 두드리며) 똑똑똑 누가 왔을까? - (그림책을 보며) 생쥐가 왔네. - (교사가 똑똑똑 두드리는 것을 보며) 똑똑똑 누가 왔을까? 3.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대해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사람이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 모르는 사람이 함께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 -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지 않아요”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해요. -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 보자
유의점	- 영아들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 상황에 맞게 경계할 수 있도록 교사가 상황에 맞게 이야기 해주고 반복적으로 알려 준다.

<B-1-13>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소화기로 불을 꺼요!(게임)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알기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에 관심을 가진다. · 불을 끄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안다.
안전지식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안다.
안전기술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 수 있다.
안전태도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활동자료	소화기, 옷, 불, 아파트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며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건 뭘까요? - 소화기도 있고 불도 있고 아파트도 있네요 -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소방관아저씨가 불을 끌때 사용하죠? 2. 불이 난 장소를 알고 불이 났을때 필요한 재료를 살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에서 불이 났나봐요 어떻게 하지요? -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맞아요 119를 부르고 소화기로 불을 꺼야겠지요? - 그럼 소방관아저씨가 되어볼까요? - 누가 소방관이 되어 볼까요? - 불을 끄기 전 필요한 물건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 소화기도 필요하고 모자 옷 등이 필요하겠죠? 3.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 시범을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건 소화기예요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어요 -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4. 소방관 옷을 입고 2명씩 차례대로 소방관이 되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 차례로 나와 불을 꺼보도록 할까요? - 우리 oo이가 소방관이 되었네요. -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 oo이가 불을 꺼줄까요? - 우와 짹짹! 불을 꺼주신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대로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끌 수 있도록 한다. - 소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B-1-14>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카시트(안전벨트)를 안전하게 해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활동목표	· 차량 안에서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안전지식	· 차량 안에서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안전기술	· 차량에 타면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
안전태도	·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활동자료	· 그림 또는 사진자료(차안에서 카시트 앉아 있는 장면)
활동방법	<p>1.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 여기 어린이집 가려고 차에 앉아 있네~ - (안전벨트 한 그림을 보며) 여기 무엇을 하고 있지? -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야 차가 흔들려도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p> <p>2. 어린이집 등원 시 영아들이 차량을 탈 때 이야기 한다. - (차량을 타면서) 자~ 카시트에 앉아요. -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며) 카시트에 안전벨트 꼭! 해요. - 안전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p> <p>3. 카시트 모형 놓고 차에 탑승시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는 역할놀이를 해본다. - 자 차가 댕어요. 출발하기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 카시트에 어떻게 앉아야 할까? - 차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꼭 해야 다치지 않아요.</p>
유의점	- 영아들이 차량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시트에 앉기 및 안전벨트 하기를 등.하원 전에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줄수 있도록 한다.

<B-1-15>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횡단보도를 건너요.
표준보육 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교통안전알기->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
활동목표	· 횡단보도에 관심을 가진다. · 횡단보도에 대한 경험 말하기를 시도한다. ·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넌다.
안전지식	· 횡단보도에 관심을 가진다.
안전기술	· 횡단보도의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안전태도	·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활동자료	· 횡단보도와 신호등 사진, 횡단보도, 신호등 모형
활동방법	<p>1. 횡단보도 사진을 살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사진을 보며)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반복되는 길을 본 적 있니? - 이런 길을 어디서 보았니? - 이런 길을 건너 본 적이 있니? <p>2. 횡단보도, 신호등 사진을 보면서 횡단보도의 이름, 역할을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 이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야. - 신호등에는 무슨 색이 있을까? - 신호등에 초록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p>3.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본 경험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이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본 적이 있니? - OO이는 누구와 횡단보도를 건너보았니?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땠니? <p><확장 활동></p> <p>1.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를 찾아보기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사진을 보며) 여기에 있는 길과 똑같이 생긴 검정색, 하얀색 길을 어린이집 바깥에 나가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자. <p>2. 어린이집 앞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길을 함께 건너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에서는 부릉부릉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아저씨가 우리가 보이도록 한손을 높이 들고 가야해.
유의점	- 교실 내에서 모형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통해 길 건너기 놀이를 충분히 한 후에 실제 횡단보도를 건너보도록 한다.

<B-1-16>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지진 시 대피요령 - 땅이 흔들흔들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알기->위험한 상황시 어른의 지시를 따른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이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음을 안다. ·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다.
안전지식	·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위험함을 안다.
안전기술	·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
안전태도	· 지진 발생 시 교사의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활동자료	· 지진 관련 사진, 책상, 땅 모형판, 집안모형, 가구모형, 인형 등
활동방법	<p>1. 영아들과 함께 손유희 ‘흔들흔들’을 해본다.</p> <p>2. 몸을 흔들어 보며, 흔들리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흔들어 보자. -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p>3. 지진 동영상을 보여준다.</p> <p>4. 집안 모형을 통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물건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땅 모형판을 책상위에 올린다.</p> <p>② 땅 모형판 위에 집안 모형, 가구모형, 인형 등을 얹는다.</p> <p>③ 책상 아래서 땅 모형판을 흔든다.</p> <p>④ 땅이 흔들릴 때 집안 모형과 가구모형, 인형의 변화를 보여준다.</p> </div> <p>4.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p>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동영상은 2~3분 정도로 영상이 길지 않게 주의한다. -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요령을 함께 이야기 나눈다.

<B-1-17> 영아 안전교육계획안


활동명	모래바람이 불어요
표준보육과정영역	기본생활->안전하게 생활하기->위험한 상황알기->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가 발생했을 때 특징에 대해서 안다. · 황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안전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가 발생했을 때의 특징은 안다.
안전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안전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 관련 영상, 마스크, 인형 등
활동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봄의 날씨나 황사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봄에 부는 모래바람에 대해 알려준다. 2. 모래놀이터에서 모래놀이 중에 눈이나 입에 모래가 들어갔거나, 바람이 불어 눈이나 입에 모래가 들어갔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따가웠어요. - 입안에 모래가 씹혀요. - 목으로 넘어가서 아파요. 3. 황사가 입이나 코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를 꼭 눌러써요 - 입을 막아요 - 옷을 뒤집어써요 - 밖에 나가면 안돼요 - 얼굴과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4. 인형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역할놀이를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씌워준다 - 손발을 씻겨준다.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후 역할놀이를 연계하여 인형에게 마스크 씌워주기, 외출 후 손발 씻기 등을 놀이로 체험해 보도록 한다.

<B-2-1>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활동명	문을 안전하게 열고 닫아요.		
안전영역	생활안전	대상연령	만 2세
활동유형	역할놀이, 신체	활동영역	신체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제작방법	<p>재료 : 문(5T 우드락, 하드보드지, 노란/굴/주황색 펠트지, 경첩 2개), 손잡이, 잠금고리(5T EVA, 할핀, 굴색 펠트지), 글루건</p> <p>- 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T 우드락(제일 큰 거)-하드보드지 2개(4절지크기)-5T 우드락(제일 큰 거) 순으로 겹쳐서 붙여준 후, 노란색 펠트지로 감싸준다.(노란 문) 2. 5T 우드락(제일 큰 거)을 긴 방향으로 6개를 자르고 하드보드지도 우드락 너비에 맞춰서 4개를 잘라준 후, 우드락-우드락-하드보드지-우드락 순으로 붙이고 굴색 펠트지로 감싸준다. (굴색 긴 틀이 2개가 나옴) 3. 굴색 긴 틀 1개에 경첩 2개를 달아주고 경첩 방향에 맞게 노란 문을 붙여준다.(경첩을 붙인 부분에 노란/굴색 펠트지를 붙여 경첩에 굽히지 않게 한다.) 4. 하드보드지와 우드락으로 밀면이 뚫린 상자(2개)를 만들어 주황색 펠트지로 감싸준다. 5. 굴색 긴 틀을 상자에 붙여주면 문 완성. <p>- 손잡이, 잠금고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잡이)5T EVA를 직사각형으로 4개를 잘라 겹쳐 붙이고 굴색 펠트지를 감싸준 후, 문에 붙이면 손잡이 완성. 2. (잠금고리)5T EVA를 작은 직사각형으로 6개를 잘라 2개씩 붙인 후, ρ모양으로 붙여준다. 5T EVA를 큰 직사각형 2개를 잘라준 후, 할핀을 꽂는다. ρ모양 EVA는 굴색 긴 틀에, 할핀을 꽂은 EVA는 문에 붙여주면 잠금고리 완성. 		
사진			

<B-2-2>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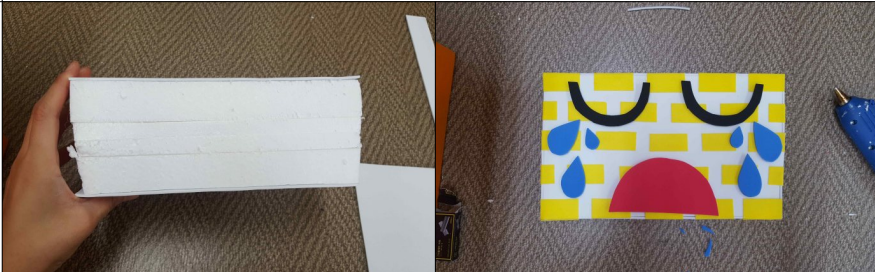
<p>활동명</p>	<p>양치를 해요(대집단)</p>		
<p>안전영역</p>	<p>생활안전</p>	<p>대상연령</p>	<p>만 2세</p>
<p>활동유형</p>	<p>이야기 나누기</p>	<p>활동영역</p>	<p>탐색영역, 역할영역</p>
<p>활동자료</p>	<p>▪ 치약, 입 모형, 칫솔, 세균, 사탕, 초콜릿</p>		
<p>제작방법</p>	<p>재료 : 치약(하늘/흰색 부직포, 솜, 검은/파란/살색 펠트지), 입 모형(살/빨간/분홍색펠트지, 하늘색부직포, 흰색백업, 우드락), 칫솔(하늘색 백업, EVA 막대), 세균(검은색 큰 병병이, 눈알, 빨간색 펠트지),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분홍/노랑색 백업, 흰/하늘/연두/파란 /갈/연갈색 펠트지, 아이스크림 막대, 솜), 글루건, 실, 바늘</p> <p>- 치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늘/흰색 부직포를 잘라 치약 모양으로 만들고 솜을 넣어 준다. 2. 치약 모양에 검은/파란/살색 펠트지를 잘라 얼굴과 ‘어린이 치약’ 글자를 만들어 붙여주면 치약 완성. <p>- 입 모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색펠트지를 얼굴 모양(2장)으로 자른 후, 우드락도 얼굴 모양으로 잘라준다. 2. 얼굴 모양 우드락 위에 얼굴 모양 살색 펠트지 1장을 붙이고 빨간색 펠트지를 얼굴 크기의 절반 정도로 잘라 입을 만들어 준다. 3. 얼굴 모양 살색 펠트지를 얼굴 모양 우드락에 절반정도 붙이고 검/빨간/흰색 펠트지로 아이의 얼굴을 만들어 얼굴 모양 살색 펠트지 위에 붙여 준다. 4. 입 크기보다 좀 작게 우드락을 자른 후, 붙이지 않은 살색 펠트지 위에 붙여 준다. 5. 빨간색 펠트지를 입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우드락 위에 붙여준다. 6. 흰색 백업을 잘라 입부분에 붙이고 흰색 백업 위에 보슬이를 붙여준다. 		

	<p>7. 분홍색 펠트지를 혀 모양으로 잘라 붙여준다.</p> <p>8. 우드락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하늘색 부직포로 감싸 붙여준 후, 만들어 놓은 얼굴을 붙여주면 입 모형 완성.</p> <p>- 치솔</p> <p>1. 하늘색 백업에 흰색 EVA막대를 잘라 붙여주면 치솔 완성.</p> <p>- 세균</p> <p>1. 검은색 큰 뽕뽕이에 눈알을 붙여주고 빨간색 펠트지를 포크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주고 까슬이를 붙여주면 세균 완성.</p> <p>- 사탕, 아이스크림, 초콜릿(뒤에는 까슬이를 붙여준다.)</p> <p>1. (롤리팝사탕)분홍/노란색 백업에 흰색 펠트지를 사각형으로 잘라 중간 중간 감싸주고 백업을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서 고정시킨 후,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여준다.</p> <p>2. (봉지사탕)하늘색/연두색 펠트지를 봉지사탕 모양으로 각 2장씩 자른 후, 다른 색의 펠트지를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 사탕모양의 펠트지 위에 붙여준다. 같은 색의 사탕모양 펠트지를 겹쳐 바느질한 후, 숨을 넣어 마무리 하면 봉지사탕 완성.</p> <p>3. (막대아이스크림)파랑/흰색 펠트지를 막대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각 2장씩 잘라준 후, 2장을 겹쳐서 바느질 하고 숨을 넣어 준다. 뒤쪽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여주면 막대아이스크림 완성.</p> <p>4. (초콜릿) 갈색 펠트지를 초콜릿의 큰틀 모양으로 2장 잘라준다. 연갈색을 작은 직사각형으로 9개를 잘라주고 갈색 펠트지로 연갈색보다 더 작은 직사각형으로 9개를 잘라 연갈색 위에 붙여준다. 연갈색을 초콜릿의 큰틀 펠트지 위에 붙이고 큰틀 2장을 겹쳐 바느질하고 숨을 넣어 주면 초콜릿 완성.</p>
<p>사 진</p>	



<B-2-3>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p>활동명</p>	<p>양치를 해요(영역배치용)</p>		
<p>안전영역</p>	<p>생활안전</p>	<p>대상연령</p>	<p>만 2세</p>
<p>활동유형</p>	<p>조작</p>	<p>활동영역</p>	<p>탐색영역, 역할영역</p>
<p>활동자료</p>	<p>▪ 입 모형, 칫솔</p>		
<p>제작방법</p>	<p>재료 : 입 모형(살/빨간/분홍색 펠트지, 흰색 백업, 우드락) 칫솔(5T, 2T EVA, 하드보드지, 흰색 뽕뽕이)</p> <p>- 입 모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색펠트지를 얼굴 모양(2장)으로 자른 후, 우드락도 얼굴 모양으로 잘라준다. 2. 얼굴 모양 우드락 위에 얼굴 모양 살색 펠트지 1장을 붙이고 빨간색 펠트지를 얼굴 크기의 절반 정도로 잘라 입을 만들어 준다. 3. 얼굴 모양 살색 펠트지를 얼굴 모양 우드락에 절반정도 붙이고 검/빨간/흰색 펠트지로 아이의 얼굴을 만들어 얼굴 모양 살색 펠트지 위에 붙여 준다. 4. 입 크기보다 좀 작게 우드락을 자른 후, 붙이지 않은 살색 펠트지 위에 붙여 준다. 5. 빨간색 펠트지를 입 크기에 맞게 자른 후, 우드락 위에 붙여준다. 6. 흰색 백업을 잘라 입부분에 붙이고 흰색 백업 위에 보슬이를 붙여준다. 7. 분홍색 펠트지를 혀 모양으로 잘라 붙여주면 입 모형 완성. <p>- 칫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T EVA로 칫솔대를 만들어준다.(2개) 2. 하드보드지를 칫솔대 크기로 자른 후, EVA-하드보드지-EVA 순으로 붙여준다. 3. 흰색 뽕뽕이를 붙여 칫솔모를 만들어 준 후, 2T EVA를 얇게 잘라 칫솔대에 붙여주면 칫솔 완성. 		
<p>사 진</p>			

<B-2-4>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활동명	장난감이 아파요.		
안전영역	생활안전	대상연령	만 2세
활동유형	이야기 나누기	활동영역	언어영역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는 블록 1개, 데일밴드 6개 		
제작방법	<p>재료 : 우는 블록(두께 4cm 스티로폼, 흰/검/하늘/빨강 2T EVA, 펠트지), 데일밴드(황토/주황/살색 펠트지, 황토색 네임펜, 까슬이), 글루건</p> <p>- 우는 블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티로폼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3개를 자른 후, 겹쳐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2. 흰색 2T EVA를 스티로폼의 각 면의 크기대로 자른 후, 글루건으로 스티로폼에 붙여준다. 3. 펠트지를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벽돌무늬처럼 붙여준다. 4. 검은색, 하늘색, 빨간색 2T EVA로 눈, 눈물, 입을 잘라 붙여주면 우는 블록 완성. <p>- 데일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색 펠트지를 모양으로 잘라준다. 2. 주황색과 살색 펠트지를 모양으로 잘라 황토색 펠트지 앞뒤의 중간에 하나씩 붙여준다. 3. 살색 펠트지 위에 까슬이를 잘라 붙여준다. 4. 주황색을 붙여준 황토색 펠트지 부분에 황토색 네임펜으로 점을 찍어주면 데일밴드 완성. 		
사진			

<B-2-5>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활동명	연기 밑을 기어서 가요.		
안전영역	소방안전	대상연령	만 2세
활동유형	신체	활동영역	신체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터널 		
제작방법	<p>재료 : 연기 터널(긴 원형 통 3개, 갈/황토/회/취색 펠트지, 백업), 고정판(4절 하드보드지 4장, 펠트지, 2T 폼보드, 양면테이프), 글루건</p> <p>- 연기 터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 원형 통 2개를 갈색과 황토색 펠트지로 감싼다. 2. 긴 원형 통을 갈색과 황토색 펠트지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벽돌무늬로 꾸며준다. 3. 회색과 취색 펠트지를 다양한 크기의 구름 모양으로 잘라준다. 4. 남은 긴 원형 통에 구름 모양들을 앞뒤로 붙여 연기처럼 꾸며준다. 5. 벽돌 무늬 원형 통의 구멍 한쪽에 백업을 붙여 막아준다. 6. 구름 원형 통 양 끝에 벽돌 무늬 원형 통(백업으로 막아준 구멍 부분)을 붙여주면 연기 터널 완성. <p>- 고정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절지 하드보드지 4장을 절반으로 잘라준다.() 2. 절반으로 자른 하드보드지를 4개씩 양면테이프로 붙여준다. 3. 4개씩 붙인 하드보드지를 펠트지로 감싸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4. 긴 원형 통 1/4 정도의 높이로 2T 폼보드를 길게 잘라준다. 5. 폼보드를 긴 원형 통 1/4 높이로 0.5~0.7cm 간격으로 칼집을 내어준다. 6. 칼집을 낸 폼보드를 말아주며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원형 통에 넣었을 때 여유가 있을 정도로) 7. 말아 준 폼보드를 하드보드지를 감싼 펠트지와 같은 색으로 감싸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8. 연기터널을 고정시터 위치를 하드보드지에 표시하고 폼보드를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고정판 완성. 		
사 진			

<B-2-6>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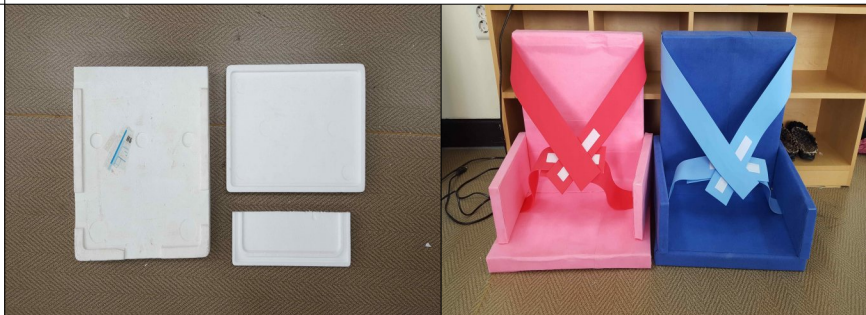
활동명	소화기로 불을 꺼요		
안전영역	소방안전	대상연령	만 2세
활동유형	신체	활동영역	신체, 역할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모형, 불 모형, 소방 옷 2개, 소화기 2개 		
제작방법	<p>재료 : 아파트 모형(박스 4개, 회/하늘/검은색 펠트지), 불 모형(빨간/노란색 펠트지, 솜), 소방 옷(빨간/노란색 펠트지), 소화기(페트병, 빨간/노란/검은색 아크릴 물감, 붓, 흰색 백업, 검은색 전기 테이프, 빨래집개), 글루건, 실, 바늘</p> <p>- 아파트 모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스 4개를 우리테이프로 이어 붙인다. 2. 회색 펠트지로 이어 붙인 박스들을 감싼다. 3. 하늘색 펠트지를 정사각형으로 자른 후, 그 위에 검은색 펠트지를 창문틀 모양으로 잘라 붙여준다. (21개) 4. 만든 창문모양을 회색박스 위에 가로로 3개씩 붙여주면 아파트 모형 완성. <p>- 불 모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빨간색과 노란색 펠트지로 불 모양으로 잘라준다. (불 모형 2개당 빨간색 2장, 노란색 1장) 2. 빨간색 불 모양 1장에 노란색 불 모양을 붙이고, 빨간색 불 모양 2장을 포개어 솜을 넣을 구멍을 남기고 바느질한다. 3. 솜 구멍에 솜을 넣고 바느질한다. <p>- 소방 옷</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빨간색 펠트지로 조끼모양으로 2장을 잘라 준다. (1장=앞부분, 1장=뒷부분) 2. 조끼모양의 펠트지 1장의 목 부분을 더 깊이 반원모양으로 잘라준 후, 		

	<p>절반으로 잘라준다. (앞부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앞부분과 뒷부분을 겹쳐 놓은 후, 앞/뒷부분이 만나는 옆과 어깨부분을 바느질해준다. 4. 노란색 펠트지를 길게 잘라 빨간색 펠트지 위에 2줄로 붙여준다. 5. 옷의 앞부분에 단추를 달아주면 소방 옷 완성. <p>- 소화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페트병 곁에 있는 껍질을 벗기고 빨간색 아크릴물감을 전체적으로 칠해 준다. (1번 칠하고 마르면 1번 더 칠해준다.) 2. 노란색 아크릴물감으로 세로로 '소화기'라고 적어준다. 3. 흰색 백업에 검은색 전기 테이프를 감아 준다. 4. 빨래집게에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2번 칠해 준 후, 전기 테이프를 감은 백업 한쪽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 글루건으로 빨래집게를 고정시켜 준다. 5. 빨래집게를 고정시킨 백업 부분을 페트병 뚜껑에 고정시키면 소화기 완성.
사 진	

<B-2-7>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활동명	투척용 소화기 불 불링핀 놀이		
안전영역	소방안전	대상연령	만 2세
활동유형	신체	활동영역	신체, 감각
활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척용 소화기 2개, 불 불링핀 6개 		
제작방법	<p>재료 : 투척용 소화기(플라스틱 음료수 통, 투명 라벨지), 불 불링핀(빨강/주황/노랑 펠트지, EVA 5T, 글루건)</p> <p>- 투척용 소화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 라벨지에 플라스틱 음료수 통 크기에 맞게 투척용 소화기 글과 그림을 프린트 한다. 프린트한 투척용 소화기 글과 그림을 플라스틱 음료수 통에 붙여준다. <p>- 불 불링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빨강/주황/노랑 펠트지로 불 모양을 만들어 붙여준다. 빨강색 불모양 크기로 EVA 5T를 잘라 붙여준다. EVA 5T를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2개로 자른 후, 1개의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잘라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 직사각형과 삼각형을 모음 오(⊥)모양으로 붙여준다. 불모양과 모음 오(⊥)모양의 EVA를 붙이면 불 불링핀 완성. 		
사진			

<B-2-8>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p>활 동 명</p>	<p>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해요</p>		
<p>안전영역</p>	<p>교통안전</p>	<p>대상연령</p>	<p>만 2세</p>
<p>활동유형</p>	<p>이야기 나누기</p>	<p>활동영역</p>	<p>역할</p>
<p>활동자료</p>	<p>▪ 카시트 2개</p>		
<p>제작방법</p>	<p>재료 : 의자(스티로폼, 펠트지), 안전벨트(EVA 2T, 벨크로), 글루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티로폼을 알맞은 크기로 등받이 1개, 밑바닥 1개, 팔걸이 2개로 자른다. 2. 펠트지로 잘라 놓은 각 스티로폼(등받이 1개, 밑바닥 1개, 팔걸이 2개)을 글루건으로 붙인다. 3. 펠트지를 붙인 등받이와 밑바닥을 의자모양으로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4. 등받이와 밑바닥 이음새부분을 같은 색 펠트지로 글루건으로 한 번 더 붙여준다. 5. EVA 2T를 길게 4개를 잘라 등받이 모서리 윗부분 좌우, 밑바닥 모서리 중간 좌우에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6. 팔걸이를 의자모양(등받이+밑바닥)의 양 옆에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7. EVA 2T에 순서에 맞게 보슬이와 까슬이를 붙여 안전벨트를 완성하면 카시트 완성. 		
<p>사 진</p>			

<B-2-9> 영아 안전교재교구 제작계획안

<p>활 동 명</p>	<p>지진이 일어 났어요.</p>		
<p>안전영역</p>	<p>생활안전</p>	<p>대상연령</p>	<p>만 2세</p>
<p>활동유형</p>	<p>이야기 나누기</p>	<p>활동영역</p>	<p>언어</p>
<p>활동자료</p>	<p>▪ 집안 틀, 가구(소파, 의자, 침대, 흔들의자, 난로, 서랍, 시계, 스탠드, 책상)</p>		
<p>제작방법</p>	<p>재료 : 집안 틀(5T 폼보드, 갈/아이보리색/무늬 펠트지, 양면테이프), 가구(조립식우드모델, 목공품, 아크릴물감, 붓, 물통)</p> <p>- 집안 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T 폼보드로 집안의 바닥(2개), 벽(4개)을 잘라준다. 2. 자른 폼보드를 크기에 맞게 2개씩 양면테이프로 붙여준다. 3. 바닥은 아이보리와 갈색 펠트지로 벽은 갈색과 무늬 펠트지를 앞뒤로 붙여준다. 4. 바닥의 두 면에 벽 2개를 붙여서 집안 틀을 완성한다. <p>- 가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립식 우드모델을 구입한 후, 조립한다. (안에 있는 사포로 면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2. 조립한 가구들을 아크릴물감으로 색칠한 후 집안 틀에 배치한다. 		
<p>사 진</p>	